

조지아 역사 문화 기행

목차, 서문, 17장, 부록 4편, 에필로그



김경진

Korean PDF edition

조지아 역사 문화 기행

김경진

김경진이 AI서재에 공개한 온라인 책 『조지아 역사 문화 기행』입니다. 조지아 역사, 문화, 기행, 코카서스 여행을 주제로 목차, 서문, 17장, 부록 4편, 에필로그 구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차

서문

- 1장 코카서스의 관문을 열다
- 2장 트빌리시: 과거와 현대가 춤추는 수도
- 3장 카헤티: 8,000년 와인의 성지
- 4장 카즈베기와 코카서스의 설산
- 5장 서부 조지아: 흑해와 중세의 탑들
- 6장 실전 여행 노트
- 7장 8,000년 문명의 교차로
- 8장 언어와 문자, 영혼의 저력
- 9장 정교회와 조지아인의 DNA
- 10장 장미혁명에서 민주주의 후퇴까지
- 11장 2008년 전쟁과 분단된 영토
- 12장 유럽을 향한 열망과 좌절
- 13장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
- 14장 체제 전환의 명암
- 15장 관광과 와인
- 16장 도전과 균열
- 17장 한국과의 접점
- 부록 1 조지아 역사 연표
- 부록 2 와이너리 지도
- 부록 3 긴급 연락처
- 부록 4 AI,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에필로그: 향아리 속 호텔에서 보낸 밤

서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2024년 5월, 이스탄불 사비하 콕첸 공항에서 탑승한 비행기로 흑해를 건넜습니다.

두 시간이 채 안 되어 바투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의 이슬람 사원 침탑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눈앞에는 정교회 십자가가 펼쳐졌습니다. 비행기로 두 시간, 문 명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바투미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흑해 연안의 작은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고층 호텔과 카지노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코카서스의 라스베이거스'라는 별명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알리와 니노 동상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청년과 조지아 정교회 공주의 비극적 사랑.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두 형상은 코카서스 역사의 은유 처럼 느껴졌습니다.

바투미에서 트빌리시로 향하는 길, 나는 이 나라의 복잡한 현실과 처음 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중국어 간판이 붙은 건설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중국 기업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이곳에서 현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회랑, 그 한가운데 조지아가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구상이 이 작은 나라의 땅 위에서 콘크리트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간판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시장에서, 택시 안에서 러시아어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2008년 전쟁으로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사실상 빼앗긴 나라. 그런데 수도 한복 판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거리를 채웠고, 러시아 자본이 투자한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점령군의 나라와 적대하면서도, 그 나라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모순. 이것이 조지아의 실존적 딜레마였습니다.

카즈베기로 향하는 군사도로는 제국의 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코카서스를 넘어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닦은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해발 2,170미터에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가 나타납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지고, 14세기에 세워진 돌 교회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고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산 너머가 러시아입니다. 점령선은 매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 하루아침에 내 집이 러시아 영토가 되는 일이 이곳에서는 실제로 벌어집니다.

동쪽 카헤티 지방에서는 8,000년 와인 문명을 만났습니다.

크베브리(Qvevri)라 불리는 항아리에서 숙성된 호박빛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이너리 주인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이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8,000년이 라는 숫자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와인의 고향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곳입니다.

고리를 지날 때, 스탈린 박물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사내가 소련을 이끌며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조지아 인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자랑스러운 고향의 아들일까요, 민족을 탄압한 독재자일 까요. 물어볼 때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2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나는 조지아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문명의 교차로입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동쪽에서는 중국의 일대 일로가 밀려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연합을 향한 열망이,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이란의 영향력이 교차합니다. 사방이 강대국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인구 370만의 작은 나라가 5,000년 문자와 8,000년 와인을 지키며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에게 조지아의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생존하는지, 조지아는 하나의 답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는 두 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자의 눈입니다. 와인 잔을 기울이고, 하차푸리를 뜯고, 설산을 올려다보는 감각의 기록. 다른 하나는 분석가의 눈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타기하는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거리로 나서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낭만과 현실, 둘 다 조지 아입니다.

이 책이 조지아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실용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코카서스라는 창을 통해 21세기 지정학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김경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장 코카서스의 관문을 열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1부 조지아 여행

가. 한국인 1년 무비자의 특권과 입국 절차

트빌리시 국제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공기의 냄새입니다. 건조하면서도 어딘가 흙내음이 섞인, 유라시아 대륙 깊숙한 곳의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면 의외로 빠르게 차례가 돌아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탬프를 찍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365일, 정확히 1년의 시간이 여행자에게 주어집니다.

조지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비자 정책을 펼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도의 비자 신청이나 대사관 방문 없이, 여권 하나만으로 1년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파격적인 혜택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98개국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0일 무비자가 일반적인 세계 여행 환경에서, 365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입국에 필요한 서류는 간소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이면 충분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여행 목적이나 숙소 정보를 물을 수 있으나, 실제로 꼼꼼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왕복 항공권 예약 내역이나 호텔 바우처를 준비해두면 마음이 놓이겠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는 별다른 질문 없이 통과합니다. 국경 검문소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무비자 대상국이 아닌 여행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전자비자(e-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면 기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어디서 왔어요? 코리아?" 고개를 끄덕이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삼성! 현대! 굿 컨트리!" 트빌리시까지 40분 남짓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기사는 자신의 조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 조지

아 와인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조지아인의 의무라는 설명을 쉬지 않고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조지아 여행의 시작입니다. 공항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나라.

1년이라는 시간은 여행자에게 여유를 선물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트빌리시에서 한 달을 보내도 좋고, 카헤티의 와이너리에서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을 온전히 지켜봐도 됩니다. 겨울이 오면 구다우리의 설산에서 스키를 배우고, 봄이 돌아오면 스바네티의 야생화 사이를 걸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들이 조지아를 성지처럼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별도의 취업 비자나 거주 허가 없이, 노트북 하나 들고 합법적으로 1년을 살아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을 꼭 채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접국으로 잠시 나갔다 돌아오면 됩니다. 아르메니아의 예레반까지는 차로 5시간, 터키의 트라브존까지는 흑해 연안을 따라 하루면 닿습니다. 국경을 넘어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조지아로 들어오면, 새로운 1년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연속 체류에는 한계가 있고, 이민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자에게 이 시스템은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조지아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건강 및 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보험 증서는 영문으로 출력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최소 보장 금액은 30,000라리(약 1,6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현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으나,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트빌리시 공항 외에도 쿠타이시와 바투미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쿠타이시 공항은 위즈 에어(Wizz Air) 같은 저가 항공사들이 취항하여 유럽 각지에서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바투미 공항은 흑해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들에게 편리합니다. 어느 공항으로 들어 오든 절차는 동일하며, 한국 여권의 힘은 어디서나 똑같이 발휘됩니다.

육로 입국도 가능합니다. 터키에서 사르피(Sarpi) 국경을 넘거나, 아르메니아에서 바그라 타셴(Bagratashen)을 통해 들어오는 여행자도 많습니다.

국경 통과는 대체로 순조롭지만,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여파로 육로 국경이 폐쇄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행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거쳐 러시아로 넘어가는 루트는 조지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월경으로 간주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첫 번째 밤을 보내는 숙소의 창문을 열면, 트빌리시의 밤공기가 밀려들어 옵니다. 멀리서 정교회 성당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는 온전히 여행자의 몫입니다.

나. 12개 기후대를 품은 작은 나라, 계절별 여행 전략

조지아의 면적은 약 69,7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의 70퍼센트 정도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12개의 서로 다른 기후대가 공존합니다.

서쪽 흑해 연안에서는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동쪽 카헤티의 포도밭에서는 건조한 햇살 아래 포도송이가 익어갑니다. 북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5,000미터급 봉우리에 만년설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키를 타고 저녁에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기후 다양성의 비밀은 지형에 있습니다. 북쪽의 대카프카스 산맥이 시베리아에서 내려 오는 찬 공기를 막아주고, 서쪽의 흑해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바다의 영향이 줄어들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남쪽의 소카프카스 산맥은 또 다른 기후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작은 국토 안에서 복잡하게 얹혀 12개의 기후대를 빚어냅니다.

봄(4월~6월)은 트빌리시와 저지대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4월이 되면 겨울의 회색빛이 걷히고, 도시 곳곳에 꽃이 피어납니다. 올드타운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발코 니마다 화분이 놓여 있고,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기온은 12도에서 24도 사이를 오가며, 낮에는 반팔이 어울리고 저녁에는 가벼운 겔옷이 필요합니다.

5월의 카헤티는 온통 초록빛입니다. 포도나무에 새잎이 돋고, 알라자니 계곡을 가로지르는 바람에서 풀 냄새가 납니다. 시그나기의 언덕에 올라 카프카스 산맥을 바라보면, 아직 녹지 않은 눈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이 시기에 와이너리를 방문하면 와인 저장고의 서늘한 어둠 속에서 지난 해 담근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 니콜로즈가 말했습니다. "봄에 오면 와인이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흙과 바람과 햇살, 모든 것이 포도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산악 지역은 조심해야 합니다. 카즈베기나 스바네티는 5월 말까지도 눈이 남아 있고, 트레킹 코스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비도 잦아서 우산이나 방수 재킷은 필수입니다.

여름(7월~8월)의 트빌리시는 뜨겁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건조한 열기가 도시 전체를 감쌉니다. 현지인들은 점심시간에 그늘을 찾아 사라지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거리로 나옵니다. 이 계절에 트빌리시만 머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해발 2,000미터 이상의 카즈베기, 스바네티, 투세티로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낮에도 선선하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할 만큼 서늘합니다. 7월의 주타 밸리에서 트레킹을 하던 날, 초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데 옆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던 스바네티 청년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름에 이 산에 오지 않으면 조지아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여름의 고산 트레킹은 조지아 여행의 백미입니다.

서쪽 바투미는 흑해 해변 휴양지로 여름에 가장 붐빕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웁니다. 아열대 기후 덕분에 습도가 높고, 열대 식물이 무성한 식물원이 유명합니다. 해수욕을 즐기다가 저녁에는 해안 산책로에서 알리와 니노(Ali and Nino) 동상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을(9월~10월)은 조지아를 여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계절입니다. '벨벳 시즌'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는 더위가 물러가고, 산과 계곡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로 쾌적하며, 비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카헤티에서 '르트벨리(Rtveli)'가 열립니다. 포도 수확 축제입니다. 온 가족이 포도밭에 나가 포도를 따고, 맨발로 포도를 밟아 즙을 내고, 갓 짜낸 포도 즙을 맛봅니다. 와이너리마다 문을 활짝 열고 방문객을 환영하며, 수프라(전통 연회)가 밤 늦도록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카헤티를 방문한다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손님이 됩니다.

트레킹은 10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카즈베기의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까지 오르는 길에서 보는 단풍은 잊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다만 고산 지대는 10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 도로가 눈으로 막히기 시작하므로 날씨 확인은 필수입니다.

겨울(12월~2월)은 스키어들의 계절입니다. 구다우리(Gudauri)는 트빌리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키 리조트로, 알프스에 견줄 만한 설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리프트권과 장비 대여료를 합쳐도 하루 10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바쿠리아니(Bakuriani)는 가족 단위 스키어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고, 스바네티의 하츠발리(Hatsvali)는 한적하면서도 경관이 수려합니다.

겨울 산악 지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세티로 가는 도로는 11월부터 5월까지 완전히 폐쇄되고, 스바네티 일부 구간도 폭설 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트빌리시와 저지대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평균 기온이 영상 5~7도 정도이고, 눈이 내려도 금방 녹습니다. 유황 온천에 몸을 담그고 뜨거운 차를 마시며 겨울을 나는 것도 조지아만의 낭만입니다.

1월 7일은 조지아 정교회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율리우스력을 따르기 때문에 서방 크리스마스보다 2주 늦습니다. 이날 트빌리시의 사메바 대성당에서 열리는 자정 미사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촛불을 든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메우고, 다성 합창이 돔 천장에 울려 퍼집니다.

다. 마슈루트카부터 렌터카까지, 교통수단 완전 정복

조지아의 교통은 '모험'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현대적인 시스템과 구소련 시대의 유산, 그리고 조지아인 특유의 거침없는 운전 스타일이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며칠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여행의 일부가 됩니다.

마슈루트카(Marshrutka)는 조지아의 국민 교통수단입니다. 15인승 내외의 미니버스가 도시와 도시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합니다. 정해진 터미널에서 출발하지만, 도로변에서 손을 흔들면 태워주고, 내리고 싶은 곳에서 기사에게 말하면 세워줍니다. 요금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트빌리시에서 카즈베기까지 3시간 거리에 15라리(약 8,000원)면 충분합니다.

트빌리시의 주요 마슈루트카 터미널은 디두베(Didube)와 오르타찰라(Ortachala)입니다. 디두베에서는 북쪽 방면(카즈베기, 구다우리)과 서쪽 방면(쿠타이시, 바투미) 노선이 출발하고, 오르타찰라에서는 남쪽 방면(아르메니아 국경)과 동쪽 방면(카헤티) 노선이 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면 목적지 이름을 외치는 호객꾼들이 달려듭니다. 조지아어를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Kazbegi?" "Batumi?" 이렇게 물으면 손짓으로 버스를 가리켜줍니다.

마슈루트카의 단점은 분명합니다. 좌석이 좁고,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이 꽉차야 출발합니다. 짐을 실을 공간도 부족해서 큰 배낭은 무릎 위에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대체로 거칩니다. 추월, 급정거, 클락션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스쳐 가는 풍경을 보고, 옆자리 할머니가 건네는 사과를 받아 먹고, 기사가 터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지아 민요를 듣다 보면, 이것이 진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는 마슈루트카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트빌리시와 바투미, 쿠타이시, 주그 디디 등 주요 도시가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바투미까지 운행하는 2층 고속열차(Stadler)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좌석, 에어컨, 와이파이, 식당 칸까지 완비되어 약 5시간의 여정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요금은 좌석 등급에 따라 25~50라리 정도입니다.

야간 열차도 운행됩니다. 저녁에 트빌리시를 출발해 아침에 바투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침대칸을 이용하면 숙박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노선이 현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쿠타이시 등으로 가는 일부 구간은 소련 시절 제작된 낡은 열차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인기 노

선의 표가 빨리 매진되므로, 조지아 철도청 웹사이트(railway.ge)나 예매 사이트(tre.ge)를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내 교통은 트빌리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트빌리시에는 2개 노선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 건설되어 역사가 매우 깊고,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모두 교통카드(MetroMoney)로 이용하며, 1회 탑승료는 1 라리(약 500원)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Visa나 Mastercard를 단말기에 직접 대고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택시는 볼트(Bolt)나 얀덱스 고(Yandex Go) 앱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앱으로 호출하면 요금이 미리 확정되어 바가지를 피할 수 있고, 시내 대부분의 거리를 10라리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잡는 택시는 미터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기 전에 반드시 가격을 협상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렌터카는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대여가 가능하고, 하루 30~50달러 선에서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트빌리시 공항과 시내에 허츠(Hertz), 로컬렌트(Localrent)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에서 운전하는 것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현지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차선 개념이 희박하며, 도로 위에는 소, 말, 양 떼가 수시로 출몰합니다. 산악 도로는 비포장 구간이 많고, 낭떠러지 옆으로 가드레일 없이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투세티나 우슈굴리 같은 오지로 갈 때는 반드시 4륜구동(4WD) 차량을 선택해야 하고, 운전이 자신 없다면 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대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바네티의 메스티아로 가는 길에서 만난 택시 기사 기오르기가 말했습니다. “이 길은 운전 실력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지아 사람들은 이 길에서 태어 났으니까.” 그의 말에 담긴 자부심과 유머가, 조지아 교통의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라. 물가와 환율, 현명한 예산 계획

조지아는 ‘가성비 유럽’이라 불립니다. 유럽의 정취를 누리면서도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지출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급증과 외국인 유입으로 물가가 오르는 추세이므로, 현명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지아의 화폐 단위는 라리(GEL)입니다. 보조 단위로 테트리(Tetri)를 사용하며, 100테트리가 1라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달러는 약 2.7~2.8라리, 1유로는 약 3.0~3.1라리 수준입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1라리가 대략 400~450원 정도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라리를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라리로 환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트빌리시 시내에는 환전소가 곳곳에 있고, 환율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 비교하기 쉽습니다. ATM에서 국제 체크카드로 라리를 직접 인출하는 방법도 수수료가 저렴하여 많이 이용됩니다.

결제 환경은 꽤 현대적입니다. 트빌리시와 바투미의 호텔, 레스토랑, 대형 마트에서는 신용카드(Visa, Mastercard)가 대부분 통용됩니다. 그러나 시골 게스트하우스, 재래시장, 마슈 루트카, 작은

가게에서는 현금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적절히 섞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비는 여행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호스텔 도미토리는 1박에 15~30라리(약 7,000~15,000원), 게스트하우스 개인실은 40~80라리(약 20,000~40,000원) 수준입니다. 에어비앤비로 아파트 전체를 빌리면 하루 60~120라리 정도에 주방까지 갖춘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급 호텔은 100~200라리, 5성급 호텔은 300라리 이상입니다. 트빌리시 중심가는 다소 비싸고, 지방 소도시로 가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식비는 조지아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로컬 식당에서 하차푸리(치즈빵)와 힌칼리(만두), 맥주 한 잔을 곁들여 배불리 먹어도 20~35라리(약 10,000~18,000원)면 충분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과 함께 코스 요리를 즐겨도 100라리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서유럽이라면 세 배는 더 낼 가격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과일, 채소, 빵, 치즈를 사서 직접 요리하면 식비를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트빌리시의 데제르테르스 바자르(Deserter's Bazaar)에서는 토마토 1킬로그램에 3~4 라리, 수박 하나에 10라리, 갓 구운 빵 한 덩이에 2라리면 살 수 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파는 처치헬라(호두를 포도즙에 담가 말린 전통 간식)는 개당 3~5라리입니다.

교통비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시내 버스와 지하철은 1라리, 볼트 택시로 시내 이동은 5~10라리, 도시 간 마슈루트카는 10~30라리 정도입니다. 렌터카 비용은 하루 80~140라리(약 40,000~70,000원) 선이고, 휘발유는 리터당 약 2.8~3라리입니다.

관광 및 기타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대부분 5~15라리이고,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와이너리 투어는 50~100라리 정도에 시음까지 포함됩니다. 유황 목욕탕(아 바노투바니)은 개인실 기준 80~150라리로 여럿이 나누면 1인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팁 문화는 의무는 아니지만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총액의 10퍼센트 정도를 테이블에 남기거나,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택시나 호텔에서는 별도로 팁을 주지 않아도 실례가 아닙니다.

하루 예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뜰하게 여행하는 배낭여행자라면 하루 60~80라리(약 30,000~40,000원)로 숙박, 식사, 교통, 관광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하루 120~200라리(약 60,000~100,000원)를 예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깨끗한 호텔에 묵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와이너리 투어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시그나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한 프랑스인 부부가 말했습니다. "파리 에서 점심 값으로 쓸 돈이면 여기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 음식이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펼쳐진 알라자니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지아의 가성비비는 단순히 '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풍요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2장 트빌리시: 과거와 현대가 춤추는 수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나리칼라 요새에서 유황 온천까지, 올드타운 산책

트빌리시에 도착한 첫날 아침, 리케 공원(Rike Park)의 케이블카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붉은색 곤돌라가 므트크바리 강(Mtkvari River) 위를 천천히 가로지르며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이블카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중년의 조지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 위에서 보는 트빌리시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오르기(Giorgi)였습니다. 트빌리시 토박이로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저 요새 아래서 양을 치셨어요.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놀이터입니다.”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강 위로 떠오르는 순간, 발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붉은 기와지붕들이 촘촘히 박힌 올드타운, 그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강물, 그리고 언덕 위에 웅크린 고대 성벽들. 편도 5라리(약 2,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토록 장엄한 파노라마를 선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리칼라 요새(Narikala Fortress)는 트빌리시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4세기경 페르시아인들이 처음 이 언덕 위에 성벽을 쌓았을 때, 그들은 이곳을 ‘슈리스-치헤(Shuris-tsikhe)’, 즉 ‘질투의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랍인들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나리칼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작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달리 이 요새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를 걸으며 트빌리시의 역사를 곱씹어 봅니다. 몽골의 침략, 오스만 제국의 지배, 페르시아와의 끝없는 전쟁. 이 성벽은 그 모든 격동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827년 대지진이 성벽의 상당 부분을 무너뜨렸지만, 남아 있는 돌들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요새 안쪽에는 1990년대에 복원된 성 니콜라스 교회(St. Nicholas Church)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내부의 프레스코화는 조지아 정교회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요새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서면 트빌리시 전체가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동쪽으로는 사메바 대성당의 황금 돔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서쪽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룹니다. 그 사이에 올드타운의 미로 같은 골목들이 실타래처럼 얹혀 있습니다. 해 질 녘 이곳에 서면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새에서 내려오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케이블카를 다시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가파른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걸기를 선택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거대한 여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지아의 어머니상(Kartlis Deda)'입니다. 이 동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아바노투바니(Abanotubani), 유황 온천 지구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로 트빌리시의 탄생 설화가 깃든 장소입니다. 5세기경, 조지아의 왕 바흐탕 고르가살리(Vakhtang Gorgasali)가 이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매가 꿩을 덮쳤고, 두 새가 뒤엉킨 채 뜨거운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왕이 달려가 보니, 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치유의 온천수에 감탄한 왕은 숲을 베어내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트빌리시'라는 이름은 조지아어로 '따뜻하다'는 뜻의 '트빌리(Tbili)'에서 유래했습니다.

온천 지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한 돔 형태의 지붕들입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돔들은 페르시아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유황 온천수는 섭씨 40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유황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온천탕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나나(Nana)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온천탕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이곳에 왔을 때, 제 증조할머니가 그에게 목욕물을 데워 드렸어요." 나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은 1829년 이곳을 방문하여 "트빌리시의 온천만큼 호사스러운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 역시 이곳을 찾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대여해 온천욕을 즐겼습니다. 1시간에 50~100라리(약 25,000~50,000원) 정도입니다. 뜨거운 유황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여행의 피로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원한다면 '키사(Kisa)'라고 불리는 조지아 전통 때밀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친 천으로 온몸을 문질러 주는데, 처음에는 따갑지만 마사지가 끝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 집니다.

온천욕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레그브타헤비(Leghvtakhevi) 계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숨겨진 이 작은 계곡 끝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절벽 위의 집들, 그 너머로 보이는 나리칼라 요새의 성벽. 이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올드타운(Dzveli Tbilisi)의 골목길은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모든 길은 어딘가 아름다운 곳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벽돌집들 위로 덩굴 식물처럼 얹혀 있는 목조 발코니 들이 이 지역의 독특한 정취를 만들어냅니다.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조지아 전통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를 '트빌리시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건물 안쪽에는 이탈리아식 안뜰(Italian courtyards)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안뜰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이웃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올드타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종교적 다양성입니다. 조지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원, 유대교 시나고그, 이슬람 모스크가 서로 가까운 거리 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교차로였던 트빌리시는 수 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테히 절벽(Metekhi cliff) 위에 서 있는 메테히 교회(Metekhi Church)는 13세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절벽 끝에 우뚝 선 이 교회의 실루엣은 트빌리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교회 앞에는 트빌리시를 건설한 바흐탕 고르가살리 왕의 기마상이 서 있습니다. 왕은 강 건너 자신이 세운 도시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시오니 대성당(Sioni Cathedral)은 6세기에 처음 지어진 후 여러 차례 파괴되고 재건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3세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성당은 조지아 정교회의 중심지로, 성녀 니노(St. Nino)의 십자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녀 니노는 4세기에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들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올드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는 안치스하티 바실리카(Anchiskhati Basilica)입니다. 6세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트빌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천 년이 넘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올드타운 산책을 마무리하며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터키식 커피를 마시며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이 뒤섞여 걷고, 고양이들이 느긋하게 햇볕을 쬔고, 발코니에서 빨래가 나부깁니다. 이 모든 것이 트빌리시 올드타운의 일상입니다.

나. 평화의 다리와 사메바 대성당, 도시의 상징들

므트크바리 강은 트빌리시를 동서로 가릅니다. 강의 남쪽에는 올드타운이, 북쪽에는 현대적인 신시가지가 펼쳐집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평화의 다리(Bridge of Peace)입니다. 2010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트빌리시의 현대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다리 위에서 만난 젊은 건축학도 레반(Levan)은 이 다리에 대한 트빌리시 사람들의 반응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생리대 같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 다리 없는 트빌리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이탈리아 건축가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가 설계한 이 보행자 전용 다리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56미터, 폭 5미터의 이 다리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강 위를 가로지릅니다. 마치 거대한 해양 생물이 물결치는 듯한 형태입니다. 올드타운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에 들어선 이 초현대적인 구조물은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평화의 다리가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일제히 켜집니다. 다리 전체가 환상적인 빛으로 물듭니다. 이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조명은 모스 부호(Morse code)로 주기율표의 화학 원소들을 점멸합니다.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트빌리시에서 가장 낭만적인 풍경 중 하나입니다. 동쪽으로는 조명을 받아 빛나는 나리칼라 요새와 메테히 교회가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대통령 궁의 유리 돔이 은은하게 빛납니다. 강물에 비친 조명들이 일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

닐고, 거리의 악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리를 건너면 리케 공원(Rike Park)입니다. 이 공원은 트빌리시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놀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거대한 피아노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콘서트 홀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끄니다. 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나리칼라 요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화의 다리가 트빌리시의 현대적 지향점을 보여준다면, 사메바 대성당(Holy Trinity Cathedral of Tbilisi, Sameba)은 조지아의 영적 뿌리를 상징합니다. 엘리아 언덕(Elia Hill)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이 성당은 트빌리시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황금빛 돔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모습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사메바 대성당은 비교적 새로운 건물입니다. 1995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 독립 1,500주년과 예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여 지어졌습니다. 소련 붕괴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성당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조지아인들의 깊은 신앙 심과 민족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당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됩니다. 높이가 약 87미터에서 101미터에 이르는 이 성당은 캅카스 지역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정교회 성당입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당 입구에서 만난 안내원 마리암(Mariam)은 성당 건축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월급의 일부를 매달 성당 건축 기금에 보냈어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부족 했는데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이 성당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조금씩 보태서 지은 것이니까요.”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장엄한 분위기에 숨이 막힙니다. 거대한 아치와 기둥들, 화려한 프레스코화와 아이콘들, 대리석 바닥과 스테인드글라스. 모든 것이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니다. 정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당 내부에는 의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자들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 양식은 조지아의 전통적인 교회 건축과 비잔틴 양식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외부는 전통적인 조지아 교회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규모와 세부 장식에서는 현대적인 해석을 더했습니다. 성당 단지는 본관뿐만 아니라 종탑, 수도원, 신학교 등 여러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당 방문 시 복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은 긴 바지를, 여성은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성은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 것이 예의입니다. 입구에서 스카프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성당 지하에는 무덤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당 정원에는 분수와 벤치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종탑에 올라가면 트빌리시 시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성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밝혀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메바 대성당은 마치 도시를 비추는 등대 같습니다. 평화의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성당의 야경은 트빌 리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두 건축물은 트빌리시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평화의 다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개방성. 사메바 대성당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신앙을 상징합니다. 고대의 건축 양식, 깊은 영성, 공동체 의식.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트빌리시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시,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이 두 건축물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리과 강철의 다리 너머로 황금 돛이 빛납니다. 이 풍경이야말로 트빌리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보여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다. 하차푸리와 힌칼리, 그리고 테크노 클럽 바시아니

조지아를 여행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미식의 향연에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배고픈 여행 자에게 조지아만큼 행복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드타운의 한 식당에서 만난 셰프 다토(Dato)는 조지아 요리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음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음식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조지아의 식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닙니다. ‘수프라(Supra)’라고 불리는 전통 연회 문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수프라는 조지아식 잔치입니다. 친구나 손님을 초대하면 테이블 위에 수십 가지 음식이 올라옵니다. 연회의 중심에는 ‘타마다(Tamada)’라고 불리는 건배 제의자가 있습니다. 타마다는 건배사를 통해 조상에 대한 존경, 조국에 대한 사랑, 우정과 가족에 대한 헌사를 이끍니다. 건배는 단순히 술잔을 부딪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와 이야기가 오가고, 노래가 울려 퍼지는 사회적 의식입니다.

조지아 식탁의 주인공은 단연 하차푸리(Khachapuri)입니다. ‘하초(Khacho)’는 치즈를, ‘푸리(Puri)’는 빵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치즈 빵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이름이 담고 있는 맛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조지아 전역에서 50여 가지가 넘는 하차푸리 변형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자라 식 하차푸리(Adjaruli Khachapuri)입니다. 흑해 연안의 아자라 지방에서 유래한 이 하차푸리는 배 모양의 빵 가운데에 치즈를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버터와 날달걀 노른자를 올립니다.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빵의 뽀족한 양 끝을 뜯어서 뜨거운 치즈와 달걀, 버터를 휘휘 섞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으로 이 황금빛 혼합물을 퍼 먹습니다. 첫입을 베어 무는 순간, 고소하고 짭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이메레티 식 하차푸리(Imeruli Khachapuri)는 둥근 모양입니다. 반죽 안에 치즈를 넣고 납작하게 눌러 구워냅니다. 메그렐리아 식(Megrelian Khachapuri)은 이메레티 식과 비슷하지만 위에 치즈를 한 번 더 얹어 더욱 풍성합니다. 페노바니(Penovani)는 퍼프 페이스트리 반죽에 치즈를 넣어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하차푸리는 조지아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국가적 상징입니다. 가격은 5~15라리(약 2,500~7,5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든든하게 한 끼

를 때우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 메뉴는 힌칼리(Khinkali)입니다. 조지아식 만두입니다. 두툼한 밀가루 피 안에 다진 고기(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혼합)와 향신료, 그리고 육즙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힌칼리 하나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보통 5~10개를 한 접시로 주문합니다.

힌칼리를 먹는 방법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꼭지(손잡이 부분, 조지아어로 'Kudi')를 잡습니다. 만두피를 살짝 베어 물어 안에 있는 뜨거운 육즙을 먼저 호로 록 마십니다. 육즙을 흘리면 실패입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먹습니다. 꼭지 부분은 밀가루 뭉치라 보통 먹지 않고 접시에 남겨둡니다. 자신이 몇 개를 먹었는지 세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올드타운의 힌칼리 전문점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습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가족이 내 서툰 솜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너무 세게 물지 마세요. 육즙이 다 빠져나가면 맛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의 조언 덕분에 두 번째 힌칼리 부터는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10개에 10라리(약 5,000 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지아 요리의 세계는 넓습니다. 사츠비(Satsivi)는 호두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요리입니다. 새해에 즐겨 먹는 명절 음식이기도 합니다. 로비오(Lobio)는 강낭콩을 푹 끓인 요리로, 토기 냄비에 담겨 나옵니다. 프할리(Pkhali)는 시금치, 비트, 콩 등의 채소를 호두와 마늘로 버무린 전채 요리입니다. 색색의 프할리가 접시에 담겨 나오면 눈이 먼저 즐거워집니다.

조지아의 음식 문화는 8,000년 역사의 와인 전통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식사에는 반드시 와인이 따릅니다. 조지아 와인에 대해서는 카헤티 지방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배를 채웠다면 이제 트빌리시의 밤을 즐길 차례입니다. 트빌리시는 최근 '새로운 베를린'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테크노 음악의 성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중심에 클럽 바시아니(Bassiani)가 있습니다.

바시아니는 디나모 아레나 축구 경기장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수영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클럽으로 개조했습니다. 물이 빠진 거대한 수영장 바닥이 댄스 플로어가 되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콘크리트 벽은 거칠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 클럽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시아니에 입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 컨트롤(Face Control)'이라 불리는 엄격한 입장 심사가 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이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복장, 태도, 분위기. 모든 것이 심사 대상입니다. 클럽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경찰이 마약 단속을 명목으로 바시아니를 급습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테크노 음악을 틀고 춤을 추

며 항의했습니다. 'We Dance Together, We Fight Together'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시아니는 단순한 유흥 공간을 넘어 조지아 청년들의 자유와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시아니는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안전한 공간을 지향합니다. 조지아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바시아니는

그런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춤추고 즐길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입니다.

주말 밤 바시아니에 들어가 봤습니다. 입장료는 20~50라리(약 10,000~25,000원) 정도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입장했는데, 클럽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DJ의 비트에 맞춰 수백 명의 젊은이가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도 파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

바시아니 외에도 트빌리시에는 수준 높은 클럽들이 많습니다. 키디(Khidi)는 강변 창고를 개조한 클럽으로, 산업적인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무트카(Mtkvarze)는 강 위에 떠 있는 배를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클럽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밤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전통 와인바에서 8,000년 역사의 크베브리 와인을 음미하고, 밤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테크노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것. 전통의 맛과 현대의 비트가 공존하는 것. 이것이 트빌리 시가 가진 반전 매력입니다.

루스타벨리 대로(Rustaveli Avenue)와 올드타운 주변에는 트렌디한 바와 펍, 라이브 음악 공연장이 즐비합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공간들입니다. 밤 늦도록, 아니 새벽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트빌리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라. '조지아의 어머니상'이 말하는 민족의 기질

트빌리시 어디에서나 고개를 들어 산등성이를 바라보면 거대한 여인의 동상이 눈에 들어 옵니다. 솔롤라키 언덕(Sololaki Hill) 위에 우뚝 서서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이 동상은 '조지아의 어머니상(Mother of Georgia)', 조지아어로 '카르틀리스 데다(Kartlis Deda)'입니다.

1958년 트빌리시 건립 1,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이 동상은 높이가 20미터에 달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각가 엘구자 아마슈켈리(Elguja Amashukeli)의 작품입니다. 전통 조지아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당당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각각 다른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왼손에는 와인이 든 잔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 물이 조지아 민족의 기질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와인잔은 환대(Hospitality)를 상징합니다. 조지아에는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방문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깁니다. 낯선 이가 문을 두드리면 가장 좋은 음식과 와인을 내놓습니다. 손님이 배부르다고 해도 계속 권합니다. 조지아의 식탁에서 접시가 비어 있는 것은 주인의 수치입니다.

여행 중 이 환대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길을 물었습니다. 농부 바크타(Bakhta)는 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길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쉬었다 가세요." 그의 아내가 순식간에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하차푸리, 로비 오, 채소 절임, 그리고 물론 와인. "마시세요, 마시세요." 바크타는 연신 잔을 채웠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떠날 때 그들은 포도 한 바구니를 손에 쥐여주었습니다. "조지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방인에게 베푸는 이 따뜻한 환대. 이것이 바로 와인잔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 칼은 저항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조지아의 역사는 끝없는 침략과 저항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아랍, 몽골, 오스만, 러시아. 수많은 외세가 이 작은 나라를 넘보았습니다. 캅카스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땅은 동서양의 교차로였기 때문입니다. 실크로드가 이곳을 지나갔고, 기름이 풍부한 카스피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국이 멸망하고 지배를 받으면서도 언어와 문자, 종교와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산악 지대의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여자와 아이들도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인한 생명력과 독립 정신이 바로 칼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상 앞에 서면 이 양면적인 기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한없이 따뜻하지만, 적에게는 가차 없이 단호한. 환대와 저항, 부드러움과 강인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조지아인입니다.

어머니상을 가까이서 보려면 나리칼라 요새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요새로 올라간 뒤, 요새 성벽을 따라 걸으면 동상이 있는 언덕에 도달합니다. 동상 바로 앞에는 전망대가 있어 트빌리시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올드타운의 붉은 지붕들, 그 사이로 흐르는 므트크 바리 강, 언덕 위의 사메바 대성당.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전망대에서 만난 노인 바소(Vaso)는 어린 손자에게 동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 와인잔은 너처럼 착한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거야. 하지만 저 칼은..."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 때 물리치기 위한 거란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몰 시간에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동상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도시 전체가 붉은 빛에 물들고, 어머니상의 실루엣이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전망대가 붐빕니다.

어머니상은 1958년에 처음 세워진 이후 한 번 교체되었습니다. 원래의 목조 동상은 풍화로 손상되어 1990년대에 현재의 알루미늄 동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동상은 원래의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했지만,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련 시대에도 이 동상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맞지 않는 민족주의적 상징이었지만, 소련 당국도 이 동상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인들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상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상은 소련의 지배 속에서도 조지아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머니상은 트빌리시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도시 홍보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하지만 이 동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와인잔과 칼이 상징하는 환대와 저항, 이 두 가지 정신이 어떻게 조지아 민족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를.

어머니상을 뒤로하고 언덕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친구에게는 가장 좋은 와인을, 적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이것이 조지아입니다.

동상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결의에 차 있습니다. 도시를 굽어보는 그 시선에는 과거의 영광과 아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상은 와인과 칼을 든 채, 트빌리시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조지아의 정신을 묵묵히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3장 카헤티: 8,000년 와인의 성지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조지아의 동쪽 끝, 코카서스 산맥이 하얀 이빨처럼 하늘과 맞닿은 곳에 카헤티(Kakheti)가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동쪽으로 차를 몰아 한 시간 반쯤 달리면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그 사이사이로 흙빛 담장을 두른 농가들,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가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라자니 계곡(Alazani Valley)의 비옥한 대지는 수천 년간 포도를 품어왔고, 그 포도는 인류 최초의 와인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 시대의 조지아인들은 이미 포도를 발효시켜 와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2017년 고고학자들이 트빌리시 남쪽 가다크릴리 고라(Gadachrili Gora) 유적지에서 발굴한 토기 조각에서 포도 잔류물이 검출되면서, 조지아는 공식적으로 '와인의 요람(Cradle of Wine)'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8,000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조지아인들은 전쟁과 침략, 제국의 흥망 속에서도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빚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헤티는 조지아 전체 와인 생산량의 75%를 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조지아는 9,500만 리터의 와인을 수출하여 2억 7,6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관광 산업과 와인 산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카헤티는 조지아 경제의 심장부로 부상했습니다. 텔라비(Telavi)와 시그나기(Sighnaghi), 크바렐리(Kvareli) 같은 작은 도시 들에는 고급 부티크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고,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전국에 20여 개의 고급 숙박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카헤티의 진정한 매력은 숫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포도밭 사이로 난 좁은 흙길을 따라가면 작은 농가가 나오고, 그 농가의 마당 한켠 에는 어김없이 '마라니(Marani)'라고 불리는 와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낯선 여행 자에게도 와인 한 잔을 건네며 "가우마르조스(Gaumarjos, 승리를 위하여)"를 외칩니다. 조지아에서는 손님이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 크베브리 양조법과 엠버 와인의 비밀

카헤티 여행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크베브리(Qvevri)'입니다. 크베브리는 달걀 모양의 거대한 점토 항아리로, 조지아인들은 이 항아리를 땅속에 묻어 와인을 발효시킵니다. 2013년 유네스코가 이 양조법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때, 조지아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크베브리는 단순한 양조 도구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이자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텔라비에서 북쪽으로 30분쯤 차를 달리면 작은 마을 이미르헤바(Imirheva)에 닿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크베브리 와인을 만들어온 기오르기(Giorgi)라는 이름의 농부를 만났습

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라니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발효 중인 와인의 달콤 쌉싸름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크베브리야.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지."

바닥에는 동그란 돌 뚜껑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들어 올리자 땅속 깊이 묻힌 거대한 향아리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기오르기는 긴 국자로 향아리 속을 휘저어 탁한 액체를 떠 올렸습니다. 아직 숙성이 덜 된 와인이었지만 이미 호박빛이 감돌았습니다.

크베브리 양조법의 핵심은 '자연'과 '시간'입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먼저 '사츠나헬리(Satsnakheli)'라고 불리는 나무 압착기에서 포도를 으깁니다. 서양식 양조법에서는 포도즙만 사용하지만, 조지아 전통 방식은 다릅니다. 포도 껍질, 씨앗, 심지어 줄기까지 모두 크베 브리에 함께 넣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이것을 '차차(Chacha)' 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와인이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건강하게 익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향아리에 포도를 넣고 나면 자연 발효가 시작됩니다. 인위적인 효모나 화학 첨가물은 일 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효 초기에는 하루 4~5회 내용물을 저어주지만, 2~3주가 지나면

크베브리를 점토와 돌뚜껑으로 밀봉합니다. 그 상태로 5~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땅속에 묻힌 크베브리는 연중 13~15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향아리가 와인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화이트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우리가 아는 투명한 노란색이 아닙니다. 포도 껍질과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색소와 타닌이 우러나와 짙은 호박색 또는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엠버 와인(Amber Wine)' 또는 '오렌지 와인'입니다.

기오르기가 잔에 따라준 엠버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첫 인상은 낯설었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상쾌함을 기대했는데, 입안에서는 묵직한 타닌감이 혀를 감쌌습니다. 말린 살구와 호두, 은은한 꿀 향이 뒤따랐고, 목을 넘길 때 약간의 떫은맛이 남았습니다. 마치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 하지만 우리 음식이랑 먹어봐. 그때 진짜 맛을 알게 될 거야."

기오르기의 아내가 갓 구운 '쇼티(Shoti)' 빵과 호두로 속을 채운 가지 요리, 양고기 꼬치인 '므츠바디(Mtsvadi)'를 내왔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엠버 와인을 번갈아 먹으니 신기하게도 입안이 개운해졌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산미와 레드 와인의 타닌이 기름기를 잡아주는 것 입니다. 조지아 음식과 엠버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서로를 위해 진화해온 환상의 파트너였습니다.

카헤티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화이트 품종으로는 '르카치 텔리(Rkatsiteli)'와 '키시(Kisi)'가 있고, 레드 품종으로는 '사페라비(Saperavi)'가 대표적입니다. 르카치 텔리를 크베브리 방식으로 발효시키면 호박색 엠버 와인이 되고, 유럽식으로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시키면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이 됩니다. 같은 포도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조지아 와인의 매력입니다.

사페라비로 만든 레드 와인은 색이 매우 짙어 잔에 따르면 거의 검붉은 색에 가깝습니다. 타닌이 풍부하고 베리 향이 강하며, 드라이한 맛부터 세미 스위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진 '킨즈마라우리(Kindzmarauli)'가 바로 사페라비로 만든 세미 스위트 레드 와인입니다.

크베브리 양조법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당국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통 양조법을 억압했습니다. 많은 크베브리가 파괴되거나 방치되었고,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몰래 크베브리를 지켜왔고, 소련 붕괴 후 젊은 세대가 전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크베브리 와인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일부 양조장에서도 점토 항아리 발효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기오르기와 헤어지면서 그가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크베브리는 살아 있어. 숨을 쉬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탱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와인은 살아 있는 맛이 나는 거야.”

조지아인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신과 조국, 가족과 우정을 기리는 신성한 매개체입니다. 크베브리 속에서 6개월을 보낸 와인을 이듬해 봄에 열어볼 때, 조지아인들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듯 기뻐합니다. 수도사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와인을 담그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 함께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견딘 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믿음이 크베브리 양조법의 철학입니다.

호텔 크베브리(Hotel Qvevrebi) 소개

조지아 와인의 심장부 카헤티 지역, 텔라비 외곽 샬라우리(Shalauri) 마을 언덕 위에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호텔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5일 문을 연 호텔 크베브리는 조지아 가족이 운영하는 부티크 호텔입니다. 2018년 샬라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언덕을 발견하면서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은행 융자와 정부 지원을 받아 2019년 말 착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가족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5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객실은 본관 17개 객실과 20개의 크베브리 모양 독채 코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코티지는 르카치텔리, 사페라비, 키시 등 조지아 토착 포도 품종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크

베브리 모양 객실은 옆으로 누운 항아리 형태이며, 둥근 입구 부분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가족 포도밭과 저 멀리 코카서스 산맥의 실루엣이 펼쳐집니다.

각 독채에는 킹사이즈 침대, 전용 욕실, 미니 주방, 작은 테라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 사우나, 온수 욕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당구대, 탁구대, 보드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본관 레스토랑 ‘암포라(Amphora)’에서는 조지아 전통 요리와 유럽 요리를 코카서스 산맥 전망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 요리 교실은 물론 수확철에는 전통 목재 압착기 ‘사츠나켈리(Satsnakheli)’로 직접 포도를 밟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예약 사이트 평점 9.6점을 기록하는 이 호텔은 카헤티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빌리시에서 호텔 크베브리 찾아가기

트빌리시에서 텔라비행 마슈루트카는 삼고리(Samgori) 지하철역 인근 나브틀루기(Navtlughi)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6시에 운행되며, 여름철에는 오전 7시 편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요금은 1인당 15라리(약

7,500원)이며, 소요 시간은 2시간~2시간 30분입니다. 출발 30분 전 도착하여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또는 개인 차량

트빌리시에서 텔라비까지 약 95km이며, 바지아니-곰보리-텔라비 고속도로(Sh38)를 이용하면 약 2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곰보리 고개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이므로 겨울철에는 구르 자아니 경유 우회로(160km)를 권장합니다. 택시 요금은 편도 약 100~140라리(5~7만원) 수준입니다.

호텔까지 마지막 구간

텔라비 시내에서 호텔 크베브리까지는 차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텔라비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10~15라리면 충분합니다. 호텔에 사전 연락하면 픽업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그나기, 24시간 결혼이 가능한 사랑의 도시

카헤티 지역의 남쪽, 해발 800미터 언덕 위에 시그나기(Sighnaghi)가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차로 두 시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갑자기 동화 속 마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붉은 기와지붕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고, 파스텔 톤의 벽을 가진 집들 사이로 좁은 돌길이 미로처럼 이어집니다. 마을 어디에서든 발코니에 서면 알라자니 계곡이 발아래로 펼쳐지고, 맑은 날에는 멀리 코카서스 산맥의 만년설이 하얗게 빛납니다.

시그나기는 '사랑의 도시(City of Love)'라는 낭만적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그런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결혼 등기소입니다. 2007년 시그나기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이 등기소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여권만 있으면 언제든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곳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웨딩 채플과 조지아의 시그나기, 두 곳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그나기 중심부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작은 광장이 나옵니다. 광장 한쪽에는 의자 위에 서서 꽃다발을 든 소녀 동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아담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딩 하우스(Wedding House)'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2층에 결혼 등록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여권과 필요한 경우 이혼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거리에서 지나가는 현지인이나 여행자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등록 비용은 평일 90라리(약 4만원), 주말에는 150라리(약 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30분이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결혼 증명서를 손에 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영 시간이 조정되어 현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과거처럼 새벽 3시에 와인에 취해 즉흥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지만, 시그나기의 낭만은 여전합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커플이라면 최소 한 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그나기가 사랑의 도시가 된 데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조지아 국민 화가로 추앙받는 니코 피로스마니(Niko Pirosmiani, 1862~1918)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독학 화가였던 피로스마니는 트빌리시의 한 술집에서 프랑스에서 온 여배우 마르가리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마르가리타가 묵고 있던 호텔 앞을 수만 송이 장미로 뒤덮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미는 백만 송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가수 알라 푸가초바의 노래 '백만 송이 장미(A Million Roses)'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 알려졌고, 한국에서도 심수봉이 '백만 송이 장미'를 불러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피로스마니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르가리타는 곧 조지아를 떠났고, 피로스마니는 평생 가난 속에서 그림을 그

리다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애보는 시그나기를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그나기 박물관에 가면 피로스마니의 원작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그의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조지아의 일상 풍경, 연회를 즐기는 사람들, 포도밭과 동물들이 투박한 붓질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가 즐겨 그렸다는 물고기와 수탉 그림은 조지아 기념품 가게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시그나기의 또 다른 볼거리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18세기 에레클레 2 세(King Erekle II) 통치 시절에 축조된 이 성벽은 총 길이가 4~5킬로미터에 달하며 23개에서 28개의 망루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지아의 작은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이 성벽 위를 걸으면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벽 산책은 약 2~3시간이 소요되며, 중간중간 망루에 올라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해 질 녘 성벽 위에서 바라보는 알라자니 계곡은 황홀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이 붉은 노을에 물들고, 저 멀리 코카서스 산맥이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밤이 되면 마을 전체에 조명이 들어와 중세 동화 속 풍경이 펼쳐집니다. 카보도니 부티크 호텔(Kabadoni Boutique Hotel)이나 벨뷰 부티크 호텔(BelleVue Boutique Hotel) 같은 숙소에서 하룻밤 묵으며 이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그나기의 좁은 골목에는 와이너리 카페와 레스토랑, 작은 갤러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피전츠 티어스(Pheasant's Tears)'라는 와이너리 겸 레스토랑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습니다. 미국 출신의 예술가가 조지아에 정착해 전통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현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와 크베브리 와인의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그나기를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봄(4~6월)과 가을(9~10월)입니다. 봄에는 포도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야생화가 만발합니다. 가을에는 포도 수확철로 마을 전체가 와인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한여름(7~8월)은 더위가 극심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코카서스 산맥의 풍경이 장관이지만, 일부 시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시그나기에서 보낸 하루가 저물 무렵, 웨딩 하우스 앞에서 젊은 커플 한 쌍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흰 드레스 대신 캐주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신랑은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좋다고 웃었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대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시그나기에서 맺어진 부부는 평생 변치 않는 사랑을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전설일 뿐이지만, 이 작은 마을이 주는 낭만이 그 믿음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도시, 시그나기. 포도밭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한 잔의 와인을 기울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 알라베르디 수도원과 성녀 니노의 발자취

카헤티는 와인의 땅이면서 동시에 깊은 신앙의 땅입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와인과 기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4세기에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녀 니노(St. Nino)가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들고 왔다는 전설이 그 연결고리입니다. 카헤티 지역에는 그녀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으며, 천 년 넘게 와인을 빚어온 수도원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텔라비에서 북쪽으로 20킬로미터, 알라자니 계곡의 평원 한가운데에 알라베르디 수도원(Alaverdi Monastery)이 우뚝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코카서스 산맥을 배경으로 웅장한 성당이 마치 거인처럼 솟아 있습니다. 6세기에 아시리아에서 온 수도사 요셉 알라베르델리(Joseph Alaverdeli)가 이곳에 작은 교회를 세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현재의 웅장한 대성당은 11세기 초, 카헤티의 왕 크비리케 3세(Kvirike III)가 지은 것입니다.

높이 55미터가 넘는 알라베르디 대성당은 2004년 트빌리시에 삼위일체 대성당(Sameba Cathedral)이 완공되기 전까지 조지아에서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천년의 세월을 견딘 프레스코화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촛불 연기에 그을린 돌기둥들이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단을 장식한 조각 중에는 커다란 포도송이가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합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이 독특한 것은 천 년 넘게 와인을 빚어왔다는 점입니다. 성당 경내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크베브리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의 마라니(와인 저장고)에서는 지금도 수도사들이 전통 방식 그대로 와인을 생산합니다. 소비에트 시절 한때 와인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2006년 고대 크베브리들이 발굴되면서 양조가 재개되었습니다.

수도원 와인 저장고를 안내해준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신에게 바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크베브리를 밀봉할 때 기도하고, 이듬해 봄에 열 때도 기도합니다. 6개월 동안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신만이 아십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의 와인 병에는 “Since 1011”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011년, 최초로 이곳에서 와인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수도사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인을 담그고 그 아이가 결혼할 때 함께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익어가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믿음입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80여 종의 조지아 토착 포도 품종이 자라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성당 앞광장에서 마츠오니(요거트)에 꿀과 호두를 얹은 디저트를 맛보거나, 수도원에서 생산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작은 시음장도 있습니다. 매년 9월 말에는 ‘알라베르도바(Alaverdoba)’라는 종교 축제가 열리는 데, 이때는 카헤티 전역은 물론 먼 산악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종교 의식과 함께 와인 축제가 펼쳐지고, 전통 음악과 춤이 밤새 이어집니다.

시그나기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보드베 수도원(Bodbe Monastery)이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가장 신성시되는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4세기에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녀 니노가 생을 마감하고 묻힌 곳입니다.

성녀 니노는 로마령 카파도키아(현재 터키 지역) 출신의 여성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꿈에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묶어 고정한 뒤, 코카서스를 넘어 조지아로 왔습니다. 이 '포도나무 십자가(Grapevine Cross)'는 조지아 정교회의 상징이 되었으며, 현재 트빌리시의 시오니 대성 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니노는 기도의 힘으로 이베리아 왕국(동부 조지아)의 왕비 나나를 병에서 치유했습니다. 이 기적에 감동한 미리안 왕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고, 조지아는 337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301년으로 첫 번

째) 니노는 조지아의 '영적 어머니'로 추앙받으며, 그녀의 축일인 1월 14일과 6월 1일은 국경일에 준하는 기념일입니다.

보드베 수도원은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녀 니노의 무덤이 있는 성당 안은 늘 순례객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수도원은 현재 수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잘 가꾸어진 정원과 발코니에서는 알라자니 계곡의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도원 아래쪽으로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성녀 니노의 샘'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노가 기도하던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많은 순례객이 이 샘물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물에 몸을 담그는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는 약 30~40분이 소요됩니다. 체력이 부담된다면 샘은 건너뛰고 수도원 정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다 보면 와인과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성녀 니노가 포도나무 십자가를 들고 왔다는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지아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생명이고 축복이며, 와인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매개체입니다. 수프

라(전통 연회)에서 타마다(건배 제의자)가 올리는 첫 번째 건배사는 언제나 신에게 바치는 감사입니다. 카헤티의 수도원들을 순례하며 이 땅의 영적 깊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라. 추천 와이너리 투어와 시음 가이드

카헤티에는 2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출발하는 당일 투어 상품도 많고, 렌터카를 빌려 직접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규모 상업 와이너리부터 소박한 가정집 와이너리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일정을 짜면 됩니다. 시음 비용은 와이너리에 따라 30~50라리(약 1만 5천~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1. 하레바 와이너리(Khareba Winery) - 산속의 비밀 터널

크바렐리(Kvareli)에 위치한 하레바 와이너리는 '와인 터널'로 유명합니다. 구소련 시절 군사 목적으로 파놓은 거대한 터널을 와인 저장고로 개조한 것입니다. 총 길이 7.7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터널은 연중 12~14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터널 안을 걷다 보면 양쪽 벽면에 끝없이 와인 병들이 쌓여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터널 투어 후에는 터널 안에 마련된 시음장에서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맛부터 고급 크베브리 와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와인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에서는 '츄르첼라(Churchkhela)'라고 불리는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이나 빵 굽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츄르첼라는 호두를 실에 꿰어 포도즙을 입힌 것으로, '조지아 스니커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2. 킨즈마라우리 코퍼레이션(Kindzmarauli Corporation) - 스탈린이 사랑한 와인

크바렐리 시내에 위치한 대형 와이너리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왕실 와인 저장고 유적 위에 세워졌습니다. 스탈린이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진 세미 스위트 레드 와인 '킨즈마라우리(Kindzmarauli)'의 본산입니다. 사페라비 포도로 만드는 이 와인은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지녀 와인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생산 시설과 전통적인 크베브리 저장고를 모두 갖추고 있어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며 견학할 수 있습니다. 투어 비용이 저렴하고 시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와인을 마시지 못하는 일행이 있다면 이곳에서 만드는 포도 주스도 훌륭합니다.

3. 슈미 와이너리(Shumi Winery) - 살아있는 와인 박물관

츠난달리(Tsinandali) 마을에 위치한 슈미 와이너리는 수백 종의 포도 품종이 자라는 정원이 인상적입니다. 조지아 토착 품종은 물론 세계 각국의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어 '살아있는 와인 도서관'이라 불립니다. 전설 속의 동물 '그리핀(Griffin)'을 상징으로 사용하며, 와인 라벨에도 그리핀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이너리 내부에는 고대 와인 양조 도구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투어 후테라스에서 포도밭을 바라보며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와인의 역사를 체계적

으로 배우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외국인 여행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츠난달리 에스테이트(Tsinandali Estate) - 귀족의 우아함

19세기 귀족이자 시인이었던 알렉산더 차브차바제(Alexander Chavchavadze)의 저택입니다. 그는 조지아에 유럽식 와인 제조법을 처음 도입한 인물로, 조지아 와인을 최초로 병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영국식 정원을 거닐다 보면 19세기 귀족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택 내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고, 지하에는 유서 깊은 와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츠난달리(Tsinandali)' 화이트 와인은 르카치텔리와 므츠바네(Mtsvane) 두 품종을 블렌딩한 것으로, 조지아 화이트 와인 중 가장 유명합니다.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에서 와인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정답입니다.

5. 가족 와이너리(Family Marani) - 진정한 조지아의 현대

카헤티의 진정한 매력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가정집 와이너리에서 발견됩니다. 시그나 기나 텔라비의 관광 안내소에서 가족 와이너리 투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잔다라쉬빌리 게스트하우스(Zandarashvili Guesthouse)'나 '초나스 마라니(Chona's Marani)'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족 와이너리를 방문하면 집주인이 직접 빚은 크베브리 와인을 항아리에서 바로 떠서 시음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레드, 앰버 와인과 함께 '차차(Chacha)'라고 불리는 포도 증류주도 내옵니다. 차차는 도수가 40~60도로 매우 높으니 조심해서 마셔야 합니다. 와인과 함께 갓 구운 쇼티 빵, 치즈, 꼬치구이, 하차पुर리 등 푸짐한 음식이 나옵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은 '수프라(Supra)'라 불리는 조지아 전통 연회입니다. 집주인이 '타마다(Tamada, 건배 제의자)'가 되어 건배사를 이끕니다. 첫 번째 건배는 신에게, 두 번째는 가족에게, 세 번째는 조국에게 바칩니다. 그 뒤로 평화, 우정, 사랑, 고인에 대한 추모 등 다양한 주제의 건배가 이어집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마치면 참석자들은 잔을 비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단, 잔을 비우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입술만 적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음 가이드 및 팁

사페라비(Saperavi): 조지아 대표 레드 와인 품종입니다. 색이 매우 짙고 타닌이 풍부합니다. 드라이한 것부터 세미 스위트까지 다양합니다.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르카치텔리(Rkatsiteli): 가장 대중적인 화이트/앰버 와인 품종입니다. 유럽식으로 만들면 상쾌한 화이트 와인, 크베브리 방식으로 만들면 묵직한 앰버 와인이 됩니다.

키시(Kisi): 르카치텔리보다 향이 풍부한 화이트 품종입니다. 앰버 와인으로 만들면 꽃향기와 복숭아 향이 매력적입니다.

킨즈마라우리(Kindzmarauli): 사페라비로 만든 세미 스위트 레드 와인입니다. 와인 초보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츠난달리(Tsinandali): 르카치텔리와 므츠바네를 블렌딩한 드라이 화이트 와인입니다. 생선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차차(Chacha):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 찌꺼기로 증류한 브랜디입니다. 도수가 40~60도로 높으니 주의하세요.

와인을 마실 때 조지아에서는 "가우마르조스(Gaumarjos)"라고 외칩니다. '승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하기 전에 먼저 마시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신과 가족, 친구를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임을 기억한다면 더욱 풍성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카헤티 와이너리 투어의 최적기는 4월부터 10월입니다. 그중에서도 9~10월 포도 수확철에는 '르트벨리(Rtveli)'라고 불리는 수확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전통 체험도 가능합니다. 봄(4~6월)에는 관광객이 적어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투어 시 운전은 삼가야 하므로, 당일 투어 상품을 이용하거나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출발하는 당일 투어는 50~100달러 선이며, GetYourGuide나 Klook 같은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헤티의 붉은 흙냄새와 깊은 와인 향기 속에서 8,000년의 시간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베브리 속에서 잠들었다 깨어난 호박빛 와인 한 잔, 성벽 위에서 바라보는 알라자니 계곡의 노을, 수도원의 경건한 침묵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카헤티만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조지아인들은 말합니다. "와인은 땅이 만들고, 시간이 완성하고, 사람이 나눈다." 카헤티에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4장 카즈베기와 코카서스의 설산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조지아 군사 도로, 제국의 길을 따라

트빌리시의 아침은 느긋합니다. 수도의 카페에서 진한 터키식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조지아 사람들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산이 점점 높아지고, 계곡이 깊어지며, 공기는 차갑고 맑아집니다. 이것이 조지아 군사 도로(Georgian Military Highway)가 여행자에게 선사하는 첫인상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러시아 국경 도시 블라디캅카스(Vladikavkaz)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의 총 길이는 약 212킬로미터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리 긴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를 단순한 이동 경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 박물관이자, 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이며, 수천 년 동안 상인과 군대와 순례자들이 오갔던 문명의 통로입니다.

도로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부터 이 계곡은 코카서스 산맥을 넘는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비단과 향신료를 싣고 이 길을 지났고, 페르시아와 몽골의 침략군도 이 길을 통해 조지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도로의 형태가 갖춰진 것은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1801년 조지아가 러시아에 병합된 후, 제국은 군대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이 고대의 교역로를 확장하고 포장했습니다. '군사 도로'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빌리시를 떠나 북쪽으로 약 한 시간을 달리면, 창밖의 풍경이 갑자기 바뀝니다. 회색빛 도시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눈앞에 거대한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집니다. 진발리 저수지(Zhinvali Reservoir)입니다. 1980년대 소련 시절, 아라그비(Aragvi) 강을 막아 만든 이 인공 호수는 오늘날 트빌리시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 역할을 합니다.

저수지를 처음 보는 여행자들은 대개 그 물빛에 감탄합니다. 맑은 날이면 호수는 짙은 청록색으로 빛나고, 주변의 산세와 어우러져 마치 북유럽의 피오르드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호수 아래에는 슬픈 역사가 잠겨 있습니다. 댐이 건설될 때 이 지역의 마을들이 수몰되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옛 마을의 다리나 건물 잔해가 유령처럼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진발리 호수를 끼고 달리다 보면, 물가에 우뚝 솟은 중세의 요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나 누리 성채(Ananuri Fortress)입니다. 13세기부터 이 지역을 통치했던 아라그비 공작 가문의 거점이었던 이 요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 안에는 두 개의 교회와 망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채 안으로 들어가면 17세기에 지어진 성모 승천 교회(Church of the Assumption)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외벽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십자가, 동물과 천사의 형상들이 돌 위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전통 문양과 페르시아 예술의 영향이 조화를 이룬 이 조각들은 중세 조지아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성벽 망루에 오르면 진발리 호수의 푸른 물결과 고풍스러운 돌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풍경은 조지아 관광 안내서의 표지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누리 성채가 품고 있는 역사는 아름다운 외관과는 달리 비극적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한 번은 성채 안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이 불에 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나누리를 지나면 도로는 급격히 고도를 높입니다.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원 지대에 도착합니다. 구다우리(Gudauri)입니다. 조지아 최대의 스키 리조트인 이곳은 겨울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스키어들로 북적입니다. 눈이 녹은 여름과 가을에는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변모합니다. 푸른 초원 위를 나는 패러글라 이더들의 모습은 코카서스의 자유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구다우리를 지나 즈바리 패스(Jvari Pass) 근처에 다다르면,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반원형 구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러시아-조지아 우호 기념비(Russia-Georgia

Friendship Monument)입니다. 1983년 러시아와 조지아가 맺은 게오르기예프스크 조약(Treaty of Georgievsk) 200주년을 기념하여 소련이 건설했습니다.

기념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장소를 바라보는 조지아인들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1783년의 그 조약은 조지아가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완전한 병합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호'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 건축물 자체만 본다면, 내부에 장식된 화려한 모자이크 타일 벽화는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조지아와 러시아의 전설과 역사가 색색의 타일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압도적입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듯한 까마득한 협곡이 발아래 펼쳐집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악마의 계곡(Devil's Valley)'이라고 부릅니다. 협곡 사이로 아라그비 강이 흐르고, 멀리 코카서스의 봉우리들이 구름 속에 걸려 있습니다.

즈바리 패스는 조지아 군사 도로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해발 약 2,379미터에서 2,395미터 사이로, 자료에 따라 수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즈바리'는 조지아어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 고개에 서면 만년설이 덮인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사태 위험 때문에 도로가 폐쇄되기도 합니다. 이른 봄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만 카즈베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도로는 다리알 협곡(Darial Gorge)을 따라 이어집니다. 테레크(Terek) 강이 절벽 사이를 세차게 흐르는 이 좁고 깊은 협곡은 예로부터 '코카서스의 관문'으로 불렸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곳에 철문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철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협곡의 지형을 보면 그런 전설이 생겨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천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군사 도로를 여행하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으려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도로 한쪽을 점령하고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산악 도로에서 이 거대한 트럭들을 피하거나 추월하는 것은 꽤나 스릴 넘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진정한 주인은 차가 아닙니다. 소와 양 떼입니다. 유유자적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걷는 소 떼를 만나면, 운전자는 그저 그들이 지나가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합니다. 경적을 울려도 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아의 도로가 여행 자에게 가르쳐주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코카서스에서는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도로변 작은 마을 파사나우리(Pasanauri)에서 점심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곳은 조지아의 대표 음식 힌칼리(Khinkali)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와 육즙이 가득 찬이 만두를 현지인들 처럼 손으로 집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두의 꼭지를 잡고 옆면을한 입 베어 물어 먼저 육즙을 마신 다음 나머지를 먹습니다. 꼭지는 버립니다. 몇 개를 먹었는지 세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Pushkin)과 레르몬토프(Lermontov)도 이 길을 여행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코카서스는 낭만과 모험의 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푸시킨은 이 지역을 여행하며 얻은 영감으로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레르몬토프의 소설 『현대의 영웅』에도 이 도로의 풍경이 생생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코카서스의 산과 계곡은 오늘날 에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자동차가 다니게 되었을 뿐, 자연의 웅장 함은 그대로입니다.

나.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잠든 카즈벡 산

군사 도로의 종착점에 가까워지면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납니다. 스테판츠민다(Stepantsminda)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카즈베기'라고 불렸고, 지금도 많은 여행자들이 그이름을 사용합니다. 공식 명칭은 이 지역에서 수행했던 정교회 수도사 스테판의 이름을 딴 스테판츠민다입니다. 인구 1,500명 남짓한 이 작은 마을은 해발 1,740미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어디에서든 고개를 들면 보이는 거대한 산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카즈벡 산(Mount Kazbek)입니다. 해발 5,047미터. 조지아에서 세 번째로 높고, 코카서스 전체 에서는 일곱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조지아어로 이 산은 '므킨바르츠베리(Mkinvartsveri)'라고 불립니다. '얼음 산'이라는 뜻입니다. 정상 부근은 일 년 내내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맑은 날 아침 햇살을 받으면 산은 장밋빛으로 물들고, 해 질 녘에는 황금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현지인들은 이산을 '헤비의 신부(The Bride of Khevi)'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헤비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카즈벡 산은 휴화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890년대로 추정됩니다. 산 정상 부근 에는 분화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온천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이 산이 완전히 잠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카즈벡은 고요하고 위엄 있게 코카서스의 하늘을 떠받 치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된 신화가 깃들여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이야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티탄족 신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문명의 씨앗을 선물했습니다. 불이 있어야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선물 덕분에 인류는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분노했습니다. 신들만의 것이었던 불을 인간에게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의 높은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독수

리를 보내 그의 간을 쪼아 먹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간은 다시 자라 났고, 다음 날 독수리는 또다시날아왔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운명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있던 바위가 바로 이 카즈벡 산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그를 '아미라니(Amirani)'라고 부릅니다. 조지아 신화에서 아미라니는 신에게 도전한 영웅입니다. 그는 인간의 편에 서서 신들과 싸웠고,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조

지아인들에게 아미라니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자신들의 역사와 겹쳐 보이는 존재입니다.

산 높은 곳 어딘가에 베클레미 동굴(Betlemi Cave)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동굴에는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텐트와 예수의 구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굴의 철문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도사들이 숙세를 떠나이 동굴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해발 약 3,650미터 지점에 과거 기상 관측소로 사용되었던 베클레미 오두막(Betlemi Hut)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정상을 향하는 등반가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합니다.

카즈벡 산은 전문 산악인들에게 도전의 대상입니다. '코카서스의 진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산의 정상에 처음으로 오른 것은 1868년 영국과 프랑스 합동 탐험대였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수백 명의 등반가들이 정상 정복에 도전합니다. 스테판츠민다 마을에서 시작하여 게르게티 교회를 지나 빙하 지대까지 오르는 코스는 일반 트레커들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등반 루트를 따라 고도가 높아질수록 풍경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푸른 초원과 야생화가 펼쳐지지만, 점점 식생이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검은 화산암과 하얀 얼음만 남습니다. 황량하면서도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빙하 위를 걸을 때는 크레바스(crevasse)라고 불리는 깊은 틈새를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젠과 피켈 같은 전문 장비가 필요하고, 경험 있는 가이드와 함께해야 합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데는 보통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마을에서 베클레미 오두막까지 하루, 오두막에서 정상까지 왕복 하루, 그리고 하산하는 데 하루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고도 이득이 약 3,800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고산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적의 등반 시기는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카즈벡 산은 날씨가 변덕스럽기로 유명합니다. 마을은 화창하더라도 산 정상은 순식간에 구름에 휩싸이거나 눈보라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카즈벡이 수줍음이 많아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맑은 날 선명한 정상을 보는 것은 행운으로 여겨 집니다.

스테판츠민다 마을에서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산이 구름에 가려 있다가 오후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해 질 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 카즈벡의 설산도 황금색으로, 그리고 다시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마을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서 기다리는 여행자 들이 많습니다.

마을의 숙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룸스 호텔 카즈베기(Rooms Hotel Kazbegi)입니다. 소련 시대의 관광 호텔을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한 이곳은 산을 바라보는 대형 창문과 야외 수영장,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카즈벡 산의 전망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마을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지인 가정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는 조지아 가정식을 맛볼 수 있고, 주인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 문화를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중 추천할 만한 것은 힌칼리(Khinkali)와 카차푸리(Khachapuri) 입니다. 산악 지역의 힌칼리는 육즙이 풍부하고 향신료가 강하게 들어가 평지의 것과는 맛이 다릅니다. 카차푸리는 치즈를 넣어 구운 빵인데, 이 지역에서는 버터와 달걀을 올린 아자르식(Adjarian) 카차푸리가 인기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차차(Chacha)라고 불리는 포도 증류주를 곁들이는 것이 현지인들의 방식입니다. 도수가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정말로 이 산에 묶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화는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카즈벡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생겨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거친 암벽과 만년설이 뒤엉킨 봉우리의 형상은 마치 고통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거인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신에게 도전한 영웅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험준한 산을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구름 위의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

카즈베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Gergeti Trinity Church)입니다. 해발 2,170미터의 가파른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이 작은 교회는 조지아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지아 관광청의 로고에도, 와인 병 라벨에도, 기념품 가게의 엽서에도 이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조지아를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교회는 14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정확한 건축 연도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지아어로 '츠민다 사메바(Tsminda Sameba)'라고 부르는데, '성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게르게티는 교회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르게티의 삼위일체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교회가 이토록 높고 험한 곳에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이 번갈아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지아인들은 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어딘가에 숨겨야 했습니다.

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이 높은 곳에 성물들을 옮겨 보관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와 고대 수도 므츠헤타가 위협에 처할 때마다, 조지아 정교회의 가장 신성한 유물인 '성녀 니노의 십자가'가 이 교회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녀 니노는 4세기에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인물로, 조지아인들에게는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의 십자가는 포도나무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조지아 정교회의 가장 귀한 성물입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공간이자 민족의 보물 창고였던 셈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게르게티 교회는 그 험준한 위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당국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 조지아가 독립하면서 교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배가 열리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테판츠민다 마을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교회까지의 거리는 약 3킬로미터이고, 해발 고도 차이는 약 500미터입니다. 가파른 오

르막길이 계속됩니다. 체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이킹 코스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선 거리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우회하여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면 가파른 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보상이 됩니다. 숲을 지나고, 초원을 가로지르며, 점 점 가까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순례의 경험입니다. 등산 스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을 광장에는 4륜 구동 미니밴 '델리카(Delica)'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포장 낭떠러지 길을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것이 공포이자 스릴이었습니다.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 경사, 바퀴 옆으로 보이는 까마득한 절벽,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어트랙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가 포장되어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일반 택시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편도 요금은 협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30라리(약 8,000~12,000원) 정도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교회 마당에 서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뒤돌아보면 카즈벡 산의 만년설이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맑은 날이면 하얀 봉우리가 파란 하늘과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앞을 보면 발아래로 스테판 초민다 마을이 장난감처럼 내려다보입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날이면 마을은 구름 아래 숨고, 교회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라는 별칭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소박합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습니다. 투박한 돌벽, 작은 창문, 원형의 돔지붕.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내부는 어두컴컴합니다. 촛불만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벽에는 오래된 프레스코화와 성화(이콘)들이 검게 그을린 채 걸려 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돌벽이 품고 있는 기도와 침묵의 무게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교회 뒤편 언덕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포토 스팟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교회 건물과 카즈벡 산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 유명한 사진이 바로 여기서 찍힌 것입니다. 맑은 날 오후, 서쪽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가 가장 좋은 촬영 시간입니다. 교회에 빛이 들어오고, 뒤의 산은 적당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교회 주변을 둘러보면 옛 종탑과 성벽의 흔적, 그리고 무덤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수행하며 생을 마친 수도사들의 흔적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바람 소리가 마치 찬송 가처럼 들립니다. 여기 서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 험한 곳에 교회를 짓고 지켜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조지아인들의 신앙과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라. 주타 밸리 트레킹 완벽 가이드

카즈베기의 웅장함을 경험했다면,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날 차례입니다. 스테판 초민다 마을에서 차로 약 30분에서 40분 거리에 주타(Juta)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마을은 주타 밸리 트레킹의 시작점입니다. '조지아의 돌로미티'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카즈베기의 거대함과는 다른, 섬세하고 서정적인 산악 풍경을 선사합니다.

주타 마을은 해발 약 2,200미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외부와 단절됩니다. 도로가 막히면 마을

주민들은 봄이 올 때까지 고립된 채 살아야 합니다. 그 덕분에 이곳의 자연은 태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테판츠민다에서 주타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택시나 4륜 구동 차량을 대절해야 합니다. 마을 광장에서 기사와 흥정하면 됩니다. 왕복 비용과 기다리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기사가 주타 마을 주차장에서 5~6시간 정도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다녀옵니다. 가격은 협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150라리(약 40,000~60,000원) 정도입니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이 있어서 비가 온 후에는 도로가 막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차에서 내려 마을까지 약 1시간 정도 걸어야 합니다.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길을 걸으며 보는 풍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초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말과 소 떼가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타 마을에 도착하면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초반 약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시야가 트이면서 평화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장 하나가 보입니다. '피프스 시즌(Fifth Season)'이라는 이름의 산장 호텔 겸 카페입니다.

피프스 시즌의 테라스에 앉아 차우키 산맥(Chaukhi Massif)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주타 트레킹의 백미입니다. 뽕죽하게 솟은 바위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습니다. 이 풍경 때문에 이곳을 '조지아의 돌로미티'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의 돌로미티 산맥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의 풍경에 반해 더 이상 걷지 않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은 피프스 시즌을 지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푸른 초원과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이어집니다. 여름이면 노란 진달래(Rhododendron)와 각종 야생화가 만발합니다. 길 위에서는 풀을 뜯는 말과 소 떼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프스의 하이디가 살 것 같은 동화 속 풍경입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평탄한 길을 걸으면 작은 호수에 도착합니다. 차우키 호수(Chaukhi Lake)입니다. 틴 레이크(Tin Lak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이호수는 에메랄드 빛을 띠니다. 거대한 차우키 암벽 바로 아래 위치해 있어 장엄한 배경을 자랑합니다. 7월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갑지만, 웅기 있는 트레커들은 이곳에서 수 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주타 마을에서 차우키 호수까지 왕복하는 기본 코스는 총 3~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난이 도는 초중급입니다. 피프스 시즌까지의 초반 오르막만 넘기면 대부분 평탄하여 초보자나 가족 단위 여행객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운동화면 충분합니다.

체력이 되고 경험이 있는 트레커라면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차우키 호수를 지나 계속 올라가면 해발 3,338미터의 차우키 패스(Chaukhi Pass)가 나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로슈카(Roshka)라는 마을로 이어지는 1박 2일 코스가 됩니다. 이 루트의 하이라이트는 아부 델라우리 호수(Abudelaury Lakes)입니다. 세 개의 호수가 각각 다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흰색. 빙하가 녹아 만든 신비로운 물빛이 주변의 회색 바위와 대조를 이루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코스는 난이도가 높고 길을 잃기 쉬우므로 경험 있는 가이드와 함께하거나 GPS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타 벨리 트레킹의 최적 시기는 6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10월부터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장들도 겨울에는 문을 닫습니다. 도로가 막혀 마을 자체에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레킹 준비물로는 따뜻한 겉옷이 필수입니다. 산악 지대의 날씨는 급변합니다. 맑은 날에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바람막이나 우비를 챙겨야 합니다. 햇볕을 가릴 그늘이 거의 없으므로 선글라스와 선크림도 필요합니다. 매점이 없으므로 물과 간단한 도시락을 가져가야 합니다.

주타 벨리 안에는 피프스 시즌 외에도 제타 캠프(Zeta Camp) 같은 산장과 캠핑장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대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하룻밤 머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없어 별이 쏟아집니다. 은하수를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벽녘 차우키 산맥이 붉게 물드는 광경도 숙박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타 벨리는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압도적인 자연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카즈베기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섬세하고 서정적인 조지아의 산악 풍경을 만나고 싶다면 이곳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초원 위를 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차우키의 암봉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왜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5장 서부 조지아: 흑해와 중세의 탑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조지아의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동쪽의 건조한 고원과 달리, 이곳에는 흑해의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아열대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더욱 높고 험준해지며, 그 깊은 골짜기에는 천 년 전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마을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부 조지아는 화려한 해변 도시와 고대 동굴 수도원, 중세의 망루 마을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이 장에서는 흑해의 라스베이거스 바투미, 시간이 정지한 스바 네티의 산악 마을, 신화의 도시 쿠타이시, 그리고 절벽에 새긴 기적 바르지아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가. 바투미, 흑해의 라스베이거스와 알리-니노 동상

(1) 흑해가 품은 휴양의 도시

조지아의 서남쪽 끝, 튀르키예 국경에서 불과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바투미(Batumi)가 있습니다. 아자라(Adjara) 자치공화국의 수도이자 조지아 제2의 항구 도시인 이곳은, 트빌 리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투미를 '흑해의 라스베이거스' 혹은 '미니 두바이'라고 부릅니다.

바투미 해안가에 서면 기하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천루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형상화한 130미터 높이의 알파벳 타워(Alphabetic Tower)가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지아 고유 문자인 33개의 알파벳이 탑의 외벽을 감싸고 올라가는 모습은 조지아인들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타워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회전 레스토랑이 있어 흑해와 도시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투미 타워(Batumi Tower)는 더욱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00미터 높이의 이 건물은 상층부 외벽에 실제로 작동하는 관람차(Ferris Wheel)가 박혀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관람차를 타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험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공과대학으로 지어졌으나 현재는 호텔과 카지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투미가 이토록 화려하게 변모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지역은 손에 꼽히는데, 바투미가 그중 하나입니다. 도박이 금지된 튀르키예, 이란, 아르메니아의 부유층들이 주말마다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밤이 되면 해안가의 카지노들이 화려한 네온사인을 밝히고, 거리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북적입니다.

(2) 7킬로미터의 해변 산책로

바투미 불러바드(Batumi Boulevard)는 19세기 말에 조성된 약 7킬로미터 길이의 해변 산책로입니다. 야자수와 대나무, 목련과 유칼립투스 나무가 늘어선 이 길은 바투미 시민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로, 저녁이면 산책하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 찹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독특한 조각상들이 서 있습니다. 거대한 자전거 모양의 조형물, 바다를 향해 뻗은 손 모양의 동상, 악기를 연주하는 청동 인물들. 밤이 되면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 쇼가 펼쳐지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흑해의 파도를 물들입니다.

바투미에서 자전거 대여점을 운영하는 기오르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비에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소련 시절에도 바투미는 휴양지 였어요.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에서 온 사람들이 여름마다 이곳에 왔죠.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흑해의 바람과 아열대 기후는 똑같았어요.” 그는 자전거 바퀴에 기름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국경이 가까우니까요. 주말 이면 차들이 줄을 서서 국경을 넘어옵니다.”

(3) 알리와 니노, 움직이는 사랑의 비극

바투미 해안 산책로의 끝자락에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슬픈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알리와 니노(Ali and Nino) 동상입니다. 8미터 높이의 거대한 두 인물상은 얇은 금속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뼈대만 남은 형상처럼 보입니다. 이 동상은 조지아 조각가 타마라 크베시타제(Tamara Kvesitadze)가 2010년에 제작했습니다.

동상의 모티프는 쿠르반 사이드(Kurban Said)라는 필명으로 1937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입니다. 소설은 20세기 초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를 배경으로, 무슬림 귀족 청년 알리와 조지아 기독교인 공주 니노의 사랑을 그립니다. 두 사람은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랑에 빠지지만, 볼셰비키 혁명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동상이 특별한 이유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두 형상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마침내 입을 맞추듯 겹쳐집니다. 그러나 두 몸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를 안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몸을 통과해 지나쳐 버리고, 다시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이별해야 하는 이 10분간의 움직임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인간의 운명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흑해의 석양을 배경으로 이 ‘사랑의 춤’을 지켜보는 것은 바투미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동상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서고, 사진작가들은 최적의 앵글을 찾아 분주히 움직입니다. 두 형상이 합쳐지는 순간에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4) 아자루리 하차푸리와 바투미의 맛

바투미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아자루리 하차푸리(Adjaruli Khachapuri)입니다. 배 모양으로 구운 빵 가운데에 녹인 치즈와 버터가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반숙 달걀이 올라갑니다. 먹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뜨거울 때 달걀노른자를 터뜨려 치즈와 버터와 섞은 뒤, 빵의 양쪽 끝을 뜯어 그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바투미 구시가지의 작은 식당에서 이 요리를 처음 맛보았을 때, 함께 앓은 현지인이 음식의 유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투미는 항구 도시잖아요. 뱃사람들이 많았죠. 빵을 배 모양으로 만든 건 그래서예요. 가운데 달걀노른자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고요.” 그는 빵 끝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아침에 먹는 거예요. 배를 타기 전에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하니까요. 근데 관광객들은 점심이고 저녁이고 언제든 먹죠.”

(5) 바투미 식물원과 고니오 요새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차분한 자연과 역사가 숨 쉬고 있습니다. 바투미 시내에서 북쪽으로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바투미 식물원(Batumi Botanical Garden)이 있습니다. '그린 케이 프(Green Cape)'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흑해를 굽어보는 가파른 절벽 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1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전 세계 9개 기후대의 식물 수천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1912년에 러시아 식물학자 안드레이 크라스노프가 설립한 이 식물원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원, 호주 구역, 멕시코 선인장 구역, 히말라야 구역 등이 차례로 펼쳐지고,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흑해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입니다. 바투미의 습한 아열대 기후가 만들어낸 초록의 낙원입니다.

반대쪽, 남쪽으로 15킬로미터를 달리면 고니오 요새(Gonio Fortress)가 나옵니다. 기원전 1 세기부터 존재했던 이 요새는 로마 제국의 동쪽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는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12사도 중한 명인 마티아(Matthias)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바투미는 이처럼 카지노의 화려함과 2,000년 고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나. 스바네티, 코쉬키 망루가 지키는 시간 정지의 마을

(1) 코카서스의 숨겨진 보물

바투미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열대 해안의 야자수는 사라지고, 침엽수림과 만년설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몇 시간이고 달리다 보면, 유럽에서 가장 고립되고 신비로운 산악 지역인 스바네티(Svaneti)에 도착합니다.

스바네티는 대카프카스 산맥의 깊은 품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3,000미터에서 5,000 미터에 달하는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은, 험준한 지형 덕분에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도, 오스만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이 험준한 산을 넘어 스바네티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지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진 고대의 관습과 언어, 건축 양식이 이곳에서는 생생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스바네티에 사는 사람들을 스반족(Svans)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조지아인의 한 지파이지만, 독자적인 언어인 스반어를 사용합니다. 스반어는 조지아어와 뿌리가 같지만, 트빌리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다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용맹한 전사이자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을 '신이 보낸 선물'로 여기는 조지아의 환대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2) 코쉬키, 생존을 위한 중세의 마천루

스바네티의 풍경을 압도하는 것은 마을 곳곳에 우뚝 솟아 있는 석조 망루들입니다. 조지아어로 '코쉬키(Koshki)'라고 불리는 이 탑들은 9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20미터에서 30미터에 달하는 사각형 석탑들이 마을마다 수십 개씩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중세의 마천루 숲 같습니다.

이 탑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나 페르시아 같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한 요새였고, 겨울철 눈사태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따로 있었

습니다. 인근 가문 간의 '피의 복수(Blood Feuds)'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스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피해자의 가문이 가해자 가문에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복수의 연쇄는 수 세대에 걸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문은 자신만의 방어 탑을 짓고, 위험이 닥치면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탑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용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통 4층에서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1층은 가족을 위한 공간, 2층은 가족의 거주 공간, 상층부는 식량 저장고와 방어용 망루로 사용되었습니다. 입구는 지면에서 몇 미터 위에 있어 사다리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가족들은 탑 위로 올라가 사다리를 걸어차고, 좁은 총안구(Gunport)를 통해 돌이나 뜨거운 물을 부으며 저항했습니다.

메스티아에서 만난 가이드 레반은 자신의 집안도 400년 된 코쉬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복수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탑은 여전히 우리 가문의 상징이에요. 탑이 높고 튼튼할수록 가문의 위세가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탑 꼭대기에서 밤마다 불을 밝혀 다른 마을에 신호를 보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 탑은 통신 수단이기도 했어요. 봉화를 올리면 다른 마을에서도 봉화로 답했 죠."

(3) 메스티아, 스바네티의 관문

스바네티 여행의 출발점은 메스티아(Mestia)입니다. 해발 1,500미터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에는 약 2,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비행기로 1시간, 또는 쿠타이시에서 4륜 구동 차량으로 4~5시간이 걸립니다. 길이 험하고 좁아서 겨울에는 눈으로 막히기 일쑤입니다.

메스티아에 들어서면 30개가 넘는 코쉬키 탑이 마을 곳곳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낮은 돌탑과 현대적인 게스트하우스가 묘하게 공존합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스바네티 역사 민속 박물관(Svaneti Museum of History and Ethnography)은 반드시 들러야 할 곳입니다.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제작된 금은 세공 복음서, 고대 동전, 무기, 전통 의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바네티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는 약탈당하거나 파괴된 조지아의 국보급 유물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지아니 가옥 박물관(Margiani House-Museum)'은 전통 스반 가옥과 코쉬키 탑의 내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니라는 이름의 나이 든 여주인이 집안 대대로 내려 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탑은 우리 가문이 13세기에 지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았죠.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데, 그때 탑 안에 저장해 둔 식량으로 버텼어요."

(4) 우슈굴리, 유럽에서 가장 높은 마을

메스티아에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스바네티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우슈굴리(Ushguli)에 닿습니다. 4륜 구동 차량으로 비포장 산길을 2~3시간 달려야 합니다. 강을 건너고, 절벽 옆을 지나고, 때로는 길이 끊긴 곳에서 차가 물속을 뚫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 끝에 만나는 풍경은 말을 잃게 합니다.

해발 2,100미터에서 2,200미터에 위치한 우슈굴리는 유럽에서 사람이 연중 거주하는 가장 높은 마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아 최고봉인 시카라 산(Mt. Shkhara, 5,193m)이 마을 바로 뒤에 웅장하게 서 있고,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리 아래로 빙하가 흘러내립니다. 그 장엄한 배경 앞에 20

여 개의 고대 망루가 웅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옥빛 강물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소와 말들이 풀을 뜯고, 아이들이 좁은 돌길을 뛰어다닙니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슈굴리는 1년 중 6개월 이상 눈에 덮여 있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스반 문화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 위에 있는 라마 리아 교회(Lamaria Church)는 10세기에 지어진 작은 성당입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프레스 코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조지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타마르 여왕(Queen Tamar)이 여름을 피해 이곳의 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타마르 여왕을 마치 어제 살다 간 이웃처럼 이야기합니다.

(5) 트레킹과 스반의 음식

스바네티는 트레커들의 천국입니다. 메스티아에서 우슈굴리까지 이어지는 4일간의 트레킹 코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빙하 계곡, 야생화가 만발한 초원, 만년설 봉우리를 넘나드는 이 루트는 코카서스 트레킹의 정수로 꼽힙니다. 하루 코스를 원한다면 찰라디 빙하(Chalaadi Glacier)나 코룰디 호수(Koruldi Lakes)로 향하는 트레킹을 추천합니다.

스바네티에 왔다면 전통 음식을 맛봐야 합니다. 쿠브다리(Kubdari)는 스바네티의 대표 음식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잘게 다져 스바네티 소금과 향신료로 양념한 뒤 두툽한빵 안에 넣어 구워냅니다. 척박한 산악 환경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라 맛이 진하고 든든합니다. 스바네티 소금은 이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으로, 마늘과 여러 가지 허브를 섞어 만든 향신료입니다. 어떤 음식에 뿌려도 맛을 살려줍니다.

메스티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쿠브다리와 함께 차 차(Chacha)를 내왔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증류주인 차차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드는데, 도수가 50도를 넘습니다. "우리 스반 사람들은 겨울에 이걸로 몸을 녹여요. 눈이 허리까지 쌓이면 탑에서 나올 수도 없는데, 차차 한 잔이면 추위가 싹 가시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다. 쿠타이시와 프로메테우스 동굴

(1) 황금 양털 신화의 땅

조지아 서부의 중심 도시 쿠타이시(Kutaisi)는 수도 트빌리시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인구 약 14만 명의 이 도시는 기원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약 220킬로미터,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바투 미에서는 북쪽으로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쿠타이시 국제공항에는 저가 항공편이 많이 취항하여, 유럽에서 조지아로 오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쿠타이시의 역사는 그리스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영웅 이아손(Jason)과 아르고 원정대(Argonauts)가 황금 양털(Golden Fleece)을 찾아 떠난 콜키스(Colchis)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콜키스의 공주 메데아(Medea)는 이아손을 도와 황금 양털을 훔치고 함께 도망쳤습니다. 이 신화가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대 조지아 서부의 강에서는 실제로 양털을 이용해 사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양털에 걸러진 금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것

이 '황금 양털' 전설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쿠타이시 시내 중앙 광장에는 콜키스 분수(Colchis Fountain)가 있습니다. 고대 콜키스 유적 에서 발굴된 황금 장신구들을 확대하여 만든 청동 동상들이 분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 사슴, 사자, 황소 등의 동물 형상이 금빛으로 빛나며, 이곳이 '황금의 땅'이었음을 상징 적으로 보여줍니다.

(2) 바그라티 대성당과 겔라티 수도원

쿠타이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바그라티 대성당(Bagradi Cathedral)이 서 있습니다. 11세기 초, 조지아를 통일한 바그라트 3세가 건설한 이 성당은 중세 조지아 건축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에메랄드빛 지붕과 웅장한 돔이 인상적입니다. 성당 앞에 서면 도시를 가로지르는 리오니 강(Rioni River)과 쿠타이시 시내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바그라티 대성당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어 수백 년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폐허 상태의 성당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조지아 정부는 성당을 완전히 복원하기로 결정했고, 복원 과정에서 철제와 유리 같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것이 원래의 역사적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바그라티 대성당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복원된 성당의 웅장한 자태와 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로서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쿠타이시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겔라티 수도원(Gelati Monastery)이 있습니다. 12세기 초, 조지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인 다비드 건설왕(David the Builder)이 세운 이 수도원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중세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철학, 신학, 과학, 천문학을 연구하는 아카데미가 이곳에 있었고, 조지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겔라티 수도원은 '제2의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수도원 내부에는 12세기에 제작된 화려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습니다.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성인들의 얼굴, 성경 이야기, 기하학적 문양이 눈을 압도합니다. 다비드 건설왕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수도원 정문 바닥에 만들어 달 라고 유언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겔라티 수도원은 바그라티 대성당과 달리 여전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프로메테우스 동굴, 지하 세계의 신비

쿠타이시 여행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낸 지하 궁전, 프로메 테우스 동굴(Prometheus Cave)입니다. 쿠타이시에서 서쪽으로 약 20킬로미터, 츠칼투보(Tskaltubo)라는 작은 온천 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1984년에 발견된 이 동굴은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벌을 받아 묶여 있었다는 전설이 깃든 산(Khvamli Mountain) 근처에 있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타이탄입니다. 제우스는 분노하여 그를 코카서스 산맥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고,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파먹도록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자라고, 다음 날 또 독수리가 와서 파먹는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었습니다. 이 전설의 무대가 바로 이곳 코카서스 산맥 어딘가입니다. 동굴 이름에 프로메테우스가 붙은 것은 그 연유입니다.

동굴의 총 길이는 약 11킬로미터에 달하지만, 관광객에게 개방된 구간은 약 1.4킬로미터입니다. 도보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동굴 내부는 연중 14~15도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므로, 여름에도 긴 소매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기괴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천장에서 늘어진 종유석, 바닥에서 솟아오른 석순, 둘이 만나 기둥이 된 석주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어떤 것은 커튼처럼 늘어지고, 어떤 것은 성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동굴 관리 당국은 자연의 조각품들에 형형색색의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녹색, 주황색 빛이 종유석과 석순을 비추면, 마치 판타지 영화 속 지하 궁전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가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동굴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동굴 내부를 흐르는 지하 강을 따라 보트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배에 올라 물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머리 위로 종유석이 늘어지고, 물속에는 형광등이 비친 바위들이 아른거립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지하 세계 하데스(Hades)로 들어가는 스틱스 강을 건너는 기분입니다.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가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의 해방감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4) 쿠타이시의 하루

쿠타이시는 하루면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오전에 겔라티 수도원을 방문하고, 점심은 시내로 돌아와 먹습니다. 오후에는 프로메테우스 동굴을 탐험하고, 저녁에는 리오니 강변의 '화이트 브리지(White Bridge)'를 산책합니다. 화이트 브리지는 19세기에 지어진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저녁이면 연인들이 모여들어 강물에 비친 조명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쿠타이시에서 맛봐야 할 음식은 이메레티 하차पुर리(Imereti Khachapuri)입니다. 바투미의 아자루리 하차पुर리가 배 모양에 달걀이 올라간 것과 달리, 이메레티 하차पुर리는 둥근 빵안에 치즈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치즈가 짹짹 늘어납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이메레티 지역의 치즈가 가장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쿠타이시 중앙 시장(Kutaisi Green Bazaar)은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치즈, 향신료, 말린 과일, 견과류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맛 좀 봐"라며 끊임없이 시식거리를 건넵니다. 무언가 사지 않고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라. 바르지아, 절벽에 새긴 동굴 도시의 장엄함

(1) 프로메테우스가 묶인 절벽

조지아 남부, 튀르키예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 바르지아(Vardzia)가 있습니다. 쿠타이시에서 남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자동차로 4시간 거리입니다. 아할치헤(Akhaltzikhe)라는 도시를 지나 좁은 산길을 따라 한 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에루셰티 산(Erusheti Mountain)의 깎아지른 절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절벽 전체에 벌집처럼 뚫린 수백 개의 구멍들. 그것이 바르지아입니다.

바르지아는 12세기 말, 조지아의 황금기를 이끈 게오르기 3세와 그의 딸 타마르 여왕(Queen Tamar)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원래는 몽골과 페르시아 등 외부 침략에 대비한 비밀 요새 도시였습니다. 절벽 안쪽에 도시 전체를 숨겨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그저 험준

한 절벽으로 보일 뿐, 그 안에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르지아가 처음 내 눈에 들어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황량한 협곡을 따라 달 리다 갑자기 시야가 열리면서, 거대한 절벽 전체가 인간의 손으로 뚫린 채 드러납니다. 마치 거인이 칼로 산을 베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8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2) 5만 명을 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전성기의 바르지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13층 높이의 절벽에 6,000개 이상의 방을 뚫었습니다. 최대 5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완전한 자급자족 도시였습니다. 주거 공간, 교회, 도서관, 약국, 빵집, 와인 저장 고(마라니), 그리고 수백 미터 길이의 관개수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적이 수개월간 포위하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동굴들은 복잡한 터널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미로처럼 이어진 통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었고, 비밀 탈출로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적이 침입해도 내부 구조를 모르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환기구와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 뚫려 있어, 깊은 동굴 안에서도 숨을 쉬고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83년, 대지진이 이 비밀 도시를 세상에 드러내 버렸습니다. 지진으로 절벽의 앞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숨겨져 있던 동굴들의 단면이 밖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산의 3분의 2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요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바르지아는 이후 거대한 동굴 수도 원으로 변모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원래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에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3) 타마르 여왕의 프레스코화

바르지아의 중심에는 성모 승천 교회(Church of the Dormition)가 있습니다. 절벽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교회는 바르지아의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벽면과 천장에 800년 된 프레스코화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인들의 얼굴, 성경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타마르 여왕의 생전 모습을 그린 벽화입니다.

타마르 여왕은 조지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습니다. 1184년부터 1213년까지 약 30년간 조지아를 통치하며, 영토를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확장하고 문화와 예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치세에 조지아는 코카서스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프레스코화 속 타마르 여왕은 젊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미혼 시절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왕관을 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지아 전역을 뒤져도 타마르 여왕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습니다.

바르지아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린 타마르 공주가 삼촌과 함께 공사 현장에 왔다가 동굴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삼촌이 애타게 찾자 그녀는 "아크 바르, 지아(Aq var, dzia)"라고 외쳤습니다. 조지아어로 "삼촌, 저 여기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이 외침이 훗날 이곳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4) 살아 있는 수도원

지금도 바르지아에는 소수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굴 수도원의 전통을 이어가며, 매일 아침 7시에 종을 울립니다. 황량한 협곡 사이로 종소리가 메아리치면, 마치 800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듭니다.

바르지아를 방문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탐방로는 절벽을 따라 오르내리며, 좁은 통로와 가파른 계단이 이어집니다. 일부 구간은 어둡고 천장이 낮아 손전등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둘러보는 데 1~2시간이 소요됩니다.

바르지아 입구에서 만난 관리인 기오르기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부터 이곳에서 놀았어요. 동굴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알죠.” 그는 관광객이 없는 시간에 홀로 동굴을 거닐 때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면 빛이 절벽에 부딪혀 동굴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 순간 800년 전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요. 그들도 이 아름다움을 알았을까요?”

(5) 황량한 아름다움

바르지아 주변의 풍경은 황량합니다. 나무가 거의 없고, 갈색 언덕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절벽 아래로 쿠라 강(Mtkvari River)이 유유히 흐릅니다. 이 강은 트빌리시를 지나 카스피해로 흘러갑니다. 절벽 끝 난간에 서서 협곡을 내려다보면, 바람 소리와 새소리 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적막 속에서 800년 전 이곳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바르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비스(Vanisis) 동굴 수도원이 있습니다. 바르지아보다 규모는 작지만, 관광객이 적어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할치헤로 돌아가는 길에는 라바티 성(Rabati Castle)에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 지어진 이 성은 최근 복원되어, 모스크와 교회, 박물관이 함께 있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바르지아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조지아인들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비입니다. 절벽에 새긴 수천 개의 구멍 하나하나에 그들의 땀과 기도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바르지아를 떠나며 뒤돌아보면, 석양에 붉게 물든 절벽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엄한 풍경은 조지아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부 조지아는 이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투미의 화려한 밤문화와 현대 건축, 스바네티의 시간이 멈춘 산악 마을, 쿠타이시의 고대 신화와 지하 동굴, 바르지아의 절벽에 새긴 기적. 이 모든 것이 자동차로 몇 시간 거리 안에 있습니다. 조지아 서부를 여행하는 것은 마치 여러 세기를 동시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6장 실전 여행 노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1주/2주 추천 일정표

조지아는 남한 면적의 약 70퍼센트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시작하면 이 좁은 땅이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이어지고, 마을마다 멈춰 서서 구경하고 싶은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트빌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지도로 보면 하루면 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땅은 시간을 먹어치우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여행자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조지아에서의 이동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만나는 모든 것이 여행의 일부가 됩니다. 길가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과 눈인사를 나누고, 갑자기 나타난 에메랄드빛 저수지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낯선 마을의 빵집에서 갓 구운 샷 프리(Shotis Puri)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1) 1주 일정: 조지아의 심장부를 관통하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조지아의 핵심을 맛보기에 적합합니다. 수도 트빌리시를 중심으로 북쪽의 거대한 산맥과 동쪽의 와인 산지를 오가는 ‘골든 트라이앵글’ 코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코스는 조지아 여행의 고전이라 할 수 있으며,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경로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트빌리시, 오래된 도시의 품에 안기다

트빌리시 국제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7번 버스로 약 40분이 걸립니다. 택시 앱 볼트(Bolt)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면 올드타운으로 향합니다.

나리칼라 요새(Narikala Fortress)는 4세기에 세워진 성채로,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트빌리시 전체가 발아래 펼쳐집니다. 구라강(Kura River)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붉은 지붕의 집들이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새 바로 옆에는 ‘조지아의 어머니 니상(Kartlis Deda)’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적을 물리치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손님을 환영하는 와인 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조지아 민족의 기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친구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적에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올드타운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유황 온천 지구인 아바노투바니(Abanotubani)에 닿습니다. 둥근 벽돌 지붕이 땅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늘어서 있는데, 그 아래에서 뜨거운 유황 온천수가 솟아납니다. 전설에 따르면 5세기 바흐탕 고르가살리(Vakhtang Gorgasali) 왕이 사냥 중에 매가 쫓던 꿩이 이 온천수에 빠졌다가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 이곳에 수도를 건설

했다고 합니다. 트빌리시라는 이름 자체가 ‘따뜻한’이라는 뜻의 조지아어 ‘트빌리(Tbili)’에서 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트빌리시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므츠헤타(Mtskheta)를 방문합니다. 이곳은 조지아의 옛 수도이자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즈바리 수도원(Jvari Monastery)에서 내려다보면 쿠라강과 아라그비강(Aragvi River)이 합류하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두 강물의 색깔이 달라서 합류 지점에서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스베티 츠호벨리 대성당(Svetitskhoveli Cathedral)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聖衣)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조지아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가장 신성한 성지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카즈베기, 신들의 산으로 가는 길

셋째 날 아침, 북쪽으로 향합니다. 조지아 군사 도로(Georgian Military Highway)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건설한 전략적 도로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러시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코카서스 산맥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을 통과합니다.

출발한 지 한 시간쯤 되면 아나누리 요새(Ananuri Fortress)가 나타납니다. 에메랄드빛 진발리 저수지(Zhinvali Reservoir) 옆에 우뚝 선 이 요새는 17세기 봉건 영주들의 권력 다툼 현장이었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두 개의 교회에는 섬세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구다우리(Gudauri)에 이릅니다. 겨울에는 스키 리조트로 붐비는 곳이지만, 다른 계절에는 조용한 산악 마을입니다. 이곳의 러시아-조지아 우정 기념비(Russia-Georgia Friendship Monument)는 해발 2,170미터 고지에 세워진 거대한 원형 타일 벽화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양국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계곡의 풍경은 숨이 멎을 듯합니다.

목적지인 스테판츠민다(Stepantsminda), 옛 이름 카즈베기(Kazbegi)에 도착하면 마을 뒤로 카즈벡 산(Mount Kazbek)의 만년설이 보입니다. 해발 5,047미터의 이 산은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여 있던 곳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산입니다.

넷째 날 아침,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Gergeti Trinity Church)로 향합니다. 마을에서 약 2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거나, 4륜 구동 차량을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발 2,170미터 봉우리에 홀로 서 있는 14세기 교회는 조지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맑은 날에는 교회 뒤로 카즈벡 산의 빙하가 빛납니다.

체력이 된다면 주타 밸리(Juta Valley)로 발길을 돌려볼 만합니다. '조지아의 돌로미티'라 불리는 차우키 산괴(Chaukhi Massif)가 병풍처럼 펼쳐진 이곳은 비교적 완만한 트레킹 코스여서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카헤티, 와인의 고향

다섯째 날,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카헤티(Kakheti)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8,000년 와인 역사의 고향입니다. 알라자니 계곡(Alazani Valley)을 따라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크고 작은 와이너리가 여행자를 기다립니다.

시그나기(Sighnaghi)는 '사랑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마을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결혼 등록소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연인들이 찾아옵니다. 마을을 둘러싼 성벽을 따라 걸으면 저 멀리 코카서

스 산맥의 설봉이 보입니다. 성벽 아래로는 알라자니 계곡의 포도밭이 바둑판처럼 펼쳐집니다.

시그나기에서 멀지 않은 보드베 수도원(Bodbe Monastery)에는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녀 니노(Saint Nino)의 무덤이 있습니다. 수도원 정원에서 바라보는 계곡의 전망이 평화 롭습니다. 수도원 아래로 내려가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지는 성수가 솟는 곳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와이너리 투어를 합니다. 크베브리(Qvevri)라는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는 전통 양조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묻힌 거대한 토기 항아리에 포도를 꺾질, 씨, 줄기째 넣고 자연 발효시키는 방식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엠버 와인(Amber Wine)은 일반 화이트 와인과 달리 호박색을 띠며 독특한 탄닌 맛이 납니다.

일곱째 날: 트빌리시로 돌아오다

마지막 날은 트빌리시로 돌아와 여유롭게 보냅니다. 드라이 브리지 마켓(Dry Bridge Market)은 소비에트 시절의 골동품과 수공예품을 파는 벼룩시장입니다. 오래된 카메라, 군용 훈장, 은제 장신구, 수놓은 테이블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조지아의 복잡한 역사가 손에 잡힐 듯합니다.

(2) 2주 일정: 코카서스의 모든 얼굴을 만나다

2주의 시간이 있다면 1주 코스에 서부 조지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스바네티(Svaneti)의 중세 망루 마을과 흑해 연안의 바투미(Batumi)까지 아우르는 이 코스는 조지아의 다양성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 줍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1주 코스와 동일

앞서 설명한 트빌리시, 카즈베기, 카헤티 일정을 소화합니다.

여덟째 날과 아홉째 날: 고리와 쿠타이시

여덟째 날, 서쪽으로 이동하며 고리(Gori)에 들릅니다. 이곳은 소련의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스탈린 박물관에는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작은 오두막과 전용 열차 객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스탈린을 어떻게 기억하 는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지아 출신의 세계적 인물'로 자랑스러워하 고, 다른 이들은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고리에서 멀지 않은 우플리스치헤(Uplistsikhe)는 기원전 1천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 도시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거리, 극장,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 오기 전 이교도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고대 조지아인들의 삶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쿠타이시(Kutaisi)는 조지아 제2의 도시이자 서부의 관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콜키스(Colchis) 왕국의 수도였다고 전해지며, 이아손이 황금양털을 찾아 떠난 목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겔라티 수도원(Gelati Monastery)은 12세기 다비트 4세가 세운 것으로, 조지아 중세 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바그라티 대성당(Bagrat Cathedral)과 프로메테우스 동굴(Prometheus Cave)도 놓치지 마십시오.

열째 날부터 열두째 날: 스바네티, 시간이 멈춘 땅

스바네티로 가는 길은 험준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쿠타이시에서 메스티아(Mestia)까지는 차로 약 5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경비행기를 타면 4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지만, 날씨에 따라 결항이 잦습니다.

메스티아에 도착하면 중세의 방어탑인 코쉬키(Koshki)가 마을 전체에 숲처럼 솟아 있는 풍경이 펼쳐 집니다. 이 탑들은 외적의 침입이나 혈족 간의 복수전쟁 때 피난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바네티 사람들은 조지아에서도 가장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독자적인 언어와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열한째 날에는 4륜 구동 차량을 타고 우쉬굴리(Ushguli)로 향합니다. 해발 2,200미터에 위치한 이 마을은 유럽에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가장 높은 마을 중 하나입니다. 눈 덮인 쉬하라 산(Mount Shkhara, 5,193m)을 배경으로 천 년 된 탑들이 늘어선 풍경은 초현실적입니다. 겨울에는 눈에 갇혀 몇 달씩 외부와 단절되기도 하는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열셋째 날과 열넷째 날: 바투미, 흑해의 휴양지

스바네티에서 내려와 흑해 연안의 바투미로 향합니다. 바투미는 조지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자본이 유입되어 고층 건물과 카지노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알리와 니노 동상(Ali and Nino Statue)'은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남성과 조지아 기독교 여성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소설을 형상화한 것으로, 매일 저녁 두 남녀의 금속 조각상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투미 식물원(Batumi Botanical Garden)은 아열대 기후 덕분에 전 세계의 식물이 자라는 곳입니다. 흑해의 일몰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좋습니다. 바투미 국제공항에서 직접 출국하거나, 야간 열차를 타고 트빌리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일정 계획 시 고려할 점

조지아 여행에서 이동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도상의 거리보다 실제 소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산악 도로는 구불구불하고, 도로 상태도 들쭉날쭉합니다. 이동 중에 가축 떼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도 흔합니다.

계절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스바네티의 우쉬굴리는 겨울철에 눈으로 도로가 막히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카즈베기의 고지대 트레킹 코스도 5월 이전에는 눈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면 7월과 8월의 트빌리시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로 걷기 여행이 고됩니다.

최적의 여행 시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0월 초입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포도 수확철인 9월에는 와이너리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르트벨리(Rtveli)'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수프라 연회와 타마다 문화, 손님의 예절

조지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프라(Supra)에 참석해야 합니다. 수프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지아인들의 정체성이 응축된 의례이며, 그들이 수천 년 간 이어온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카헤티 지역의 한 와이너리에서 만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프라 없이는 조지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서 태어나고, 이 식탁에서 사랑하고, 이 식탁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 수프라: 식탁보 위에 펼쳐지는 우주

수프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식탁보'를 뜻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훨씬 큼니다. 가족의 경조사, 친구의 방문, 마을의 축제,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수프라가 열립니다. 아이의 세례식에서, 결혼식에서, 새 집에 이사 왔을 때,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가 있을 때, 조지아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와인을 마시며 노래를 부릅니다.

수프라의 규모는 다양합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작은 수프라부터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탁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음식을 차리는 것, 그리고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조지아 속담에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환대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입니다. 낯선 여행자라도 현지인과 눈이 마주치거나 길 을 묻다가 갑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조지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프라가 시작되면 음식이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하차푸리(Khachapuri)는 보트 모양의 빵안에 치즈와 계란, 버터가 녹아 있는 조지아의 대표 음식입니다. 힌칼리(Khinkali)는 주먹만한 크기의 만두로, 육즙이 가득합니다. 프칼리(Pkhali)는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를 갈아 호두와 섞은 전채 요리입니다. 므츠바디(Mtsvadi)는 포도나무 가지에 굽는 꼬치구이입니다. 이 밖에도 수십 가지의 요리가 차례로 식탁을 채웁니다.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와인입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와인을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로 여깁니다. 수프라에서 와인은 기도의 도구이자 축복의 상징입니다. 전통적으로 와인은 소의 뿔로 만든 잔인 칸치(Kantsi)에 담겨 나옵니다. 뿔잔은 바닥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들면 다 마셔야 합니다.

(2) 타마다: 연회의 지휘자

모든 수프라에는 타마다(Tamada)가 있습니다. 타마다는 건배를 제의하고 연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흔히 'Toastmaster'라고 번역하지만, 이 단어로는 타마다의

역할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타마다는 사회자, 시인, 철학자, 성직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타마다는 보통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타마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역사와 문학에 해박하며, 유머 감각이 있고, 무엇 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훌륭한 타마다가 이끄는 수프라는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서투른 타마다가 이끄는 수프라는 한없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타마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배사(Toast)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조지아의 건배사는 "건 강을 위하여"나 "행복을 위하여" 같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타마다는 5분, 10분, 때로는 그 이상을 들여 시적이고 철학적인 연설을 합니다. 역사적 일화를 인용하고, 속담을 풀어내고, 즉흥적인 시를 읊기도 합니다.

건배의 주제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배는 보통 신이나 평화에게 바칩니다. 그다음은 조국 조지아, 그다음은 돌아가신 조상들, 그다음은 부모님, 가족, 자녀, 우정, 사랑, 그리고 자리에 함께한 손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건배 사이에는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프라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어지며, 건배 횟수가 20번을 넘기기도 합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마치면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를 알라베르디(Alaverdi)라고 합니다. 알라베르디를 받은 사람은 타마다의 건배 주제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말합니다. 발언이 끝나면 다시 타마다에게 권한이 돌아가고, 타마다는 다음 건배 주제로 넘어갑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하는 동안에는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모든 시선이 타마다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건배사가 끝나고 타마다가 "가우마 르조스! (Gaumarjos!)"를 외치면 모두 잔을 들어 화답하고 와인을 마십니다. 가우마르조스는 "승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3) 손님이 알아야 할 예절

조지아의 수프라에 초대받았다면 몇 가지 예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인은 크게 감동합니다.

초대에 응하는 법

조지아 사람이 식사에 초대하면 가능한 한 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에 응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와인 한 병이나 초콜릿, 과

일 바구니 정도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꽃을 가져갈 경우,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짝수 송이는 피하고 반드시 홀수 송이로 준비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는 장로나 주빈이 먼저 앉기를 기다립니다. 타마다가 지정해주는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님은 보통 주인 옆이나 타마다 가까이에 배치됩니다.

건배 예절

타마다가 건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인을 홀짝이는 것은 결례입니다. 와인 잔은 타마다가 건배를 제의하고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십니다. 조지아에서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례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건배할 때 잔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부딪칩니다. 시선을 피하면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프라에서 뿔잔이 나오면 잔에 담긴 와인을 모두 마셔야 합니다. 뿔잔은 바닥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남기면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보기에 어색합니다.

술을 못 마시거나 양을 조절하고 싶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 혹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 주인도 이해합니다. 다만 건배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잔에 입만 대는 시늉이라도 하며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로 건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피합니다. 과거에 적에게 패배를 기원할 때 맥주를 마셨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음식 먹는 법

한칼리는 손으로 먹어야 합니다. 포크와 나이프로 자르면 육즙이 다 흘러나와 맛이 반감됩니다. 만두의 꼭지(밀가루 뭉치 부분)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뒤집어서, 뜨거운 국물이 흐르지 않게 한입 베어 물어 먼저 육즙을 마십니다. 그다음 나머지를 먹습니다. 꼭지 부분은 보통 먹지 않고 접시 가장자리에 남겨둡니다. 먹은 개수를 세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반죽이 두꺼워 맛이 없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자르 스타일 하차푸리(Adjarian Khachapuri)는 보트 모양 빵 중앙에 치즈와 계란, 버터가 담겨 나옵니다. 빵의 뾰족한 양쪽 끝을 손으로 떼어 중앙의 치즈와 계란을 섞은 다음 찢어 먹습니다. 점점 중앙으로 좁혀가며 빵을 뜯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먹게 됩니다.

조지아인들은 음식을 남길 정도로 풍성하게 차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음식이 부족해 보이면 주인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조금씩 덜 담고, 대신 음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게므리엘리아!(Gemrielia!)”는 “맛있어요!”라는 뜻입니다.

대화와 참여

수프라에서는 음식과 술만큼이나 대화가 중요합니다. 주인은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조지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조지아 음식은 어떤지 등등. 이러한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하고, 조지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면 더욱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프라가 무르익으면 누군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조지아의 전통 다성 음악(Polyphony)은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선율을 동시에 부르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이 음악은 처음 들으면 몽환적이고 신비롭습니다. 노래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으면 잘 모르더라도 흥얼거리며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춤이 시작되면 함께 어울려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화답입니다.

(4) 수프라를 경험하는 방법

여행자가 전통 수프라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것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수프라가 펼쳐지곤 합니다. 카헤티 지역의 와이너리나 스바네티의 산골 마을에서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트빌리시에서는 수프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나 투어 회사가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 전통 수프라와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건배 문화와 음식을 맛보기에는 좋은 입문 과정입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길을 묻다가, 와이너리를 구경하다가, 기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초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의 환대를 믿고 마음을 열어두면 됩니다.

다. 분쟁 지역 접근 주의사항과 안전 수칙

조지아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양호하고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여러 조사에서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곤 합니다. 트빌리시의 올드타운을 자정 넘어 돌아다녀

도 위험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토의 약 20퍼센트가 조지아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분쟁 지역의 역사적 배경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조지아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직후부터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두 지역에서 분리주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북서쪽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Abkhazia)와 북쪽 산악 지대의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입니다.

1990년대 초 벌어진 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조지아인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휴전 상태로 얼어붙은 갈등은 2008년 8월 러시아의 개입으로 다시 폭발했습니다. 닷새 동안 벌어진 전쟁 끝에 러시아는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지아 정부는 두 지역을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영토로 간주합니다.

현재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는 러시아 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지역들과 조지아 본토 사이에는 사실상의 국경선인 행정경계선(Administrative Boundary Line, ABL)이 그어져 있습니다.

(2) 여행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지역

압하지야(Abkhazia)

압하지야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아열대 기후의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휴양지로 유명했고, 수후미(Sukhumi)라는 수도는 해변 도시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전쟁으로 대부분의 조지아인이 쫓겨났고, 현재는 러시아의 실질적 통제 하에 있습니다.

여행자가 압하지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 쪽에서 압하지야로 들어가면 조지아 법상 불법 입국으로 간주되어, 이후 조지아 본토에 입국할 때 체포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지아 쪽에서 압하지야로 들어가는 것은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으며, 국경에서 돌려보내지거나 구금될 수 있습니다.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남오세티야는 조지아 중북부에 위치한 산악 지역입니다. 수도 츠хин발리(Tskhinvali)를 중심으로 약 5만 명 정도가 거주합니다. 2008년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곳이며, 현재도 러시아군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남오세티야 역시 어느 쪽에서든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들어가면 조지아에서 처벌받고, 조지아를 통해 들어가려 해도 검문소에서 저지당합니다. 행정경계선 근처에는 철조망과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 크리핑 보더: 움직이는 국경선

남오세티야의 행정경계선은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 즉 '움직이는 국경선'이라는 불안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러시아와 남오세티야 측이 경계선을 조금씩 조지아 쪽으로 밀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사이에 마을 한복판에 철조망이 쳐지거나, 농부가 자기 밭으로 알고 있던 땅이 하

루아침에 점령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리(Gori) 인근의 시다 카르틀리(Shida Kartli) 지역에는 행정경계선에 가까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도 앱에서 경계선 위치를 확인하고, 현지인의 조언에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경계선 근처에서 사진을 찍거나 배회하면 구금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주의사항

조지아에는 '점령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의 허가 없이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야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벌금(500라리 이상)이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러시아를 통해 압하지야나 남오세티야에 입국한 기록(여권 스탬프, 비자 등)이 있으면 이후 조지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지아 본토에서 점령 지역으로 불법 진입을 시도하다가 조지아 경찰이나 러시아군에게 체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점령 지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사관의 영사 조력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두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 또는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5) 일반적인 안전 수칙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조지아는 매우 안전한 여행지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

조지아 여행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도로입니다.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추월이나 끼어들기가 거칠게 이루어집니다. 산악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도 많습니다. 도로 위에 소, 말, 돼지, 양 떼가 느긋하게 걸어 다니는 광경도 흔합니다.

렌터카로 여행할 경우 방어 운전이 필수입니다. 야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이 자신 없다면 마슈루트카(Marshrutka, 미니버스)나 택시 앱, 혹은 개인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악 트레킹

코카서스 산맥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쾌청했던 하늘이 점심 무렵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비나 눈이 내리다가 또 금세 갠 수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여름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트레킹을 할 때는 보온 의류, 비옷, 충분한 물과 간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낯선 코스에서는 현지 가이드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바네티나 카즈베기 같은 오지에서는 휴대전화 신호가 터지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단독 트레킹은 피해야 합니다.

유기견

트빌리시를 비롯한 조지아의 도시에는 유기견이 많습니다.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표시로 귀에 노란 태그가 달려 있고, 성격이 순한 편입니다. 그러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덩치 큰 개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광경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거나 다가와도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치기와 도난

심각한 범죄는 드물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올드타운이나 지하철, 벵시시장 등에서는 소매 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하고, 가방은 앞으로 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 대처

조지아의 긴급 전화번호는 112입니다. 경찰, 소방, 구급 서비스를 모두 이 번호로 연결할 수 있으며, 영어 통화가 가능합니다. 트빌리시에는 외국인 여행자를 돕는 관광 경찰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지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건강 및 상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입국 시 영문으로 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안전한 대안 루트

분쟁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조지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헤티의 포도밭, 카즈베기의 만년설, 스바네티의 중세 탑, 바투미의 흑해 해변 등 안전한 지역에 볼거리가 넘칩니다.

다만 몇몇 인기 있는 트레킹 코스는 행정경계선 근처를 지나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즈베기 인근의 트루소 밸리(Truso Valley)는 남오세티야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지는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국경 수비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트빌리시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제게 해준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행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조지아를 즐기다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언젠가 압하지야의 해변도, 초헌발리의 산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라. 필수 조지아어 회화와 알파벳 읽기

조지아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유럽어도 아니고, 튀르크어도 아니고, 페르시아어나 아랍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조지아어는 카르트벨리어족(Kartvelian Languages)이라는 작은 어족에 속하는데, 이 어족에 속한 언어는 조지아와 그 주변에서만 사용됩니다. 5,000년 전부터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온 언어입니다.

(1) 33개의 알파벳,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자

조지아어는 고유한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므헤드룰리(Mkhedruli)라고 불리는 이 문자 체계는 33개의 자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14개 밖에 없는 독자적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조지아 문자를 처음 보면 마치 꼬불꼬불한 국수 가락이나 춤추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이 많아 로마자나 키릴 문자와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첫 글자든 중간 글자든 모두 같은 형태로 씁니다.

조지아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파르나바즈(Pharnavaz) 왕이 창제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5세기경 기독교 전파와 함께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기원이든, 조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민족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알파벳 읽는 법

조지아어 알파벳은 발음과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됩니다. 영어처럼 같은 철자가 다르게 발음되는 불규칙성이 적습니다. 글자를 익히면 읽는 것 자체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문 제는 뜻을 모른다는 것이지만, 간판이나 표지판 정도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 글자들을 소개합니다.

모음 (5개)

(a): '아' 소리. 가장 많이 쓰이는 모음입니다.

(e): '에' 소리.

(i): '이' 소리.

(o): '오' 소리.

(u): '우' 소리.

자주 보이는 자음

(g): '그' 소리. 조지아(Georgia)를 뜻하는 사카르트벨로()의 첫 글자입니다.

(d): '드' 소리.

(t): '트' 소리. 트빌리시()의 첫 글자입니다.

(m): '므' 소리.

(n): '느' 소리.

(r): '르' 소리. 혀를 굴리는 발음입니다.

(s): '스' 소리.

(b): '브' 소리.

(l): '을' 소리.

(v): '브' 소리에 가깝습니다.

(k): '크' 소리.

조지아어의 특징 중 하나는 자음이 연속으로 여러 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므츠바네 (, 초록색)처럼 자음이 네 개나 연속으로 나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트빌리 시 ()도 't-b'로 시작하는데, 한국어 화자에게는 발음하기 까다롭습니다.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조지아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3) 여행자를 위한 필수 회화

조지아의 관광지과 대도시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영어가 통하는 편입니다. 나이 든세대나 시골에서는 러시아어가 더 잘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지아어로 인사 한마디를 건네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굳어 있던 표정이 환하게 펴지고, 갑자기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기본 인사

가마르조바 (Gamarjoba,) - "안녕하세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가마르조바'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승리를 빕니다"라는 뜻입니다. 조지아인들이 외부 세력의 침략에 맞서 싸워온 역사가 인사말에 녹아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게에 들어갈 때, 식당에서 자리에 앉을 때 "가마르조바"라고 하면 됩니다.

나흐밤디스 (Nakhvamdis,) - "안녕히 가세요/계세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들로바 (Madloba,) -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더 강조하고 싶으면 "디디 마들로바(Didi Madloba)"라고 하면 됩니다. '디디'는 '큰'이라는 뜻이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아라 그마들로브트 (Ara gmadlobt,) - "천만에요"

상대방이 감사를 표했을 때 대답하는 말입니다.

보디시 (Bodishi,) - "죄송합니다/실례합니다"

사과할 때나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로고르 하르? (Rogor khar?, ?) -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친한 사이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기본 대화

키 (Ki,) / 아라 (Ara,) - "네 / 아니요"

긍정과 부정의 대답입니다. '호(Ho)'도 '네'의 의미로 쓰입니다.

사카르트벨로 (Sakartvelo,) - "조지아"

조지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Georgia'는 외부에서 붙인 이름이고, 스스로는 '사카르트벨로'라고 부릅니다. '카르트벨리(Kartveli)'는 '조지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드 아리스 ____? (Sad aris ____, __?) - "____ 어디예요?"

길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빈칸에 찾는 장소를 넣으면 됩니다.

라 기르스 에스? (Ra ghirs es?, ?) - "이거 얼마예요?"

시장이나 가게에서 가격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메뉴 그트호브트 (Menu gtxovt,) - "메뉴 주세요"

식당에서 사용합니다.

안가리시 그트호브트 (Angarishi gtxovt,) - "계산서 주세요"

식사 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음식 관련 표현

게므리엘리아! (Gemrielia!, !) - "맛있어요!"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인에게 큰 칭찬이 됩니다.

가우마르조스! (Gaumarjos!, !) - "건배! / 승리를 위하여!"

술자리에서 잔을 부딪칠 때 외치는 말입니다. 수프라에서 가장 많이 들게 될 표현입니다.

그비노 (Gvino,) - "와인"

조지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수프라 (Supra,) - "연회/식탁"

타마다 (Tamada,) - "건배 제의자"

긴급 상황

다흐마레바! (Dakhmareba!, !) - "도와주세요!"

폴리치아 (Politsia,) - "경찰"

에크이미 (Ekimi,) - "의사"

사아포테카 사드 아리스? (Saapoteka sad aris?, ?) - "약국이 어디에 요?"

(4) 숫자 읽기

기본적인 숫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 (에르티, Erti)

2: (오리, Ori)

3: (사미, Sami)

4: (오토히, Otkhi)

5: (후티, Khuti)

10: (아티, Ati)

100: (아시, Asi)

조지아의 화폐 단위는 라리(Lari,)입니다. 1라리는 100테트리(Tetri,)입니다.

(5) 발음의 어려움과 극복

조지아어 발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속된 자음입니다. 영어나 한국어 화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음 조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트빌리시()의 첫 소리는 't'와 'b'가 모음 없이 바로 이어집니다.

완벽한 발음을 추구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외국인이 자기네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높이 평가합니다. 서툰 발음으로 "가마르조바"라고 인사하면 틀린 부분을 친절하게 고쳐주면서 환하게 웃어줄 것입니다.

트빌리시의 한 카페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말하면 그냥 손님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어로 인사하면 친구가 됩니다. 단어 하나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조지아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앱으로는 듀오링고(Duolingo)가 있고, 구글 번역기도 조지아어를 지원합니다. 여행 전에 기본 표현을 연습해두면 현지에서의 경험이 훨씬 풍부해질 것입니다.

실전 여행 노트의 정보들이 조지아라는 낯선 땅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와 일정표는 여행의 뼈대를 잡아주지만, 진정한 여행은 계획에 없던 순간에 찾아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만난 동네 빵집에서, 우연히 초대받은 수프라 자리에서, 서툰 조지아어로 건넨 인사에 돌아온 환한 미소에서 조지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7장 8,000년 문명의 교차로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2부 역사와 정체성

가. 콜키스와 황금양털 신화의 땅

조지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기록된 역사 그 이전, 신화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흑해 동쪽 연안에 자리 잡은 서부 조지아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콜키스(Colchis)'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 고대 세계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신비와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손꼽히는 대모험, 이아손(Jason)과 아르고 원정대(Argonauts)가 황금 양털(Golden Fleece)을 찾아 떠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의 왕자 이아손은 빼앗긴 왕위를 되찾기 위해 숙부로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부여받습니다. 세상 끝에 있다고 전해지는 콜키스 왕국으로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아손은 당대 최고의 영웅 50 명을 모아 아르고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콜키스는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의 아들인 아이에테스(Aeëtes)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아이에테스 왕은 이아손에게 세 가지 불가능한 시험을 내립니다. 불을 뿜는 황소로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심어 솟아나는 전사들을 물리치며, 잠들지 않는 용이 지키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딸이자 마법에 능통한 공주 메데이아(Medea)가 이아손과 사랑에 빠집니다. 메데이는 마법의 연고와 약초를 이아손에게 주어 시험을 통과하게 도왔고, 함께 그리스로 도주합니다.

이 신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 발견과 역사적 연구는 황금 양털 전설이 고대 조지아의 실제 관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바네티(Svaneti)를 비롯한 코카서스 산악 지역의 주민들은 강물에서 사금(沙金)을 채취할 때 양가 죽을 사용했습니다. 촘촘한 양털 사이로 무거운 금 알갱이들이 걸러지는 원리였습니다. 강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었던 양가죽을 들어 올려 햇빛에 말리면 금빛으로 번쩍이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으로 된 양털'이라는 전설의 기원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 사이에 이 지역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금속 공예와 야금술이 존재했습니다. 조지아 서부 바니(Vani) 지역에서 지난 100여 년간 진행된 발굴 조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의 사원 장신구, 정교하게 세공된 금 목걸이와 팔찌, 그리고 청동 상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유물들은 당시 콜키스가 얼마나 번영했던 문명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콜키스 왕국의 수도는 오늘날 조지아 제2의 도시인 쿠타이시(Kutaisi)로 추정됩니다. 쿠타 이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리오니(Rioni) 강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시스(Phasis)'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강입니다. 이 강을 따라 흑해와 내륙을 잇는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리스 상인들과의 교류가 빈번했습니다.

쿠타이시 시내 중앙 광장에는 2011년에 세워진 '콜키스 분수(Colchis Fountain)'가 있습니다. 이 분수는 바니 유적지 등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황금 장신구들을 확대하여 만든 30 여 개의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사자 형상, 말 조각, 그리고 술잔을 높이 든 타마다(Tamada, 연회의 사회자) 등의 형상이 분수 위에서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이 조각들은 당시 조지아인들의 금세공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화려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메데이아 공주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약초와 독을 다루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의학(Medicine)'이라는 단어가 메데이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정 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대 세계에서 콜키스 지역이 약초와 치유술로 명성이 높았 다는 점입니다. 흑해 연안의 바투미(Batumi) 유럽 광장에는 황금 양털을 손에 든 메데이아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조지가 고대 유럽 문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콜키스의 지리적 환경은 고대 문명이 번성하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흑해 동쪽 연안에서 코카서스 산맥 남서 사면에 이르는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4,000밀리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아열대성 우림과 습지가 형성되어 밀과 기장 재배가 가능했고, 소와 말 목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풍부한 철과 금 광산, 벌꿀과 목재 수출은 이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는 기원전 5세기에 콜키스인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콜키스인들이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가졌다고 묘사하며 이집트인과의 유사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의 정확성은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콜키스가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땅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콜키스 왕국은 기원전 6세기경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후기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기원전 8세기에는 우라르투(Urartu) 제국의 기록에 '쿨하(Qulha)'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가 독립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원전 83년에는 폰투스(Pontus)의 미트리다테스 6세에게 병합되었고, 기원전 65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콜키스 지역에는 여러 그리스 식민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수후미(Sukhumi)에 해당하는 디오스쿠리아스(Dioscurias), 포티(Poti)에 해당하는 파시스(Phasis)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도시들은 흑해 무역의 거점으로 번영했습니다. 콜키스는 이후 라지 카(Lazica) 왕국으로 이어지며 비잔틴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 사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신화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들은 코카서스 지역을 전설적인 여성 무사 집단인 아마존(Amazons)의 거주지와 연관 짓기도 했습니다. 고대 지리학자 스트라보(Strabo)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Plutarch)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존족은 코카서스 산맥 인근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유럽 여행자들의 기록에도 이 지역 여성들이 말을 잘 타고 무기를 다루며 전투에 참여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합니다. 이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생존하고 외세에 맞서야 했던 조지아 여성들의 강인한 기질이 신화와 결합하여 전승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콜키스 문명은 조지아 서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입니다. 오늘날 조지아인들은 스스로를 이 고대 문명의 직계 후손으로 여깁니다. 쿠타이시의 콜키스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바투미의

메데이아 동상 아래서 약속을 잡는 연인들, 그리고 바니 박물관에서 황금 유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수천 년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이 땅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차로로서고 대부터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나.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의 탄생

조지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와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조지아는 서기 337년(일부 기록에는 32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가 301년에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고, 조지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 혹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지아 동부의 이베리아(Iberia) 왕국은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기독교 수용은 페르시아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로마(비잔틴) 제국과 연대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700년 가까이 이슬람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조지아가 기독교 신앙과 독자적인 문자,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이때 내린 선택 덕분입니다.

조지아의 기독교화는 한 여성의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녀 니노(St. Nino, 그리스어로는 니나)는 카파도키아(오늘날 튀르키예 중부) 출신의 여성 전도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모는 니노에게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주며 이베리아 왕국(당시 동부 조지아의 명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습니다. 니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포도나무 가지 두 개를 묶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십자가(Grapevine Cross)'는 일반적인 십자가와 형태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양팔 부분이 아래로 살짝 처져 있어 마치 포도넝쿨이 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는 오늘날 조지아 정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지아인들의 신앙과 와인 문화가 하나로 결합된 상징물인 셈입니다. 트빌리시의 시오니 대성당(Sioni Cathedral)에는 성녀 니노의 포도나무 십자가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니노가 이베리아 왕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먼저 왕비 나나(Queen Nana)와 만나게 됩니다. 왕비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니노는 기도로 왕비의 병을 고쳤고, 이에 감화된 나나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왕 미리안 3세(King Mirian III)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미리안 3세가 사냥을 나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섬기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박해진 왕은 니노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 후 미리안 3세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곧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에 덧붙여진 전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4세기 초반에 이베리아 왕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미리안 3세는 콘스탄티노플로 사절을 보내 교회 건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비잔틴 제국은 성직자와 교회 건축 기술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기독교 수용의 무대가 된 곳이 므츠헤타(Mtskheta)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북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이 도시는 조지아의 옛 수도입니다. 조지아인들은 므츠헤타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므츠헤타의 중심에는 11세기에 재건된 스베티츠호벨리 대성당(Svetitskhoveli Cathedral)이 있습니다. '스베티츠호벨리'는 조지아어로 '생명을 주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전설이 얹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입었던 성의(聖衣, Robe of Christ)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므츠헤타 출신의 유대인 엘리오즈(Elioiz)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로부터 예수의 옷을 구입하여 고향으로 가져왔습니다. 엘리오즈의 누이 시도니아(Sidonia)가 그 옷을 손에 쥔 순간, 성스러운 감동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그녀의 손에서 떼어낼 수 없었고, 결국 시도니아는 성의와 함께 묻혔습니다. 후에 그 무덤 위에서 거대한 삼나무가 자라났고, 이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스베티츠호벨리 대성당은 역대 조지아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된 장소입니다. 왕들의 장례도 이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이 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민족의 심장이자 가장 신성한 성소입니다.

스베티츠호벨리 대성당(Svetitskhoveli Cathedral)

므츠헤타를 내려다보는 산 정상에는 6세기에 건축된 즈바리 수도원(Jvari Monastery)이 있습니다. '즈바리'는 조지아어로 '십자가'를 뜻합니다. 이곳은 성녀 니노가 처음으로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세웠던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이교도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즈바리 수도원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조지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쿠라강(조지아어로 므트크바리, Mtkvari)과 아라그비(Aragvi) 강이 만나는 지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두 강물은 색깔이 달라서 합류 지점에서도 한동안 섞이지 않고 나란히 흐릅니다. 19세기 러시아 시인 미하일 레르몬토프(Mikhail Lermontov)는 이 풍경을 보고 서사시 《므치리(Mtsyri)》를 썼습니다.

조지아 기독교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6세기에 시리아에서 온 '13인의 아시리아 교부(Thirteen Assyrian Fathers)'들입니다. 이들은 조지아 각지에 수도원을 세우고 기독교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다비드 가레자(David Gareja)는 이들 중 한명인 성 다비드가 세운 수도원 복합 단지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국경 지대에 있는 이

수도원은 사막처럼 메마른 바위산에 굴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한때 5,000명의 수도사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서부 조지아의 기독교화는 동부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에 라지카(Lazica) 왕국(콜키스의 후신)이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비잔틴 제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5세기에는 조지아 기독교가 심각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조지아에 조로아스터교를 강요했습니다. 바흐탕 1세 고르가살리(Vakhtang I Gorgasali) 왕은 이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트빌리시를 수도로 정하고 조지아 정교회의 독립적 지위(자치교 회, Autocephaly)를 확보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는 이후 수백 년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과 연계되어 있다가 5세기경(혹은 그 이후) 자치교회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종교적 박해의 역사는 조지아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랍 이슬람 세력의 침략(7세기 이후), 몽골의 지배(13세기), 오스만 튀르크와 사파비 페르시아의 압박(15~18세기) 속에서도 조지아인들은 교회를 요새처럼 지켰습니다. 전쟁이 나면 교회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고, 성물과 보물을 숨기는 금고가 되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올드타운에 가면 좁은 골목 안에 여러 종교 시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 성당,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가톨릭 성당, 유대교 시나고그, 그리고 이슬람 모스크가 걸어서 몇 분 거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종교적 포용성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조지아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정교회 신자입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마다 가족 단위의 신자들이 붐빕니다. 세례, 결혼,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가 함께합니다. 기독교는 조지아인들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1,700년 동안 민족을 하나로 묶어온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다. 타마르 여왕의 황금시대와 몽골의 침략

조지아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묻는다면, 조지아인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까지 이어진 '황금시대(Golden Age)'입니다. 이 시기에 조지아는 코카서스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고, 흑해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을 피웠고, 조지아 문학사의 정점이라 할 서사시가 탄생했습니다.

황금시대의 문을 연 인물은 다비드 4세(David IV, 1073~1125)입니다. '아그마세네벨리(Aghmashenebeli)', 즉 '건설왕'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지아는 셀주크 튀르크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적의 수중에 있었고, 수도 트빌리시마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다비드 4세는 군사력을 재건하고 내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는 킵차크 튀르크 유목민들을 조지아로 이주시켜 군대의 핵심 전력으로 삼았습니다. 1121년 8월 12일, 다비드 4세는 트빌리시 인근의 디드고리(Didgori)에서 셀주크 튀르크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적군의 수는 조지아군의 네 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4세의 전술적 천재성과 조지아 병사들의 용맹함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이 전투를 '기적의 승리(Dzlevai Sakvirveli)'라고 부릅니다.

디드고리 전투 이듬해인 1122년, 다비드 4세는 마침내 트빌리시를 탈환했습니다. 400년 만에 조지아의 수도가 조지아인의 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정복에 그치지 않고 건설에 힘썼습니다. 쿠타이시 인근에 겔라티 수도원(Gelati Monastery)을 창건하여 당대 최고의 교육 기관이자 과학, 철학의 중심지로 육성했습니다. 겔라티 수도원은 '아테네의 아카데미'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비드 4세의 손녀가 바로 타마르 여왕(Queen Tamar, 1160년경~1213)입니다. 그녀의 통치 시기(1184~1213)에 조지아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타마르는 조지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게오르기 3세(Giorgi III)는 딸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생전에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마르는 탁월한 지혜와 외교술, 군사적 리더십으로 반대파를 제압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그녀를 '여왕(Queen)'이 아닌 '왕(King, 조지아어로 메페 Mepe)'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지아어에서 군주를 뜻하는 단어에는 원래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호칭에는 그녀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타마르의 첫 번째 결혼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키예프 루스(오늘날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보골류브스키(Yuri Bogolyubsky) 공자와 결혼했으나, 이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유리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타마르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것입

니다. 중세 시대에 여성이, 그것도 군주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오세티아 출신의 다비드 소슬란(David Soslan)이었고, 이번 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타마르 여왕의 통치 아래 조지아의 영토는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동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일부, 그리고 이란 북부까지 조지아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1204년에는 콘스탄티노폴을 점령한 제4차 십자군의 혼란을 틈타 트레비존드(Trebizond) 제국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트레비존드의 왕조는 타마르의 친척이었고, 이 제국은 조지아의 속국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도 이어졌습니다. 1202년 바시아니(Basiani)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 술탄국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1210년에는 아르다빌(Ardabil)까지 진격했습니다. 조지아군은 타브리즈(Tabriz)를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 조지아는 명실상부한 코카서스의 패권 국이었습니다.

타마르 여왕의 시대는 군사적 팽창만이 아니라 문화적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 쇼타 루스타벨리(Shota Rustaveli)의 서사시 《호피를 두른 용사(Vepkhistaosani, The Knight in the Panther's Skin)》입니다. 이 작품은 인류애, 우정, 사랑을 노래하며 조지아 문학사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작품의 헌정 대상이 타마르 여왕이었습니다.

루스타벨리는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작품의 유명한 구절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자 새끼는 사자입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 구절은 타마르 여왕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한 지도자는 그 능력으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건축에서도 놀라운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부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절벽을 깎아 만든 거대한 동굴 도시 바르지아(Vardzia)가 이 시기에 완공되었습니다. 바르지아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동굴을 연결하는 터널과 계단, 교회와 예배당, 저장고와 관개 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였습니다.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르지아의 성모 승천 교회에는 타마르 여왕의 생전 모습이 담긴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실제 외모를 엿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료 중 하나입니다.

1213년 타마르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녀의 무덤 위치는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매장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겔라티 수도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타마르 사후 조지아는 아들 게오르기 4세(Giorgi IV Lasha)가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황금시대의 종말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정복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20년대,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코카서스에 도달했습니다. 1221년 몽골 선봉대가 조지아를 처음 공격했을 때, 게오르기 4세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왕위는 타마르의 딸 루수단(Rusudan)에게 넘어갔습니다.

1226년에는 호라즘 왕조의 술탄 잘랄 웃 딘(Jalal ad-Din)이 몽골을 피해 서쪽으로 도주하다가 트빌리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에게 잔혹한 시험을 강요했습니다. 쿠라강 다리 위에 성화(聖畫, Icon)를 놓고 조지아인들에게 이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 주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만 명의 조지아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대신 죽음을 택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0만 순교자의 다리'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이야기는 조지아인들의 신앙심과 저항 정신을 상징합니다.

1236년 몽골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1243년 루수단 여왕은 몽골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조지아는 몽골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인구는 급감했고, 도시와 수도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14세기에는 잠시 회복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게오르기 5세(Giorgi V, '광명왕'이라는 별칭)가 재위하던 1314~1346년 사이에 조지아는 몽골의 약화를 틈타 독립을 회복하고 영토를 재통합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386년부터 1403년 사이, 중앙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Tamerlane)가 조지아를 여덟 차례나 침공했습니다. 티무르의 침략은 몽골보다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도시들이 불탔고, 인구가 학살당했으며, 문화재가 약탈당했습니다. 바르지아 동굴 도시도 이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과 침략의 이중고로 동굴의 상당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티무르 침공 이후 조지아는 다시는 통일 왕국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5세기 후반에 조지아는 여러 개의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동부의 카르틀리(Kartli)와 카헤 티(Kakheti), 서부의 이메레티(Imereti), 그리고 산악 지역의 스바네티(Svaneti), 사메그렐로(Samegrelo) 등이 각각 독자적인 정치 단위로 존속했습니다.

분열된 조지아는 두 거대 이슬람 제국, 오스만 튀르크와 사파비 페르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두 제국은 조지아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었고, 조지아인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구 유출, 노예 무역, 강제 개종 등이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코쉬키(Koshki)'라는 방어 탑을 쌓았습니다. 교회를 지키며 신앙과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스바네티와 같은 고립된 산악 마을들은 중세의 문화를 거의 원형 그대로 간직한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타마르 여왕의 시대는 조지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광의 기억입니다.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수백 년간의 고난 속에서도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지아의 거리와 광장, 학교와 기업에는 타마르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조지아 화폐에도

그녀의 초상이 등장합니다. 황금시대의 여왕은 여전히 조지 아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라.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의 그림자

수백 년간 오스만 튀르크와 사파비 페르시아(이란)의 위협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조지아는 생존을 위해 북쪽의 거대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정교회 신앙을 공유하는 러시아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조지아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조지아의 운명을 또 다른 비극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지아는 극도로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끊임없는 침략, 내부의 분열, 인구 감소로 나라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부 조지아의 카르 틀리-카헤티(Kartli-Kakheti) 왕국을 다스리던 에레클레 2세(Erekle II)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1783년 에레클레 2세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와 게오르기예프스크 조약(Treaty of Georgievsk)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조지아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대신 외교권을 러시아에 위임했습니다. 조지아는 내정의 자치권을 유지하되, 대외 관계는 러시아를 통해야 했습니다. 에레클레 2세는 이 조약이 조지아의 독립과 안보를 동시에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1795년 페르시아의 아가 모하마드 칸(Agha Mohammad Khan) 이 대군을 이끌고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트빌리시를 점령하고 도시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있어야 했지만, 러시아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에레클레 2세는 파괴된 수도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는 1798년 사망했고, 뒤를 이은 게오르기 12세(Giorgi XII)는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게오르기 12세는 조지아를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대신 왕실의 지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 그가 사망하자, 러시아 황제 파벨 1세(이어서 알렉산드르 1세)는 조지아 왕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1801년(일부 기록에는 1802년) 러시아 제국은 카르틀리-카헤티 왕국을 병합했습니다. 조지아의 왕통은 끊어졌습니다. 바그라티오니 왕조의 왕족들은 러시아로 추방되거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1810년에는 서부 조지아의 이메레티 왕국도 병합되었고, 이후 구리아(Guria), 사메그렐로(Samegrelo), 스바네티(Svaneti) 등이 차례로 러시아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통치는 조지아의 정체성을 억압했습니다. 1811년 러시아 제국은 조지아 정교회의 독립적 지위(자치교회, Autocephaly)를 박탈하고 러시아 정교회에 종속시켰습니다. 조지아어 대신 러시아어가 공식 언어로 강요되었습니다. 조지아의 귀족들은 러시아화 정책에

에 저항했지만, 무력으로 진압당했습니다. 1832년에는 대규모 반란 음모가 발각되어 참여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조지아를 남쪽으로 팽창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습니다. 코카서스 전쟁(1817~1864)을 통해 체첸, 다게스탄 등 북코카서스 지역을 정복했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역도 페르시아와 오스만 튀르크로부터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빌리시와 러시아 블라디캅

카스를 잇는 조지아 군사 도로(Georgian Military Highway)가 건설되었습니다. 군대와 물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로였습니다. 오늘날 이 도로는 역설적이게도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 루트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통치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 문화가 유입되고 근대 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대리인(Viceroy)이 머물던 트빌리 시는 유럽풍의 건축물과 문화가 도입되면서 '동방의 파리'와 같은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철도가 놓였고, 학교와 극장이 세워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조지아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했습니다. 일리아 차브차바제(Ilia Chavchavadze, 1837~1907)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언론인, 정치 활동가로서 조지아어와 문화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에나(Ena, 언어), मामुरи(Mamuli, 조국), სრტმუნება(Sartsmuneba, 신앙)”

언어, 조국, 신앙. 이 세 가지가 조지아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차브차바제는 조지아어 문학의 발전, 농민 교육, 민족 의식 고양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1907년 암살당했습니다. 배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의 민족주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조지아 정교회는 2012년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조지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1918년 5월 26일, 조지아는 독립을 선언하고 조지아 민주공화국(Georgian Democratic Republic)을 수립했습니다. 유럽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정부 중 하나였습니다. 노에 조르다니아(Noe Zhordania)가 이끄는 정부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확립하며, 토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독립 조지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21년 2월, 붉은 군대(Red Army)가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조지아 내부의 볼셰비키 봉기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에 의한 침략이었습니다. 조지아군은 용감히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3월 조지아 정부는 수도를 버리고 바투미로 후퇴했다가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조지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자캅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SFSR)에 속했다가, 1936년부터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Georgian SSR)으로 독자적인 연방 구성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련의 최고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본명 이오세브 주가슈빌리)은 조지아의 고리(Gori) 출신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조지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고, 조지아 정교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지아 민족주의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지아의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은 대숙청(Great Purge)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수많은 작가, 예술가, 정치인, 성직자들이 처형당하거나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굴라그)로 보내졌습니다.

소비에트 시기에 조지아는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철도와 공장이 건설되었고, 문맹률이 감소했습니다. 바투미는 석유 수출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탄압, 종교 박해, 정치적 억압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지아인들의 희생은 막대했습니다. 인구의 약 20퍼센트에 달하는 70만 명이 참전했고, 그중 30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장군들이 소련군의 주요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스탈린의 사후(1953년) 조지아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표출되었습니다. 1956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하자, 트빌리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스탈린을 옹호했고, 일부는 민족주의적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소련군이 발포하여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민족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978년 소련 정부가 조지아어의 공식 언어 지위를 박탈하려 하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습니다. 결국 소련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승리는 조지아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고리에는 오늘날에도 스탈린 박물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작은 오두막, 전용 열차, 그리고 그의 생애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스탈린은 '작은 나라 조지아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자부심과 '수백만 명을 죽인 독재자'라는 수치심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양가감정은 세대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1980년대 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과 함께 소련의 해체가 가시화되면서 조지아 내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1989년 4월 9일, 트빌리시의 루스타벨리 대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소련군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삼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독가스를 살포했습니다. 21명이 사망했고,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4월 9일 비극'으로 불리며, 조지아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1991년 4월 9일, 조지아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전에 탈퇴한 최초의 공화국 중 하나였습니다. 첫 대통령은 민족주의 운동가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였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사후르디아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1991~1992년 내전이 발생하여 그는 축출되었고,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전 소련 외무장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범죄와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분쟁에 개입하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1992~1993년 압하지야 전쟁의 결과, 25만 명에 달하는 조지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국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2003년 장미혁명(Rose Revolution)으로 셰바르드나제 정부가 무너지고,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남오세티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5일간의 전쟁에서 조지아군은 패배했고, 러시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독립국으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조지아 영토의 약 20퍼센트가 사실상 점령 상태에 있습니다.

남오세티야 인근에서는 오늘날에도 국경 철조망이 야금야금 조지아 땅으로 밀고 들어오는 '움직이는 국경(Creeping Border)'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포도밭이

점령 지역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니 다.

조지아는 유럽연합(EU)과 NATO 가입을 목표로 서구 사회와의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곳곳에 걸린 EU 깃발과 우크라이나 국기는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조지아인들의 치열한 열망을 대변합니다.

조지아의 역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투쟁해 온 기록입니다. 페르시아와 오스만, 몽골과 티무르,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 숭한 정복자들이 이 땅을 짓밟았지만, 조지아인들은 언어와 신앙,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작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민족의 서사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8장 언어와 문자, 영혼의 저력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33개 알파벳, 유네스코가 인정한 독자 문자

조지아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낯선 문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들은 아랍어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닙니다. 마치 포도나무 덩굴이 서로 얽혀 춤을 추는 듯한 곡선들. 어떤 글자는 코카서스 산맥의 봉우리를 닮았고, 어떤 글자는 흐르는 강물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아 알파벳,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고유한 문자 체계를 보유한 언어는 14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글, 히브리 문자, 그리스 문자 등이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조지아 문자는 바로 이 희귀한 문자 가문의 일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지아어는 그 어떤 주요 언어 계통과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 않고, 투르크어족이나 셈어족과도 무관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조지아어를 카르 트벨리어족(Kartvelian Languages) 또는 남코카서스어족이라 부르는데, 이 어족에 속한 언어는 조지아어와 그 친척뻘인 메그렐어, 스반어, 라즈어 네 개뿐입니다. 말하자면 조지아 어는 광대한 언어의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현대 조지아 알파벳은 3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자는 하나의 소리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쓰인 대로 읽고, 들리는 대로 쓰면 됩니다.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따로 노는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문법에서 성별(Gender)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그녀"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할 때는 중립적인 단어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조지아어 발음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자음이 세 개, 네 개, 심지어 다섯 개까지 연달아 나오는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물"을 뜻하는 단어 츠칼리(Tskali)만 해도 ts-k-a-l-i로 시작부터 자음이 연속됩니다. "그가 우리의 껍질을 벗겼다"를 의미하는 동사 가브르츠크브니스(Gvprtskvnis)는 발음하려면 혀가 꼬일 지경입니다. 조지아인들은 이런 복잡한 자음군을 아무렇지 않게 발음하며, 외국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지아 문자의 역사는 기독교의 전래와 궤를 같이합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성경을 조지아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문자 체계가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조지아 문자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거쳐 진화해 왔습니다. 이 세 형태가 모두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는 점이 세계 문자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아솜타브룰리(Asomtavruli)입니다. 5세기경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형태로, 둥글둥글한 기하학적 모양이 특징입니다. 주로 비석이나 교회 벽면, 성경 필사본의 제목에

사용되었습니다. 트빌리시 주변의 고대 교회나 수도원을 방문하면 돌에 새겨진 아솜타브 룰리 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00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두 번째는 누스후리(Nuskhuri)입니다. 9세기경부터 등장한 이 문자는 좀 더 각지고 연결된 필기체 형태를 띠니다. 수도승들이 양피지에 빠르게 필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주로 종교 문헌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숨타브룰리와 누스후리는 함께 사용되어 전자가 대문자 역할을, 후자가 본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합을 후츠리(Khutsuri), 즉 “성직자의 문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오늘날 조지아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므헤드룰리(Mkhedruli)입니다. “기사의 문자”라는 뜻을 가진 이 서체는 11세기경부터 세속적인 영역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칙령, 상업 문서, 개인 편지 등에 사용되다가 점차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므헤드룰리는 흐르는 듯한 곡선이 특징이며, 현대 조지아의 간판, 책, 신문, 인터넷 모든 곳에서 이 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자가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알파벳 순서와 문자 이름을 공유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마치 한 가족의 삼 형제가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같은 피를 나눈 것처럼, 이 세 문자는 조지아어라는 하나의 영혼을 담는 서로 다른 그릇입니다.

2016년, 유네스코(UNESCO)는 “조지아 문자의 세 가지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 of three writing systems of the Georgian alphabet)”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단일 언어 내에서 세 가지 문자 체계가 수세기 동안 소멸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며 공존해 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아숨타브룰리는 여전히 기념비적 용도로, 누스후리는 종교 의식에서, 므헤드룰리는 일상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단절되지 않고 층층이 쌓여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성 덕분에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조지아의 어린이들이 11세기에 작성된 고문서를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천 년 전의 글이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이해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화자가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을 읽기 어려운 것과 비교하면, 조지아 문자의 놀라운 안정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언어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20세기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지아어 교육이 제한되고, 공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언어가 억압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질식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1978년 4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련 당국이 조지아 헌법에서 조지아어를 국어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빌리시 거리로 수천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라고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점점 불어났고,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소련 당국은 물러섰습니다. 조지아 어의 국어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철의 장막 시절, 소련의 결정을 뒤집은 시민 저항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4일은 “조지아 모국어의 날”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트빌리시 시내에는 데다 에나(, Deda Ena) 공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은 듯한 형상의 언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1978년 그 승리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흑해 연안 도시 바투미(Batumi)에는 더욱 인상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130미터 높이의 알파벳 타워(Alphabet Tower)입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형상화한 이 탑의 표면에는 33개의 조지아 알파벳 거대한 글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밤이면 조명이 켜져 바투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합니다. 이 타

워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지아 문자는 조지아인의 DNA 그 자체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수천 년간 강대국들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영혼의 요새”입니다.

나. 쇼타 루스타벨리와 『호피를 두른 용사』

조지아 어디를 가든 한 남자의 이름과 마주치게 됩니다. 트빌리시의 메인 도로는 그의 이름을 땀고, 지하철역에도, 극장에도, 심지어 지폐에도 그의 초상이 있습니다. 쇼타 루스타 벨리(, Shota Rustaveli). 12세기 조지아 황금시대를 살았던 이 시인은 단순한 문인이 아닙니다. 그는 조지아 정신의 기둥이자,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조지아 인의 가슴에 살아 숨 쉬는 영혼입니다.

루스타벨리가 활동한 12세기 후반은 조지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여성 군주 타마르 여왕(Queen Tamar, 재위 1184~1213)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조지아 왕국은 코카서스 전역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트빌리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이 황금시대의 정점에서 루스타벨리는 그의 필생의 역작 『호피를 두른 용사(, Vepkhistqaosani)』를 완성하여 타마르 여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서사시는 약 1,600개의 4행 연구(quatrain)로 이루어진 방대한 작품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라비아 왕국의 공주 티나틴(Tinatin)은 용맹한 기사 아브탄딜(Avtandil)을 사랑합니다. 어느 날 왕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호피(표범 가죽)를 두르고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타리엘(Tariel)입니다. 그는 인도 왕국의 왕자로, 사랑하는 여인 네스탄-다레잔(Nestan-Darejan)이 악한 무리에게 납치당해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티나틴은 아브탄딜에게 타리엘을 돕도록 명합니다. 아브탄딜은 수년간의 모험 끝에 타리엘을 찾아내고, 두 기사는 굳은 우정을 맺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기사 프리돈(Pridon)이 합류합니다. 세 친구는 힘을 합쳐 악의 요새를 공격하고 네스탄-다레잔을 구출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입니다.

이 줄거리만 보면 중세의 여느 기사도 로맨스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호피를 두른 용사』가 800년 동안 조지아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은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철학 때문입니다.

루스타벨리는 우정의 신성함을 노래했습니다. 아브탄딜은 사랑하는 티나틴 곁을 떠나 미지의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오직 고통받는 타리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세 기사가 보여주는 헌신과 의리는 오늘날 조지 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경도 작품의 핵심입니다. 12세기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작품 속 여성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티나틴은 아브탄딜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주체 이고, 네스탄-다레잔은 감금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인물입니다. 루스타벨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자 새끼는 암수 모두 사자이니, 그 가치에 차이가 없노라.” (Lion cubs are equal, be they male or female.)

이 구절은 성 평등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군주 타마르 여왕 시대의 진보적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악에 맞서는 선의 승리”라는 주제도 관통합니다. 세 기사가 최종적으로 악의 요새를 무너 뜨리는 장면은 단순한 무력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우정, 사랑이라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어둠을 이긴다는 선언입니다. 조지아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외세 침략 속에서 이 메시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타리엘이 입은 호피(표범 가죽) 자체가 상징적입니다. 표범은 야성적 본능과 격렬한 열정을 나타냅니다. 타리엘은 사랑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호피를 두르고 광야를 헤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성을 되찾고 고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 내면의 야수적 충동을 통제하고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사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조지아 가정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갈 때 『호피를 두른 용사』 책을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영적 지침서로 여겨졌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어른들이 이 서사시의 구절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타리엘이 그랬듯이 우정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브탄딜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 헌신해라.” 루스타벨리의 시구는 조지아인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습니다.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영국의 동양학자 마저리 워드롭(Marjory Wardrop)은 1912년 최초의 영어 완역본을 펴내며 이 작품을 서양에 본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헝가리의 유명 화가 미하이 지치(Mihly

Zichy)는 작품에 감명받아 일련의 삽화를 그렸고, 이 삽화들은 오늘날 조지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루스타벨리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싼 전설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그가 타마르 여왕을 남몰래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시로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상심한 루스타벨리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 그곳의 십자가 수도원(Monastery of the Cross)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 수도원의 기둥에는 루스타벨리로 추정되는 인물의 프레스코화가 남아 있어 전설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트빌리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루스타벨리 대로(Rustaveli Avenue)는 약 1.5킬로미터에 걸쳐 국회의사당, 오페라 하우스, 국립 박물관, 극장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조지아의 정치와 문화가 이 거리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로의 시작점에는 루스타벨리의 동상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지하철 루스타벨리역 입구에도 그의 두상이 있습니다. 공항의 이름도 트빌리시 국제공항의 별칭이 “쇼타 루스타벨리 공항”입니다. 그는 8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지아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일리아 차브차바제, “조국·언어·신앙”의 정신

쇼타 루스타벨리가 중세 조지아의 정신적 지주라면, 근대 조지아의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리아 차브차바제(, Iliia Chavchavadze, 1837~1907).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조지아의 언어와 정체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펜을 들어 민족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1837년, 차브차바제는 카헤티 지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를 병합한 지 3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이 서서히 조지아 사회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었고, 공직에 진

출하려면 러시아어가 필수였습니다. 젊은 조지아 귀족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문화를 따르는 것이 “교양 있는” 행동으로 여겨 지는 분위기마저 퍼졌습니다.

차브차바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유학하며 러시아의 문화와 사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뿌리, 조지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각을 얻었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테르그달레울레비(Tergdaleulebi)”라는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테레크 강의 물을 마신 자들”이라는 뜻으로, 러시아에서 공부한 조지아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문화에 눈을 뗐지만 동시에 조지아인으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된 세대였습니다.

조지아로 돌아온 차브차바제는 문학, 언론, 교육, 금융 등 다방면에서 민족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세 단어로 압축됩니다.

마물리(, Mamuli) – 조국 에나(, Ena) – 언어 사르츠무노에바(, Sartsmunoeba) – 신앙

이 세 가지는 조지아인이 조지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조국(마물리)은 단순히 땅덩어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새겨진 터전, 선조들의 피와 땀이 스민 공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주체로서의 조지아를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언어(에나)는 차브차바제에게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민족이 언어를 잃으면, 그 민족은 죽은 것이다.” 러시아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지아어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문화 보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차브차바제는 1877년 신문 『이베리아(Iveria)』를 창간하여 조지아어로 기사를 썼습니다. 문맹 퇴치 협회(Society for the Spreading of Literacy among Georgians)를 설립하여 전국에 학교를 세우

고 조지아어 교과서를 보급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이 협회가 세운 학교는 50개를 넘었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조지아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앙(사르츠무노에바)은 조지아 정교회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는 4세기부터 조지아인을 하나로 묶어준 정신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아랍, 몽골, 페르시아, 오스만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은 정교회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차브차 바제는 교회를 민족 단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차브차바제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계몽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들은 조지아 농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사회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시 「은둔자(The Hermit)」는 물질주의에 물든 세상을 개탄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그는 교육의 중요성, 여성의 권리, 사회 정의를 역설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위협도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은 그를 온건파로 비난했습니다. 1907년 8월, 차브차바제는 초난달리에서 트빌리시로 향하는 길에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에게 습격당해 살해되었습니다. 향년

70세.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세비키 세력의 소행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의 죽음은 조지아 민족주의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오늘날 일리아 차브차바제는 조지아 정교회에 의해 "성 일리아 의인(Saint Ilia the Righteous)"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문인이자 정치가가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조지아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종교적 차원에 이릅니다.

트빌리시가 내려다보이는 음타츠민다 산(Mtatsminda)에는 판테온(Pantheon)이 있습니다. 조지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예술가, 학자들이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묘역입니다. 차 브차바제의 묘소가 이곳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지금도 그의 묘 앞에 꽃을 놓고 경의를 표합니다.

카헤티 지역의 츠난달리(Tsinandali)에는 차브차바제 가문의 영지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조지아 지식인들이 모여 문학을 논하고 유럽의 새로운 사상을 토론하던 살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과 역사적인 와이너리가 있어 여행자들의 필수 방문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포도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150년 전 이곳에서 조지아의 미래를 고민했던 청년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조국, 언어, 신앙." 차브차바제가 외친 이 세 가치는 오늘날에도 조지아의 국가적 모토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할 때, 2003년 장미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2020년대 유럽연합 가입을 향한 열망 속에서, 조지아인들은 언제나 차브차바제의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비전은 현대 조지아 헌법의 근간이 되었고, 유럽 통합을 향한 염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라. 다성 음악 폴리포니의 신비

조지아의 영혼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는 음악입니다. 그중에서도 "폴리포니(Polyphony)"라 불리는 다성 음악은 조지아 문화의 정수입니다. 이 음악을 처음 듣는 순간, 사람들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악기 하나 없이, 오직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어떻게 이토록 깊고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

폴리포니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멜로디 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어우러지는 음악 형식을 말합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폴리포니는 중세 교회 음악에서 발전하여 바흐의 푸가에서 절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훨씬 이전, 기원전 6~5세기부터 이미 복잡한 다성 음악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서양 음악이 단선율(Monophony)에서 화성 음악으로 발전하는 데 천 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조지아 폴리 포니의 기원은 수수께끼에 가깝습니다.

조지아 폴리포니는 보통 세 개의 성부로 구성됩니다.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 각각이 독립적인 멜로디를 노래하면서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때로는 네 개 이상의 성부가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악기 반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화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성당을 짓는 것 같습니다.

서양 화성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지아 폴리포니는 서양 음악 이론으로는 "불협화음"으로 분류될 소리들을 대담하게 사용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완벽한 해결로 이어지는 독특한 진행. 이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듣는 이에게 신비롭고 영적인 느낌을 선사합니다. 음악학자들은 이를 조지아 고유의 "화성 언어"라고 부릅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조지아 폴리포니를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정했습니다. 2008년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속 음악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보존해야 할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1977년, 미 항공우주국(NASA)은 보이저 1호와 2호 탐사선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에는 "골든 레코드(Golden Record)"라는 금박 음반이 실렸습니다. 언젠가 외계 문명이 이 탐사선을 발견했을 때, 지구와 인류를 소개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음반에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등 인류 최고의 음악 27곡이 수록되었습니다. 그중에 조지아의 전통 다성 민요 "차크룰로(Chakrul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크룰로는 연회나 축제에서 남성들이 부르는 힘찬 합창곡입니다. 카헤티 지역에서 유래한 이 노래는 복잡한 화성과 역동적인 리듬이 특징입니다. 고음부가 요들송을 연상시키는 가성(falsetto)으로 치솟아 오르면, 중음부와 저음부가 단단한 토대를 받쳐줍니다. 마치 코카서스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소리로 그려내는 듯합니다. NASA 과학자들은 이 노래가 지구의 다양한 음악 전통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 바깥 성간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차크룰로의 선율을 싣고서.

조지아의 작은 국토 안에서도 지역마다 폴리포니 스타일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코카서스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한 스바네티(Svaneti) 지역의 노래는 그곳의 험준한 산세를 닮았습니다. 엄숙하고 장엄하며, 고대 의식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복잡한 화음보다는 덩어리감 있는 울림이 특징입니다. 수천 년간 고립된 채 살아온 스반 사람들의 노래에는 기독교 이전 이교 시대의 요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서부 구리아(Guria) 지방의 폴리포니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크리만출리(Krimanchuli)"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법이 사용됩니다. 요들송과 비슷한 고음의 가성이 멜로디 라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즉흥적이고 빠른 리듬, 서로 얹히고설키는 복잡한 멜로디 라인.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말이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리아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폴리포니로 꼽히기도 합니다.

동부 카헤티(Kakheti) 지역은 와인의 고장답게 노래도 풍요롭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드론(Drone, 지속음) 베이스 위에 서정적인 멜로디가 얹어지는 스타일입니다. 포도 수확철에 부르는 노동요부터 연회에서 부르는 축배가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노래는 공연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에 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밭을 갈 때, 포도를 수확할 때, 전쟁터로 나갈 때, 결혼식에서, 장례식에서, 심지어 상처를 치료할 때까지. 노래 없이는 어떤 행사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지아 전통 연회인 "수프라(Supra)"에서 폴리포니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수프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례입니다. "타마다(Tamada)"라고 불리는 건배 제의자가 건배사를 낭송하면, 참석자 모두가 잔을 들어 화답합니다. 건배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누가 지휘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의 눈빛과 호흡만으로 완벽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갑자기 프로 합창단처럼 노래하는 광경.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들은 입이 벌어집니다.

전통 악기가 반주로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판두리(Panduri)는 세 개의 현을 가진 류트 모양의 악기입니다. 총구리(Chonguri)는 네 현 악기로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살라무리(Salamuri)는 목관 악기로, 피리처럼 맑은 소리를 냅니다. 두둑(Duduk)은 저음의 깊은 울림을 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언제나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악기는 보조일 뿐, 목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화합이 조지아 음악의 본질입니다.

조지아인들은 말합니다. “노래하지 않는 조지아인은 없다.” 과장이 아닙니다. 시골 마을의 노인부터 도시의 젊은이까지, 조지아인들은 자신들의 폴리포니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아마추어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폴리포니를 가르칩니다.

트빌리시의 식당이나 거리, 시골 마을의 잔치에서 우연히 이 웅장한 합창을 듣게 된다면, 잠시 멈추어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악보도 없고 지휘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를 맞추는 조지아인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음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민족의 기억. 코카서스 산맥처럼 굳건하게 버텨온 영혼의 힘. 그것이 조지아 폴리포니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9장 정교회와 조지아인의 DNA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적 영향력

조지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신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빌리시의 어느 거리를 걷든, 카헤티의 포도밭 언덕을 넘든, 스바네티의 첩첩한 산골 마을에 들어서든,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황금빛 돔을 인 대성당,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수도원, 마을 어귀의 작은 예배당. 조지아 정교회(Georgian Orthodox Church)는 이 나라의 풍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정교회는 종교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영혼이자, 5천 년 역사의 파수꾼이며, 수많은 침략과 지배 속에서도 자신들을 '조지아인'으로 남게 해 준 최후의 보루입니다.

포도나무 십자가의 탄생

조지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야기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성녀 니노(St. Nino). 4 세기 초, 카파도키아 출신의 이 젊은 여성은 성모 마리아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성모는 니노에게 포도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베리아(고대 조지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십자가의 힘으로 그 땅에 신앙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니노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손에는 정말로 포도나무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지들을 묶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유연한 포도나무는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양쪽 팔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이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날 조지아 정교회의 상징인 '포도나무 십자가(Grapevine Cross)'입니다.

니노는 320년경 이베리아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수도 므츠헤타(Mtskheta)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방인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노가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나나 왕비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니노는 기도했고, 왕비는 나았습니다. 왕비는 즉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안 3세 왕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상 대대로 믿어 온 신들을 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왕이 갑자기 칠혹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왕은 조상의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니노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걷히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왕은 성으로 돌아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337년(일부 기록에는 326년), 미리안 왕은 기독교를 이베리아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노의 포도나무 십자가는 현재 트빌리시의 시오니 대성당(Sioni Cathedral)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 세기 동안 페르시아 침략, 오스만의 위협, 러시아 제국의 합병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여러 곳을 떠돌았습니다. 1802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조지아에 반환한 이래, 이 십자가는 조지아 민족의 가장 성스러운 유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지아 국기에 그려진 네 개의

작은 십자가는 바로 이 포도나무 십자가를 양식 화한 것입니다.

천 칠백 년의 저항

조지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 제였습니다. 조지아는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입니다. 동쪽에는 페르시아가, 남쪽에는 아랍과 오스만이,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력이 번갈아가며 조지아를 침략했고,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은 무엇을 빼앗겨도 신앙만은 지켰습니다.

7세기 아랍의 침략 때, 무슬림 정복자들은 조지아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처형되었습니다. 트빌리시의 므트크바리 강변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물 위에 십자가 아이콘을 띄워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콘에 입을 맞추며 죽어 갔습니다. 오늘날 트빌리시 시민들이 매년 5월 13일 '10만 순교자의 날' 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조지아를 속국으로 삼고 조로 아스터교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종용했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타협했지만, 대다수의 평민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성직자들은 조지아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짓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수도원은 학교가 되었고, 교회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언어를 지키는 것이었고, 언어를 지키는 것은 곧 민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4세기, 몽골의 티무르가 조지아를 유린했을 때, 조지아인들은 민족의 보물과 성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해발 2,170미터의 카즈벡 산 절벽 위에 있는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Gergeti Trinity Church)였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 있는 이외딴 교회에 그들은 성녀 니노의 십자가를 비롯한 귀중한 유물들을 숨겼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저 높은 곳까지는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게르 게티 교회는 조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 에게 이곳은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성지입니다.

소비에트의 무신론과 부활

조지아 정교회가 직면한 가장 극심한 박해는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독교 문화권인 러시아 아로부터 왔습니다. 1801년 러시아 제국이 조지아를 합병한 후, 러시아 정교회는 조지아 교회의 자치권(Autocephaly)을 박탈했습니다. 조지아 총대주교좌는 폐지되었고, 조지아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의 관구(Exarchate)로 격하되었습니다. 조지아어 예배는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러시아인 성직자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했습니다. 교회가 곧 민족 정체성이었던 조지아인들에게 이것은 영혼의 식민지화였습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1년 소비에트 적군이 조지아를 점령했습니다. 공산당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교리에 따라 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파괴되거나 창고, 공장, 감옥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성직 자가 처형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종교 교육은 금지되었고, 신앙을 공개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의 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할머 니들은 손주들에게 몰래 기도문을 가르쳤고, 마을 노인들은 폐허가 된 교회 터에서 은밀히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례는 비밀리에 행해졌고, 성경은 손으로 베껴져 전해졌습니다. 70년 간의 무신론 통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조지아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정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활했습니다. 억눌렸던 신앙심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폐허가 된 교회들이 복원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성당들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이 트빌리시의 성 삼위일체 대성당(Holy Trinity Cathedral, 조지아어로 '사메바' Sameba)입니다. 2004년 완공된 이 대성당은 남코카서스에 서 가장 큰 정교회 건물입니다. 101미터 높이의 이 거대한 성당은 트빌리시 어디에서든 보입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사메바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에트의 무신론을 극복하고 이뤄낸 영적 부활의 기념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영향력

오늘날 조지아 인구의 약 83~85%가 정교회 신자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교회의 영향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정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의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을 정의하고,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며,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힘입니다.

2021년 국제공화연구소(IR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총대주교 일리아 2세(Patriarch Ilia II)는 88%의 지지율로 조지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총리,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수치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1977년부터 총대주교직을 수행해 온 일리아 2세의 초상화는 정부 청사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 상점, 식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국부(國父)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헌법상 조지아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러나 2002년 체결된 '협정(Concordat)'을 통해 정교회는 다른 종교 단체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교회에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회는 세금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를 받습니다. 2024년에는 총리 명령에 따라 총대주교청 교육문 화사업 발전기금에 3,500만 라리(약 150억 원)가 배정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찾습니다. 총대주교의 축복 사진은 선거 포스터의 단골 소재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이끄는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이 승리를 거둔 데에는 정교회의 암묵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와 총대주교청 사이의 이러한 유착 관계는 세속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쟁점에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냅니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은 성소수자(LGBTQ+) 권리 문제입니다. 조지아 정교회는 동성애를 "치명적인 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년 일리아 2세 총대주교는 부활절 서신에서 동성 결혼은 "강력한 금기"이며, "인간을 정의하는 전통적 정체성인 '남자'와 '여자', '가족의 가치'가 지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해 7월, 트빌리시에서 프라이드 행진이 계획되었을 때, 교회와 보수 단체 들은 격렬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프라이드 조직 사무실과 언론인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강경한 태도는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 노력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EU는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포함한 인권 기준 충족을 요구하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보수 세력의 반대로 조지아 정부는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EU의 반(反)차별법 요구에 대응하여 “가족 가치 및 미성 년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사실상 LGBTQ+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관용의 전통과 한계

조지아 정교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조지아는 역사적으로 종교적 관용의 땅 이기도 했습니다. 트빌리시 구시가지(Old Tbilisi)를 거닐면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조지아 정교회 성당,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이슬람 모스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해 온 실크로드 교차점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부 해안 도시 바투미(Batumi)는 이러한 다양성의 또 다른 예입니다. 아자라(Ajara) 자치 공화국의 수도인 바투미에는 정교회, 가톨릭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유대교 회당, 그리고 이슬람 모스크가 모두 한 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로 무슬림 인구가 상당했던 이 지역은 종교 간 공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의 전통이 최근 들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전통적 가치 수호”가 강조되면서, 소수 종교와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정교회 내부에서도 반(反)서구, 반(反)자유주의 성향의 강경파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서구의 세속적 가치관을 “유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pseudo-liberal ideology)”라 부르며 배격합니다.

조지아인에게 정교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가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DNA에 각인된 정체성입니다. 수천 년의 침략과 지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조지아인’으로 남게 해 준 영적 고향입니다. 트빌리시 버스 안에서 창밖의 교회를 향해 성호를 긋는 노인, 시골 마을의 폐허 같은 예배당에 촛불을 켜는 농부, 대학가 카페에서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도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건 젊은이. 그들 모두에게 정교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끈은 때로 조지아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묶어 두기도 합니다. 유럽을 향한 열망과 전통 가치의 수호 사이에서, 조지아 정교회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지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 수프라 문화, 단순한 식사가 아닌 공동체의 의례

조지아를 여행하는 사람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수프라를 하는데, 같이 가시죠.” 처음에는 ‘수프라(Supra)’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저녁 식사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끝없이 이어지는 건배와 노래, 눈물과 웃음 속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수프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지아인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식탁보’에 담긴 우주

‘수프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식탁보’를 뜻합니다. 페르시아어 ‘소프레(sofre)’에서 유래한 이 말은 원래 음식을 차려 놓는 천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지아에서 수프라는 전통 연회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생일, 국경일, 추모일은 물론이고 손님을 맞이하거나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까지, 조지아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수프라가 열립니다.

2017년 조지아 정부는 수프라 전통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에게 수프라는 ‘유산’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입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골동품이 아니라 매일 밤 누군가의 집에서, 식당에서, 포도밭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삶 그 자체입니다.

수프라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언어학자 레반 브레가제(Levan Bregadze)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의 수프라는 19세기 초 러시아 병합 이후에 확립되어 19세기 말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건배를 뜻하는 조지아어 ‘사드게그르젤로(sady egrdzelo, 직역하면 ‘오래 살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도 19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존 페리(John R. Perry)는 수프라의 뿌리가 페르시아 사파비 왕조의 연회 문화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16~17세기 사파비 이란의 영향을 받은 조지아 궁정이 페르시아식 ‘소흐бат(sohbat, 친교의 자리)’과 ‘소프레(연회)’를 수용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설이 맞든, 수프라가 조지아 문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7 세기의 청동 조각상 중에는 빨잔(칸치, kantsi)을 높이 든 인물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조각상은 ‘타마다 상(Tamada statue)’으로 불리며, 트빌리시 시내 여러 곳에 복제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3천 년 전에도 조지아인들은 모여 앉아 술잔을 들고 누군가의 건강을 빌었다는 증거입니다.

타마다: 식탁의 지휘자

모든 수프라에는 반드시 ‘타마다(Tamada)’가 있습니다. 타마다는 연회의 사회자이자 지휘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로는 타마다의 역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인들은 “타마

다는 식탁의 독재자”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독재자보다는 선생님, 또는 신부(神父)에 가깝습니다. 좋은 타마다는 시인이자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이자 엔터테이너입니다.

타마다의 자격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첫째, 말을 잘해야 합니다. 뻔한 내용도 독창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타마다들은 즉흥 시인에 가깝습니다. 둘째, 조직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건배를 제안할지, 노래와 춤을 언제 끼워 넣을지, 연회의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타마다의 책임입니다. 셋째, 감수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식탁의 분위기를 읽고, 모든 참석자가 소외되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넷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이 거나해지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흐트러집니다. 이때 타마다는 단호하게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다섯째, 술을 잘 마셔야 합니다. 타마다는 모든 건배에서 잔을 비워야 하지만,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타마다는 치욕입니다.

가족끼리만 모인 소규모 자리에서는 보통 집안의 어른이 자연스럽게 타마다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가족이 미리 타마다를 선정합니다. 말솜씨가 좋고 이 역할을 즐기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타마다를 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장 연장자가 “오늘 저녁은 코테가 타마다를 맡으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고, 지명된 사람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가 타마다가 됩니다.

수프라가 시작되면 타마다의 첫 번째 건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타마다를 위한 건배가 있습니다. 타마다를 제안한 사람(보통 집주인이나 최연장자)이 일어서서 "오늘 저녁 타마다를 맡아 주신 코테를 위하여!"라고 외치면, 모든 참석자가 잔을 들고 타마다에게 건배합니다. 이것이 수프라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건배의 순서와 예술

수프라에서 건배는 그냥 "건강을 위하여!"라고 외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설이고, 기도이며, 때로는 시(詩)입니다. 타마다가 주제를 제시하면, 그는 그 주제에 대해 길고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습니다. 역사적 일화, 문학 작품의 인용, 철학적 성찰, 개인적인 추억이 섞여 들어갑니다. 짧으면 2~3분, 길면 10분이 넘는 연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건배의 주제에는 대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수프라에 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God)에게: 첫 번째 건배는 신에게 올립니다. 조지아의 기독교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무신론자도 이 건배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Peace)를 위하여: 조지아의 격동적인 역사를 생각하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국(Georgia)을 위하여: 사카르트벨로(Sakartvelo), 조지아인들이 자국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건배입니다.

조상(Ancestors)에게: 세상을 떠난 선조들을 기리는 순간입니다. 이 건배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일어서서 침묵 속에 잔을 비웁니다.

부모(Parents)를 위하여: 살아 계신 부모님,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형제자매(Siblings)를 위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건배입니다.

여성(Women)을 위하여: 조지아 문화에서 여성,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신성시됩니다.

자녀(Children)를 위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담은 건배입니다.

손님(Guests)을 위하여: 수프라에 참석한 손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건배입니다.

우정(Friendship)을 위하여: 친구들 사이의 유대를 확인하는 건배입니다.

이 외에도 사랑, 건강, 행복, 성공 등 다양한 주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면 신랑 신부를 위한 건배가, 장례식이면 고인을 추모하는 건배가 중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타마다만 건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타마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술을 마시거나 건배를 할 수 없습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마치면, 그는 '알라베르디(alaverdi)'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알라베르디는 다른 참석자에게 발언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지명된 사람은 타마다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나 감정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같은 주제에 대해 말을 하고, 마지막에 모두가 “가우마르조스!(Gaumarjos!, 승리를 위하여!)”를 외치며 잔을 비웁니다. 이 과정이 한 번의 건배에서 일어납니다. 밤새 스무 번, 서른 번의 건배가 이어진다면, 참석자들은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 누고, 공유하게 됩니다.

와인: 성스러운 매개체

수프라에서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산 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성스러운 매개체입니다. 조지아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생명의 나무’이자 성모 마리아의 상징입니다. 성녀 니소가 포도나무 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전설은 와인과 신앙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여 줍니다.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빚기 시작한 것은 약 8,000년 전입니다. 전 세계 포도 품종 약 1,500

종 중 500종 이상이 조지아 토착 품종입니다. 르카치텔리(Rkatsiteli), 사페라비(Saperavi), 므츠바네(Mtsvane), 키시(Kisi) 등 이국적인 이름의 포도들이 조지아의 포도밭에서 자랍니다.

전통적인 조지아 와인은 ‘크베브리(Qvevri)’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양조됩니다. 크베브리는 땅속에 묻는 거대한 점토 항아리입니다. 포도를 껍질, 씨, 줄기와 함께 크베브리에 넣고 밀봉하면, 땅속의 일정한 온도에서 자연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든 와인은 호박색을 띠어 ‘앰버 와인(Amber Wine)’이라고도 불립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크베브리 양조법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지아 가정에서 와인 저장고인 ‘마라니(Marani)’는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마라니에서 와인을 빚고 숙성시키는 것은 가장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수프라에서 와인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메리키페(Meriqipe, 와인을 따르는 사람)’라는 별도의 역할이 있으며, 타마다는 자신의 잔에 직접 와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전통적인 수프라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건배 때마다 잔을 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마다가 “볼로 모데!(Bolo mde!, 끝까지!)”라고 외치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야 합니다. 잔에 술을 남기는 것은 타마다에 대한 무례이자 건배 대상에 대한 불경입니다. 이 때문에 수프라에서는 엄청난 양의 와인이 소비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조지아인들이 취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많이 마시되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프라에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

조지아에는 “스투마리 그메르티스아간 아리스(Stumari ghvtisagan aris)”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조지아인의 환대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수프라는 이 환대 정신이 가장 순수하게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조지아인들은 낯선 여행자라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를 받으면, 손님은 왕처럼 대접받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차पुर리(Khachapuri, 치즈를 넣은 빵), 힌칼리(Khinkali, 고기 만두), 므츠바디(Mtsvadi, 꼬치구이), 바드리자니(Badrijani, 호두 소스를 넣은 가지 롤), 포크발리(Pkhali, 야채 페이스트) 등 조지아의 대표 요리들이 접시 위에 접시가 쌓이도록 올라옵니다.

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주인은 즉시 보충합니다. 수프라에서빈 접시가 보이는 것은 수치입니다.

건배사에서 손님은 빠지지 않습니다. 타마다는 반드시 손님을 위한 건배를 제안하며, 이때 손님의 건강, 행복, 여정의 안전을 빌어 줍니다. 손님이 여러 명이면 한 명씩 차례로 건배를 받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있으면 타마다는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멋진 건배사를 지어 냅니다. 이런 환대 앞에서 손님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건배에 참여하여 주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폴리포니: 영혼의 화음

수프라가 무르익으면 어디선가 노래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합니다. 악기 반주 없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층층이 쌓여 복잡한 화음을 이룹니다. 이것이 조지아의 전통 다성 음악, 폴리포니(Polyphony)입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조지아 폴리포니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지아 폴리포니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풍부한 다성 음악 전통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1977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쏘아 올린 보이저 우주 탐사선에는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레코드에 담긴 27곡의 음악 중 하나가 바로 조지아 폴리포니 곡 ‘차크룰로(Chakrulo)’입니다.

수프라에서 노래는 단순한 여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영적 교감입니다. 조지아인 들은 노래를 통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하며,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건배사가 언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을, 노래는 선율로 전달합니다. 수프라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음식의 맛이나 와인의 향기가 아니라, 그날 밤 함께 불렀던 노래의 화음입니다.

공동체의 치유와 통합

수프라의 본질적인 기능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프라는 단순히 즐거운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의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의식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연구자 케빈 투이트(Kevin Tuite)는 수프라를 “일종의 집단 치료(group therapy) 세션”에 비유했습니다.

수프라에서는 평소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배사의 틀 안에서, 와인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감정을 꺼냅니다. 오래된 오해가 풀리고, 묵은 원한이 녹아내립니다. 가족 간의 불화, 이웃 간의 갈등, 심지어 마을 공동체 내의 분쟁 까지도 수프라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마다의 지혜로운 건배사가 갈등의 당사자들을 한 식탁에 앉히고,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며, 결국 화해에 이르게 합니다.

장례식 후에 열리는 수프라(조지아어로 ‘켈레키’, kelekhi)는 슬픔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건배사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은 상실의 아픔을 함께 견뎌냅니다. 잔에 남은 마지막 몇 방울의 와인을 빵 위에 뿌리는 것은 고인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죽은 자는 산 자의 기억 속에 살아남고, 산 자는 삶을 계속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상업화된 수프라, 관광객을 위한 체험용 수프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건배의 길이와 형식이 간소화되고,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조지아 음식 파티'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과 마을 단위의

전통적인 수프라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예절과 상징 체계가 유지됩니다. 전통과 현대 소비 문화가 공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지아 수프라의 현실입니다.

수프라는 한 테이블 위에서 재연되는 작은 조지아 사회입니다. 정교회적 가치, 가부장적 질서, 공동체적 연대가 음식과 와인, 건배와 노래 속에 녹아 있습니다. 수프라에 초대받아 그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와인을 마시는 것은 조지아라는 나라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 전통 가치와 서구화 사이의 세대 갈등

2024년 5월, 트빌리시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조지아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선택하라!", "러시아에는 '노'라고 말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일명 외국 대리인 법)'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대응했습니다. 수백 명이 연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시위의 특징은 참가자들의 나이였습니다. 'Z세대(Gen Z)', 또는 '주머 세대(Zoomers)'라 불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시위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처음으로 정치 시위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조직적 동원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단순히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마라." 이것은 세대의 선언이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선 나라

오늘날 조지아 사회는 두 개의 힘 사이에서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 가치가 있습니다. 정교회 신앙, 가족 중심주의, 보수적인 성 역할, 공동체적 유대. 다른 한쪽에는 유럽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 다양성의 존중. 이 두 힘은 때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조지아 헌법은 유럽-대서양 통합을 국가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의 80~85%가 EU 가입을 지지합니다. 2023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조지아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유럽'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과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합니다.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지아 사회의 상당 부분은 '서구적 가치'에 대해 경계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개인주의, 세속주의, 성소수자 권리 등을 "유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pseudo-liberal ideology)"라 부르며 "조지아의 전통과 신앙을 위협하는 외래 문화"로 규정합니다.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은 이러한 보수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서구의 자금을 받아 교회를 공격하고, LGBT 선전을 통해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젊은 세대: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

2024년 외국 대리인 법 반대 시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위 참여와 지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18~34세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조지아의 미래는 명백히 유럽

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유럽인’으로 정의합니다. 2024년 카네기유럽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들은 외교 정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평등”, “통합” (조지아 사회의 양극화 극복), “기본적 인간 자유의 존중”,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질 높은 교육”, “성평등”…… 이것은 그들이 꿈꾸는 삶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친유럽 성향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2003년 ‘장미 혁명(Rose Revolution)’ 이후 조지아는 강력한 친서방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어 교육이 강화되었고, 서방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사회 곳곳에 퍼졌습니다. 2008년 러시아와의 5일 전쟁은 이 세대에게 결정적인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서방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와 가치관에 노출됩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직접 봅니다. 조지아의 현실과 유럽의 이상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정부의 반(反)유럽적 행보는 자신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성세대: 안정과 전통의 수호자

반면 기성세대, 소비에트 시절을 경험한 세대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어에 익숙하고, 소련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젊은 세대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대감과 동시에 문화적 친밀감, 경제적 의존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뒤섞여 있습니다.

2024년 알자지라의 취재에서 조지아의 한 중년 박물관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변화를 원합니다. 조지아는 EU에 가입해야 해요. 우리의 전통은 유럽과 비슷하니까요. 그러나 조지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잘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러시아와 EU 양쪽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현실주의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종교적 보수성도 세대 간 차이를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많은 이들은 정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교회가 제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동의합니다. 그들에게 서구의 자유주의는 “가족의 해체”, “성적 타락”, “도덕적 방종”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LGBT 권리를 “치명적인 죄”라고 규정할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이들이 프라이드 행진을 요구할 때, 그들은 “우리 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거리의 시위뿐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도 나타납니다. 조지아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가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척들과의 잦은 교류, 손님 접대와 같은 공동체적 의무는 개인의 선택보다 우선시되어 왔습니다. 결혼, 직업 선택, 독립 여부는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식 교육을 받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젊은 세대는 이러한 전통을 답답해 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끝없는 가족 행사”, “친척들의 간섭”,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 적령기가 지나도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전통적

인 성 역할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와의 마찰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서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은 귀국 후 가족과의 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서구에서 배운 자기결정권, 다양성 존중, 개인의 자유를 본국의 현실에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응, 효도,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기대가 충돌합니다.

‘외국 대리인 법’과 세대의 전쟁

2024년 조지아 정부가 ‘외국 영향력 투명성법’을 재추진했을 때, 이 법안은 곧바로 세대 간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

구(NGO)와 언론사에게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것이 러시아의 악명 높은 ‘외국 대리인 법’을 본뜬 것이며,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법안은 “유럽의 꿈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EU 깃발을 흔들고, “우리는 유럽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일부는 과격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고, 최루가스가 뿌려지고, 물대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연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타와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보수 세력은 다른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이 “투명성을 위한 것”이며,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조지아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서방의 돈을 받은 꼭두각시”, “조지아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시위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마약에 찌든 세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대”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 당은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대통령, 국제 선거 감시단은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함 조작, 유권자 매수, 협박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은 “여러분은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표를 훔치고, 여러분의 미래를 훔치려 한 것입니다”라고 시위대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2024년 11월, 정부가 EU 가입 협상을 2028년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 시위는 202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시위는 세르비아의 반부패 시위와 함께 2024년부터 거의 매일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시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도기의 조지아

조지아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8,000년 된 와인 항아리와 성호를 긋는 경건한 신앙, 수프라의 끈끈한 유대와 정교회의 황금빛 돔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테크노 클럽 ‘바시아니(Bassiani)’에서 밤새 춤추는 젊은이들, EU 깃발을 흔들며 자유를 외치는 시위대, 그리고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적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 안에 공존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시위에 참여하고 밤에는 수프라에서 할아버지의 건배사를 듣는 젊은이. 유럽 통합을 지지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중년.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부의 권위 주의에 반대하는 신자. 조지아의 현실은 흑백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문화정책 연구자들은 조지아 사회가 전통 문화를 보호하면서도 다문화주의, 소수자 권리,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기본적인 전통은 지키자”는 식의 타협적 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과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조지아인의 ‘DNA’는 정교회 신앙, 수프라 중심 공동체 의식, 가족주의라는 전통적 요소와, 유럽적 권리, 개인의 자율, 다양성이라는 현대적 가치가 긴장과 대화를 반복하며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조지아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치열한 성장통입니다.

조지아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젊은 시위 참가자는 알자지라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야말로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Z세대는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유럽-대서양적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프라 테이블에서 타마다가 외치는 전통적인 건배사와, 거리에서 EU 깃발을 흔들며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의 구호가 공존하며 충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지아의 모습입니다. 이 긴장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지아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숭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수프라 테이블에서 타마다가 외치는 전통적인 건배사와, 거리에서 EU 깃발을 흔들며 자유를 외치는 청년들의 구호가 공존하며 충돌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지아의 모습입니다. 이 긴장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지아인들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숭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0장 장미혁명에서 민주주의 후퇴까지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3부 정치와 국제관계

가. 2003년 장미혁명과 사카슈빌리의 개혁

2003년 11월 22일, 트빌리시 의회 건물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손에 붉은 장미를 든 청년 정치인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의회 본회의장으로 돌진 했고, 연설 중이던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대통령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카슈빌리는 연단에 올라 셰바르드나제가 남기고 간 찻잔의 차를 마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가 조지아 현대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실패한 국가의 초상

장미혁명을 이해하려면 당시 조지아가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조지아는 내전과 분리주의 갈등, 경제 붕괴로 점철된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지역에서 분리독립 전쟁이 발생했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조지아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전력 사정은 참담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불규칙했습니다. 수력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였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주가디디(Zugdidi)에서 메스티아(Mestia)까지 135킬로미터 거리를 이동하는 데 다섯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로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의 약탈자에 가까웠습니다. 교통경 찰이 운전자를 세우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공무원 자리는 매매의 대상 이었고, 모든 행정 절차에는 '비공식적 비용'이 수반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국가가 예상 세수의 70 퍼센트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법 도둑'의 지배

이 시기 조지아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법 도둑(Thieves-in-law, 조지아어로 카노니에리 쿠르데비)'이라 불리는 조직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교도소에서 형성된 이 범죄 하위문화는 독자적인 행동 규범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

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이들은 정치와 경제 구조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지붕(krysha)', 즉 범죄 조직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과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시 조지아에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려면 조직범죄와의 연결이 필수였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세바르드나제 정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권 자체가 범죄 조직과 결탁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법과 질서, 정의에 대한 열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도화선

2003년 11월 2일 실시된 의회 선거가 도화선이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사카슈빌리가 이끄는 통합 민족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공식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조작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는 스무 날 동안 이어졌습니다. 독립 텔레비전 방송국 루스타비-2(Rustavi-2)가 시위 현장을 생중계했고, 청년 운동 단체 크마라(Kmara, '충분하다!'라는 뜻)가 시민들을 조직했습니다.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의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비폭력 저항 전략을 담은 다큐멘터리 '독재자를 무너뜨리다(Bringing Down a Dictator)'가 방송을 탔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조지아로 전해진 것입니다.

11월 22일, 세바르드나제가 신임 의회의 첫 회의에서 연설을 시작하자 시위대가 의회 건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데리고 나갔고, 이튿날 세바르드나제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무혈 혁명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시위대 편에 섰습니다. 유혈 사태 없이 정권이 교체된 것은 구소련 지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36세 대통령의 등장

2004년 1월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카슈빌리는 96.2퍼센트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젊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서른여섯 살이었습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으며, 서방 세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는 조지아를 유럽의 일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의 개혁은 신속하고 급진적이었습니다. 그 속도에 조지아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도 놀랐습니다. 세계은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조지아를 '세계 최고의 개혁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경찰 개혁: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

가장 상징적인 개혁은 경찰 조직의 전면 해체와 재건이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2004년 7월, 부패의 온상이던 교통경찰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약 1만 6천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경찰관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를 해산하고 새로 구축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경찰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뒤따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급여는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과거 경찰 월급은 형편없었기에 뇌물 수수가 생존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기로 했습니다. 경찰관 급여를 10배 이상 올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신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개혁의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세워 뇌물을 요구하는 경찰이 사라 졌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으로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국제공화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여론조사에서 경찰은 조지아 정교회, 군대에 이어 세번째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2006년이 되자 조지아는 시민 214 명당 경찰관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개혁 전에는 78명당 1명이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택한 것입니다.

‘법 도둑’과의 전쟁

사카슈빌리는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떤 범죄 권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새 정부는 ‘법 도둑’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

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단순히 ‘법 도둑’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될 수 있었습니다. 범죄 보스들의 재산은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자카르 칼라쇼프(Zakhar Kalashov) 같은 거물급 마피아의 수천만 달러짜리 저택이 압수되어 경찰서나 정부 기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범죄 조직원들이 체포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등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범죄자들의 위협에 시달리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 현대화와 경제 개혁

부패 척결은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11년 문을 연 ‘법무부의 집(House of Justice)’은 이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여권 발급, 부동산 등기, 사업자 등록 등 각종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했고, 매번 뇌물을 요구받았습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제도 단순화되었습니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20퍼센트 단일세로 대체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루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봉쇄, 무역 제재, 2008년 전쟁,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경제는 2004년부터 2012년 까지 연평균 7퍼센트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국가 세입도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예상 세수의 70퍼센트도 걷지 못하던 것 과 비교하면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급여와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조지아는 곧 순 에너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장미혁 명 직후 하루 몇 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서방 외교 노선

사카슈빌리 정부는 외교에서도 급격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 가입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조지아는 유럽 국가이며, 유럽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조지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럽인이다” 라는 당시 총리 주랍 즈바니아(Zurab Zhvania)의 연설이 이 노선을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친서방 노선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서방 편입 시도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2006년 러시아는 조지아

산 와인과 미네랄 워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2008년 전쟁의 상흔

긴장은 2008년 8월 전면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남오세티야 지역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닷새간의 전쟁에서 조지아는 패배했습니다. 러시아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조지아는 영토의 약 20퍼센트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전쟁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EU가 구성한 독립조사위원회(Tagliavini Commission)는 조지아가 먼저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응이 비례성 원칙을 벗어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카슈빌리의 정치적 입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개혁의 그림자

사카슈빌리 시대의 성과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나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2007년에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독립 언론인 임메디(Imedi) 텔레비전이 강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내 인권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교도소 내 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법치를 내세웠지만,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혁의 목표는 정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정의가 훼손되는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장미혁명 이후 성장한 세대는 이제 정부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 비지나 이바니슈빌리와 '조지아의 꿈' 12년

2012년 10월 의회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연합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장미혁명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소련 지역에서 선거를 통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조지아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환영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억만장자

'조지아의 꿈'을 창당하고 이끈 인물은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입니다. 그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입니다. 포브스 추정 자산은 약 49억 달러, 조지아 국내총생산(GDP)의 1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금속, 금융, 부동산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때는 러시아 최대 민영은행인 러시아신용은행(Russian Credit Bank)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러시아 연결고리는 처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를 '러시아 올리 가르히(과두재벌)'로 규정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이바니슈빌리의 조지아 시민권을 박탈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바니슈빌리는 자신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했을 뿐 러시아 정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의 EU와 NATO 가입을 지지한 다고 공언했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이바니슈빌리 연합은 사카슈빌리 정권의 권위주의적 행태, 교도소 내 인권 유린, 경제적 불평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선거 직전 공개된 교도소 학대 영상이 결정 타였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했고, '조지아의 꿈'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집권 초기: 기대와 현실

이바니슈빌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공식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정계 은퇴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당의 '명예회 장'으로서, 그리고 조지아 최고 부자로서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교체되어도 실질적인 권력의 원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 상당수가 이바니슈빌리 소유 기업이나 은행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전직 총리, 전직 경제부 장관이 그의 가족 소유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그의 전직 경호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건부 장관은 이바니슈빌리 부인의 개인 치과 의사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초기 몇 년간 '조지아의 꿈' 정부는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균형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EU와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했고, 2017년에는 EU와의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지아 국민들은 쥔

지역(Schengen Area) 국가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통합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

그러나 2017년경부터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민주주의 지수들은 조지아의 순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미국 국무부는 조지아 대법원 판사 네 명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정치적 부패'와 '사법 시스템 훼손'이 이유였습니다. 조지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사법부가 외국의 제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반부패 개혁도 정체되었습니다. 사카슈빌리 시대에 체결되었던 '법 도둑'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권 세력이 선거 동원이나 교도소 내수감자 통제를 위해 범죄 하위문화와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카슈빌리 시대의 급진적 개혁이 만들어낸 성과가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는 우려는 커져갔습니다.

2022년 전환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조지아 정치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전쟁은 조지아인들에게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자신들이 겪은 일 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꿈' 정부의 대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조지아는 유럽평의회에서 러시아 추방에 찬성했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수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무역은 급증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79퍼센트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조지아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무른 행동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친러시아 노선으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글로벌 전쟁 당' 음모론

이 시기 이바니슈빌리와 '조지아의 꿈' 지도부는 기이한 수사(rhetoric)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EU가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여 '제2의 전선(Second Front)'을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에 존재하는 '글로벌 전쟁 당(Global War Party)'이라는 세력이 조지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서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NGO들을 통해 조지아에서 혁명을 획책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권당은 자신들을 '평화의 수호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전쟁 세력'으로 프레임화했습니다. 사카슈빌리의 통합민족운동(UNM)을 '집합적 UNM'이라 부르며, 과거 정권의 '범죄'를 부각시켰습니다. 2008년 전쟁도 사카슈빌리의 '무모한 도발' 탓이라고 재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러시아 국영 매체의 논조와 유사했습니다. 서방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고,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를 러시아의 허위정보 전략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 후보국 지위, 그리고 역행

2023년 12월, EU는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조지아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던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80퍼센트가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에도 EU와 NATO 가입이 국가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꿈' 정부의 행보는 이와 어긋났습니다. EU가 제시한 12개 개혁 우선과제중 세 개만 이행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EU가 강력히 반대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되었습니다. '외국영향투명성법'과 '가족 가치 보호법'(성소수자 권리 제한법)이 대표적입니다. EU는 이 법안들이 가입 협상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11월 충격적 선언

2024년 11월 28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028년까지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U의 재정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 목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유럽 통합의 길을

정권이 막아선 것입니다.

이 선언의 이유에 대해 정부는 "EU가 조지아를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조지아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것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는 EU 가입에 필요한 민주주의적 기준을 충족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하려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조지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유럽과 조지아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2003년 장미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 2024년 총선 부정 의혹과 대규모 시위

2024년 10월 26일 실시된 조지아 의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지아의 꿈'이 12년 만에 4연임에 도전하는 선거였습니다. 야당 연합은 유럽 통합 노선의 복원을 내세우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조지아가 유럽으로 나아갈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회귀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를 비롯한 국제 선거감시단은 선거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당은 막대한 행정 자원과 재정적 우위를 활용했습니다. 공영방송과 친정부 성향 민영 매체들은 편파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투표 전 며칠 동안 시민사회 활동가와 야당 관계자들이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물리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NGO 지도자들과 언론인들을 '반역자', '적'으로 규정하는 포스터가 여러 도시에 나붙었습니다.

선거 결과와 의혹

공식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의 꿈'은 약 54퍼센트를 득표하여 압승했습니다. 야당 연합은 38퍼센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 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은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고, 당신들의 표를 완전히 강탈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선거가 "러시아의 특수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선거감시단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OSCE/ODIHR은 최종 보고서에서 선거가 "다양한 후보 선택"을 제공했지만, 최근 채택된 법률들이 "기본적 자유와 시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투표함 교체, 유권자 매수, 협박 등 구체적인 부정 행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내용이 외부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의 침해입니다. 유권자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야당의 보이콧과 일당 의회

의회 진입 기준인 5퍼센트를 넘은 야당은 네 개였습니다. 이 중 세 개 정당의 당선자들은 의원직을 포기했습니다. 나머지 한 정당도 의회가 불법이라며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결과 적으로 사실상의 일당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더 극단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조지아의 꿈’ 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한 야당 의원 49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전직 총리 기오르기 가카리아(Giorgi Gakharia)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13년에서 15년 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정부는 통합민족운동(UNM)을 비롯한 야당 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조지아인들의 재외투표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해외 투표 중 ‘조지아의 꿈’ 지지율은 13퍼센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분노

선거 다음 날부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빌리시 루스타벨리 대로와 자유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지아 국기, EU 깃발,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내 표를 돌려달라”, “조지아는 유럽이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11월 28일 EU 협상 중단 발표 이후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ACLED 데이터에 따르면 이후 16일 동안 전국에서 10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시위는 수도 트빌리시 뿐 아니라 바투미, 쿠타이시 등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다양했습니다. 대학생, 시민사회 활동가, 야당 지지자는 물론 일반 시민 들도 합류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시위는 30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지아 언론은 “학 생부터 시민 활동가, 야당까지 조지아 사회의 넓은 스펙트럼”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의 폭력

정부의 대응은 가혹했습니다. 경찰 특수부대가 평화로운 시위대에 최루가스, 물대포, 고무 탄을 발사했습니다.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조지아 공공보호관(옴부즈맨)은 대표단이 327명의 구금자를 면담했으며, 이 중 225명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 했고, 157명에게서 신체적 상해의 가시적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 조지아(Transparency International Georgia) 등은 ‘조지아의 꿈’이 “평화 시위대에 대한 체계적 고문을 계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지아 공공보호관은 시위대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진 부상의 유형과 심각성이 “고문 행위에 해당한 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BC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시위대에 화학물질 카마이트(camite)를 사용했습니다.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은 이를 “인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복 경찰이나 집권당과 연계된 폭력배들이 시위대와 언론인을 공격했다는 증거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티투시키(Titushky)’로 불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야누코비치 정권이 시위 진압에 동원했던 용역 깡패들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내부 균열의 조짐

흥미로운 것은 공권력 내부에서 나타난 균열입니다. 전직 바투미 해안경비대 해양안전국장 고차 베리제에 따르면, 내무부 소속 49명이 사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위 진압 담당 부서장 이라쿨리 샤이쉬멜라쉬빌리와 그의 부하 네 명, 특수부대 교관 16명, 심리훈련 서비스 책임자와 직원 12명, 그리고 물대포 운용요원 16명 전원이 포함됩니다.

샤이쉬멜라쉬빌리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지아를 떠난 후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경찰 폭력은 체계적이었고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명령은 특수작전부 수장 즈비아드 카라지쉬빌리(Zviad Kharazishvili)와 이바니슈빌리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경찰 폭력에 대한 내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국제사회는 조지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유럽의회는 444 대 72(기권 82)의 압도적 표결로 조지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5년 2월 13일에는 의회선거와 대통령선거 모두의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추가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조지아의 꿈'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이바니슈빌리 본인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이바니슈빌리와 '조지아의 꿈'이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인권 유린을 가능케 했으며, 조지아의 유로-대서양 미래를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 탈선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은 내무장관, 내무차관, 트빌리시 경찰국장, 특수작전부 수장 등 고위 관료 다섯 명에게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제재를 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에는 OSCE 회원국 37개국이 '비엔나 메커니즘'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OSCE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들은 구금 자에 대한 가혹 행위, 언론인에 대한 폭력, 경찰관 면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10일 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고독한 저항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새 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의회가 미헤일 카벨라쉬빌리(Mikheil Kavelashvili)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

했을 때, 그녀는 이 선거가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9일 카벨라쉬빌리가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는 자신이 거처로 사용 하던 오르벨리아니 궁을 떠나면서 이 건물은 "상징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취임식을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하며, '조지아의 꿈'이 "고립되고, 겁에 질리고, 부패하고, 불법적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제재 대상이 된"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는 새 사무실을 열고 국내외를 돌며 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조지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라. '외국대리인법'과 러시아식 통제의 망령

2024년 조지아를 뒤흔든 가장 논쟁적인 입법은 공식 명칭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 통칭 '외국대리인법(Foreign Agents Law)'입니다. 이 법은 조지아 사회를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자들은 이것이 '러시아 법'의 복제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법안의 내용

이 법은 해외에서 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 매체가 자신들을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단체는 상세한 재정 및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위반에 대한 벌금은 5,000라리(약 1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복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부패방지국(Anti-Corruption Bureau)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대상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하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기구가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러시아 법의 복제

이 법이 '러시아 법'으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러시아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러시아 내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을 탄압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은 '외국 대리인' 딱지가 붙여지면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인권단체 메모리얼(Memorial)을 비롯한 수 많은 NGO가 이 법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벨라루스와 아제르바이잔도 유사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모두 권위주의 정권이 시민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유럽위원회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회(Venice Commission)는 조지아의 이 법안이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적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와 좌절

'조지아의 꿈'은 2023년에 이 법안을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에 부딪혀 철회해야 했습니다. 트빌리시 거리에서 수만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의회 건물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EU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의 유럽 통합 과정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후퇴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4월 법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4년 봄의 저항

법안 재상정 직후 대규모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회 건물 앞에서 수만 명이 연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수십 명의 언론인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5월 1일에는 경찰이 고무탄을 사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 몇 주 동안 시민 활동가와 정치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협박과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활동가와 그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익명의 협박 전화를 반복 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NGO 지도자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의 사진이 담긴 포스 터가 나붙었습니다. 그들을 ‘반역자’, ‘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 다.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십여 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신원 미상의 가해자들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상당수가 머리 부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안 통과와 그 여파

이 모든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2024년 5월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는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법은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무부는 “조지아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조지아 국민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가했습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법 채택으로 인해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이 법이 “EU의 핵심 가치를 위반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압하지야에서도 2023년 유사한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향권 내 지역들에서 동일한 통제 메커니즘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 가치’ 수호의 명분

‘외국대리인법’과 함께 추진된 또 다른 억압적 입법은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실상의 반(反)성소수자법입니다. 집권당은 서방의 NGO들이 ‘유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성소수자 선전’을 통해 조지아의 전통과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헌법 개정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법은 성 소수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 서구적 가치와 인권 기준 자체를 공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수적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도구로도 활용되 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는 인구의 약 80퍼센트가 신자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전통 가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탄압의 확대

‘외국대리인법’ 시행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NGO 사무실들이 급습을 당했습니다. 서류가 압수되고 직원들이 심문을 받았습니다. 독립 언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 독립 언론 매체가 활동 중단에 내몰 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벌금형에 그쳤던 행정 위반이 이제는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최대 60일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5일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심각한 폭력 충돌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양극화된 사회

이 법안들을 둘러싼 논쟁은 조지아 사회를 극심하게 양극화시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조지아의 주권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러시아의 플레이북을 그대로 따라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집권당 지지자들은 서방의 자금을 받는 NGO들이 조지아의 내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국책 사업에 반대한 일부 환경 단체들을 사례로 듭니다. 이들 단체가 외국의 사주를 받아 국가 발전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단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이것이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실제 목적은 정부 비판 세력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국 대리인’이라는 낙인은 해당 단체를 ‘스파이’, ‘반역자’로 규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길, 막힌 문

결론적으로 이 법안들의 통과는 조지아의 EU 가입 과정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EU는 이 법률들이 EU의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11월 정부가 스스로 EU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문이 닫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 헌법에는 EU와 NATO 가입이 국가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80퍼센트 가량이 EU 가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의 행보는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비판자들은 ‘조지아의 꿈’이 조지아를 서구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시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를 부인합니다. 코바히제 총리는 유로뉴스 기고문에서 “조지아의 유럽 지향은 확고하고 불가역적”이라고 썼습니다. “조지아의 길은 유럽적이고, 평화적이며, 원칙에 기반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로의 길

2025년 현재 조지아는 독립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권위주의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야당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체포되거나 해외 망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치범의 수가 인구 대비 러시아보다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제 안면인식 카메라가 전국에 설치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지아의 새 법률들이 “억압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조지아가 “관리된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처럼 견고하고 탄력적인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할 자원이나 외부 후원자가 없기에 완전한 독재로의 전환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8년 다음 선거까지 정권이 “분열된 야당을 순전히 쇼를 위해 존재하는 편리한 스파링 파트너로” 변환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항의 지속

그럼에도 조지아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3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강력한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감된 활동가들은 감옥에 서도 편지를 통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몰도바 의회 선거에서 친서방 세력이 러시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자, 일부 조지아 시위대는 몰도바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폴란드 정치 분석가는 몰도바 국기가 "저항의 상징"이자 "러시아 패배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지아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저항과 정부의 탄압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지만, 현 정권 하에서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조지아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1장 2008년 전쟁과 분단된 영토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남오세티야·압하지야 분쟁의 기원

조지아 지도를 펼치면 북서쪽 흑해 연안의 압하지야(Abkhazia)와 북중부 산악 지대의 남오 세티야(South Ossetia)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조지아 전체 영토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조지아 정부는 이곳을 '점령 지역(Occupied Territories)'이라 부르고, 러시아는 '독립국'이라 주장합니다. 국제사회 대다수는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이 땅은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사실상의 분리 지역입니다. 이 분쟁은 2008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국에서 연방으로, 연방에서 민족국가로 체제가 바뀔 때마다 축적된 균열이 폭발한 결과입니다.

(1) 민족 구성과 역사적 배경

압하지야인은 코카서스 북서부 계열의 민족으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지아어와는 계통이 다른 압하지야어를 사용하며, 역사적으로 흑해 연안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중세 시대 압하지야 왕국은 한때 조지아 왕국과 통합되어 강성한 시기를 누렸고, 이후 오스만 제국의 영향 아래 이슬람을 받아들인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코카서스를 정복하면서 압하지야는 러시아 직접 통치령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압하지야인이 오스만 제국으로 이주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그 자리를 조지아인,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등이 채웠습니다.

오세티야인은 이란계 유목민인 알란족(Alans)의 후예입니다. 이들은 코카서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북쪽(북오세티야, 현재 러시아 연방 소속)과 남쪽(남오세티야, 조지아 영토 내)으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17세기경부터 북코카서스에서 이주해온 오세티야인들은 당시 카틀리 왕국(조지아 동부)의 허락을 받아 정착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조지아인과 오세티야인은 이웃으로 살며 결혼하고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북오세티야를 직접 지배하면서, 산맥 남북의 오세티야인 사이에는 러시아를 향한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 소비에트의 분할 통치와 자치구 설정

1921년 붉은 군대가 조지아를 점령하고 소비에트화하면서 민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볼셰비키 지도부, 그중에서도 조지아 출신인 스탈린은 '분할 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부에 '압하지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ASSR)'과 '남오세티야 자치주(Autonomous Oblast)'를 설정한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지아의 민족주의가 중앙 정부(모스크바)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내부에 견제 세력을 심어놓은 조치였습니다.

1922년 문서 기록에 따르면, 남오세티야와 자카탈라 등지에서 영토가 다른 공화국이나 자치주로 이관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조지아의 반소비에트 저항 세력은 이러한 영토 분할이 조지아를 러시아의 단순한 행정 구역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921년 12월 보고서는

압하지야 내에서 조지아 지지파와 러시아 지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러시아,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세력이 연합하여 조지아인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방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자치 공화국과 자치주는 형식적 자치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주요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내려졌고, 민족 간 갈등은 공산당의 통제 아래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8년 압하지야에서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조지아어 공용화를 둘러싼 문화적, 언어적 충돌도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시한폭탄은 소련이 약해지면서 폭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3) 소련 붕괴와 1990년대의 무력 충돌

1980년대 말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은 억눌렸던 민족주의를 분출시켰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독립 열망이 치솟았고, 1989년 4월 트빌리시에서 평화 시위대에 소련군이 발포하여 2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은 조지아 민족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서도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조지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은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폭발했습니다. 남오세티야에서는 1991~1992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군이 자치주 수도 츠хин발리(Tskhinvali)를 포격했고, 러시아는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와 1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 휴전 합의(소치 협정)가 체결되었고, 독립국가연합(CIS) 평화유지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동결된 분쟁(Frozen Conflict)'의 시작이었습니다.

압하지야 전쟁(1992~1993)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압하지야 분리주의 세력은 러시아의 암묵적 지원과 북코카서스에서 온 용병들(체첸 무장 세력 포함)의 도움을 받아 조지아군과 싸웠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약 1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압하지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조지아인 약 25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추방당하는 '민족 청소(Ethnic Cleansing)'가 자행되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이를 민족 청소로 인정했습니다. 조지아 정부군은 패배했고, 코도리 협곡(Kodori Gorge) 상류만 겨우 유지한 채 압하지야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전쟁들의 결과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조지아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법적 지위는 불분명한 '회색 지대'가 되었고, 조직 범죄, 밀수,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조지아를 잇는 불법 무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분리주의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은 이 지역에 주둔하며 현상 유지를 관리했지만, 조지아인들에게 이 '평화 유지'는 점령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4) 장미혁명 이후의 긴장 고조

2003년 '장미혁명'으로 집권한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은 강력한 친서방 정책과 함께 영토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부패 척결, 경찰 개혁, 세수 확대 등 국내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분리 지역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2004년 아자리아(Adjara) 자치공화국에서 친러 성향의 아슬란 아바시제(Aslan Abashidze) 지도자를 축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는 아자리야와 달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분리주의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러시아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규모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이른바 '여권 외교(Passportization)'입니다. 전쟁 직전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주민의 80~90%가 러시아 시민 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fl 조지아의 나토(NATO) 가입 시도는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논의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로 회원국 행동계획(MAP)은 유보되었지만,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레드라인' 침범으로 간주했습니다. 2008년 봄부터 남오세티야 접경 지역에서 도발과 충돌이 빈번해졌습니다. 8월의 전쟁은 예고된 것 이었습니다.

나. 5일 전쟁의 진실과 국제사회의 침묵

2008년 8월 8일, 전 세계의 눈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쏠려 있을 때, 코카서스에서는 21 세기 유럽 최초의 국가 간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조지아 전쟁, 흔히 '5일 전쟁'이라 불리는 이 충돌은 단 5일 만에 끝났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전쟁의 발단과 책임 논쟁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조지아 측은 남오세티야 분리주의 세력이 조지아 마을을 지속적으로 포격했고, 이에 대응하여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측은 조지아가 초헌발리를 선제공격하여 민간인을 학살했으며,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와 '평화유지군 공격에 대한 응징'을 위해 개입했다고 반박합니다.

2008년 8월 7일 밤, 조지아군은 남오세티야의 수도 초헌발리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며 영토 통합을 위한 불 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이미 로키 터널(Roki Tunnel, 북오세티야와 남오세티야를 연결하는 유일한 산악 터널)에 대기하고 있었고, 조지아의 공격이 시작되자 수 시간 내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지원한 독립 조사단(IIFFMCG, 일명 탈리아비니 위원회)은 2009년 9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지아가 초헌발리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먼저 시작했 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의 대응은 그 범위와 비례성을 넘어 과도 했으며, 양측 모두 국제인도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쟁 직전 러시아 정찰병이 이미 남오세티야에 침투해 있었고, 러시아 공군이 사전에 이동 배치되어 있었 다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조지아 측은 이 보고서가 러시아의 사전 계획과 도발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러시아 측은 조지아의 '모험주의'가 전쟁을 촉발했다며 자신들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양측 주장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오랜 기간 축적된 긴장의 폭발이었으며, 양측 모두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 5일간의 전면전

8월 8일, 러시아군은 로키 터널을 통해 남오세티야로 대거 진입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공군은 조지아 본토의 군사 시설과 기반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고리(Gori), 포티(Poti), 세나 키(Senaki) 등의 도시가 공습을 받았습니다. 흑해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조지아 해군 함정을 격침시켰습니다.

8월 9일, 압하지야 전선에서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압하지야군과 러시아군은 조지아가 유일하게 통제하던 코도리 협곡 상류를 공격했습니다. 조지아군과 민간인은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에서 마지막 발판마저 잃었습니다.

8월 10일, 러시아 탱크는 남오세티야를 넘어 조지아 본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스탈린의 고향인 고리가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트빌리시를 향해 진군하다가 도시 외곽약 45k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정권 교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서방에 긴급 지원을 호소했지만, 군사적 개입은 없었습니다.

8월 12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르코지 6원칙'은 무력 사용 중단, 적대 행위 중단, 인도주의적 접근 보장, 조지아군의 주둔지 복귀, 러시아군의 분쟁 이전 위치로의 철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위에 관한 국제 논의 시작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전쟁으로 조지아군과 민간인 약 400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군 사망자는 67명, 남오세티야 측 사망자는 16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약 19만 2천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조지아인이었습니다. 조지아 측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OSCE 보고서도 러시아 공군의 민간 지역 타격을 확인했습니다.

(3) 러시아의 독립 승인과 군사 주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2주 후인 8월 26일,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독립국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였습니다. 러시아는 1999년 나토의 코소보 독립 지원을 선례로 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대부분은 러시아의 승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중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시리아, 나우루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유엔은 이 지역을 여전히 조지아의 영토로 간주합니다. 유엔 총회는 2008년 이후 매년 조지아 난민과 실향민의 귀환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협정의 핵심 조항인 '분쟁 이전 위치로의 병력 철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규모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 시켰습니다. 현재 남오세티야에는 약 3,500~4,000명, 압하지야에는 약 5,000명의 러시아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력은 공식적으로 두 '독립국'의 요청에 따른 것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점령입니다.

(4) 국제사회의 대응과 그 한계

전쟁 기간 동안 조지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을 선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군사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발이 묶여 있었고, 핵보유

국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원칙적 대응을 압도했습니다. 나토는 조지아의 회원국 행동계획(MAP)을 유보했습니다. 조지아를 동맹에 포함시키면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감시 임무단(EUMM Georgia)'을 파견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EUMM은 현재까지도 분쟁 지역 인근에서 순찰하며 재충돌 방지와 정상 생활 회복을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EUMM은 러시아와 분리주의 당국의 거부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내부에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시 가능한 조지아 통제 지역에 서만 활동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조지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이란 등도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응을 조지아 인들은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전쟁 난민 출신의 현지 가이드 타조(Tazo)는 이렇

게 말합니다. "세계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8년 침공에 대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2008년 서방의 미온적 대응이 이후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합니다. 6년 후인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조지아인들에게 2008년 전쟁은 잊힌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패턴입니다.

다. '크리핑 보더', 매일 이동하는 점령선

전쟁은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인들에게 더 끔찍한 것은 그 이후에 시작된 '보 더라이제이션(Borderization, 국경화)' 과정입니다. 러시아군과 분리주의 당국은 조지아 통제 지역과 점령 지역 사이의 행정 경계선(Administrative Boundary Line, ABL)을 사실상의 국제 국경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참호, 감시 초소가 세워지고, 이 경계선은 야금야금 조지아 본토 쪽으로 이동합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 기어오는 국경)'라 부릅니다.

(1) 움직이는 철조망

2009년부터 러시아 국경수비대(FSB 소속)와 남오세티야 당국은 행정 경계선에 철조망, 트렌치(참호), 녹색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벽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 사이에, 혹은 EUMM 순찰이 뜬 시간에, 철조망은 조지아 쪽으로 수 미터에서 수백 미터씩 이동합니다.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까지 자기 밭이던 곳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013년 EU 보고서에 따르면, 남오세티야 행정 경계선을 따라 약 200km에 달하는 펜스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지아 통제 토지의 10~20%가 잠식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조망은 마을 한복판을 지나기도 합니다. 한 집의 안방은 조지아 땅, 화장실은 '남오세티야' 땅이 되어버린 기막힌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조상님이 묻힌 묘지가 점령지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성묘를 갈 수 없게 된 가족도 있습니다.

압하지야와 조지아 본토 사이의 경계선(갈리 지역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는 일부 구간에서 경계선이 5km나 조지아 쪽으로 전진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교적 항의와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 납치와 구금, 일상이 된 공포

‘크리핑 보더’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경계선 인근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어제까지 자유 롭게 다니던 길이 오늘은 ‘불법 월경’이 됩니다. 소를 몰거나 나무를 하던 농부가 ‘국경 무단 침범’ 혐의로 러시아군이나 남오세티야 경비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매년 수백 건 발생합니다. 체포된 주민들은 초한 발리의 구금 시설에 억류되었다가 200~500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납니다. 일부는 몇 주에서 몇 달간 억류되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타마즈 긴투리(Tamaz Ginturi)라는 조지아 남성이 경계선 인근의 교회에 기도 하러 갔다가 국경 수비대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닫힌 교회 문 을 열고 들어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은 경계선 인근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체포와 구금은 단순한 ‘국경 관리’가 아닙니다. 조지아 정부의 통치력을 약화시키고, 접경지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전략적 괴롭힘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거나,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이 불안정한 지역을 떠나 트빌리시나 해외로 이주하고, 남은 것은 노인과 빈집입니다.

(3) 경제의 질식과 인도주의적 위기

철조망은 삶의 터전을 가로지릅니다. 농부들은 과수원과 목초지에 대한 접근을 차단당했습니다. 연간 1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잠식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와 양을 치던 목동은 가축을 몰고 갈 길이 끊겼습니다. 시장에 농산물을 팔러 가던 길도 막혔습니다. 지역 경제는 천천히 질식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에 대한 접근도 제한됩니다. 경계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학교가 ‘반대편’에 있으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의료 접근 제한 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EUMM과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인도 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지만, 러시아와 분리주의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OSCE 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역 안보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도전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철조망은 계속 이동하 고, 주민들의 삶은 계속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4)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

‘크리핑 보더’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면전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탱크가 밀고 들어오면 국제사회가 반응합니다. 그러나 철조망이 20미터 이동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관리’로 처리됩니다. 작은 조치의 축적으로 큰 결과를 얻는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이 움직이는 국경을 조지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조지아가 나토나 EU에 접근할 때마다 경계선 밀어내기가 강화되거나 민간인 체포가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이는 조지아 국민들에게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심어 주는 심리전이이기도 합니다.

최근 조지아 국내 정치에서는 이 점령선과 전쟁의 기억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은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여 ‘제2의 전선(Second Front)’을 열려 한다는 주장을 유포합니다. “평화나 전쟁이나”라는 프레임을 통해 유권자들의 전쟁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자신들만이 러시아와의 또 다른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자들은 정부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반박합니다.

국제법상 이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헬싱키 협정(Helsinki Final Act)은 유럽의 국경을 무력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가짜 국경’은 닿으면 체포되거나 사살될 수 있는 치명적인 선입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조지아인들의 일상에서 매일 확인됩니다.

라. 20%의 영토를 잃은 나라의 일상

조지아 전체 영토의 약 20%, 면적으로는 약 1만 2,500제곱킬로미터가 현재 러시아의 사실상 점령 아래 있습니다. 압하지야는 약 8,600제곱킬로미터, 남오세티야(츠хин발리 지역)는 약 3,9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숫자는 지도에서 색칠하면 간단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정체성, 안보, 경제, 정치 전부를 매일 흔드는 의미입니다.

(1) 국내 실향민의 삶과 귀환의 꿈

1990년대 전쟁과 2008년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은 약 27만~3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서 쫓겨난 조지아 인들입니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트빌리시 외곽이나 고리 인근의 정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체로바니(Tserovani) 정착촌은 2008년 전쟁 난민들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에는 약 6,500명이 거주합니다. 수도와 전기는 공급되지만,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실향민들 사이에는 빈곤율이 40%를 초과하고, 실업률도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회를 찾아 트빌리시나 해외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유엔 총회는 2008년 이후 매년 “조지아 영토 내 국내 실향민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실향민의 귀환권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분리주의 당국은 조지아인 실향민의 대규모 귀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환은 정치적 구호로 남아 있고, 세대가 바뀌면서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2) 점령지의 고립과 의존 경제

러시아가 통제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제 무역, 금융, 투자에서 배제됩니다. 이들 지역의 경제는 러시아의 보조금과 군사 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남오세티야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본토로 떠나고, 남은 것은 노인과 군인입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적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압하지야의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그중 압하지야인은 5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조지아인(주로 갈리 지역) 등입니다. 압하지야에서는 관광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지만, 이마저도 주로 러시아관광객에 의존합니다.

최근 압하지야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이 급증하여 전력난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렴한 전기료와 규제 부재를 이용한 채굴 농장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일부 남오세티야 주민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점령지 주민들은 또 다른 비극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3) 단절된 가족과 경제적 비용

영토 분단은 가족과 공동체를 갈라놓았습니다. 강 건너 고향 땅에 있는 부모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척,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조부모.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이런 비극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압하지야의 갈리 지역에는 아직 수 만 명의 조지아인이 거주하지만, 이들은 조지아 본토 친척을 만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분리주의 당국이 통행증 발급을 중단하여 이동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압하지야의 수후미(Sokhumi)는 소련 시절 흑해 연안의 주요 휴양지이자 무역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지아의 경제 순환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정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하고, 보험과 물류 비용이 상승합니다. 접경 지역은 인구 유출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영토 분단으로 인한 조지아의 연간 경제 손실은 GDP의 상당 부분에 달합니다.

(4) 트라우마와 회복력의 공존

조지아의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에는 "조지아 영토의 20%는 점령당했다(20% of Georgia is Occupied)"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조지아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영토 회복"은 선거의 핵심 의제입니다. 2008년 전쟁 책임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공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침략당했다"가,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불을 질렀다"가 정치적 언어가 됩니다.

트빌리시 거리 곳곳에서는 조지아 국기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립니다. 벽마다 "Russia is an occupier(러시아는 점령자다)"라는 그래피티와 푸틴을 비난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고리에 있던 탱크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조지아는 러시아 관광객들과 징집을 피해 도망친 러시아인들로 붐빍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만 명의 러시아인이 조지아로 이주했습니다. 트빌리시와 바투미에서는 러시아어가 들리고, 러시아 화물 트럭들이 조지아 군사 도로를 오갑니다. 조지아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특유의 환대 문화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깊은 경계심과 복잡한 감정이 공존합니다.

영토의 20%가 점령당하고 전쟁의 위협이 상존함에도, 조지아인들은 와인을 빚고 노래를 부르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트빌리시 솔로라키 언덕에 서 있는 '조지아의 어머니(Kartlis

Deda)' 상은 이 나라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왼손에는 친구를 위한 와인 잔을, 오른손에는 적을 위한 칼을 들고 있습니다. 빼앗긴 땅을 바라보는 상실감과 그럼에도 삶을 이어가려는 강인한 회복력이 공존합니다.

분단된 영토는 조지아인들에게 잊힌 과거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하는 아픈 현실이자,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자아의 일부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무력 탈환 대신 유럽 연합 가입과 경제 발전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조지아"를 만들어 점령지 주민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평화적 통합' 정책을 공식 입장으로 내세웁니다. 그것이 실현될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조지아인들의 방식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2장 유럽을 향한 열망과 좌절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EU 후보국 지위 획득과 갑작스러운 중단

2023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정상회의는 조지아에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공식 부여했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던 순간, 트빌리시의 자유 광장에는 환호 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EU 깃발과 조지아 국기가 뒤섞인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조지아인들은 스스로를 유럽 문명의 일원으로 여겨왔습니다. 헌법 제78조에 “유럽 및 유로-대서양 통합을 위한 모든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였습니다. 후보국 지위는 그 오랜 열망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보국 지위는 ‘입장권’이지 ‘결승선 통과’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조지아가 가입 협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9개 핵심 조치(nine steps)’를 제시했습니다. 사법 독립 강화, 반부패 체계 정비, 선거법 개선,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 탈과 두제화(de-oligarchisation)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축하한다, 하지만 이제부 터가 진짜”라는 구조였습니다. EU는 조지아에 기회를 주면서도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제는 2024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권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이른바 ‘외국 영향력의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재도입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3년에도 한 차례 추진되었다가 대규모 시위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와 언론 매체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등록하게 하고 엄격한 감시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법안을 ‘러시아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2012년 러시아가 시민사회를 억압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 대리인법’과 구조가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시민사회 단체들, 독립 언론, 인권 단체들은 서구 재단과 국제기구 지원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외국의 대리인’처럼 프레임하는 순간, 비판 세력 전체를 ‘비국민’으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해왔듯이 말입니다.

2024년 5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의회 표결 결과는 84대 11이었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이를 재의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안은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EU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이 법이 “유럽의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법안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2024년 6월, 유럽이사회는 조지아 정부의 행동이 “유럽 가입 경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고, 가입 절차의 사실상 중단(de facto halt)을 선언했습니다. 조지아에 직접 지원되던 예산이 동결되었고, 고위급 정치 대화도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지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집권당은 공식적으로 EU 통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서방 수사학을 강화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전

쟁 당(Global War Party)’이라는 음모론을 유포하며 서방을 공격했습니다. 서방이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U 입장에서 이런 수사학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조지아의 꿈’이 54%를 득표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국제 선거 감시단은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선거감시단은 유권자 협박, 매수, 이중투표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1월 28일 비구속 결의를 통해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규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후보국 지위는 사실상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EU가 제시한 9개 조건 중 조지아가 진전을 보인 것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반부패, 사법 독립, 시민사회 환경 개선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말의 희망 섞인 분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깊은 불신과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EU의 조건부 접근을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으로 프레임했습니다. 반면 EU는 후보국 지위 자체가 조건부 계약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와 기본권은 선택 과목이 아

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치적 간섭” 혹은 “악속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갈등은 외교 문제를 넘어 국내 정치의 정체성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지아 국민 대다수가 유럽 통합을 강하게 지지하는 상황에서, 즉 ‘국민 정서’와 ‘권력의 선택’이 갈라진 상황에서 중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의 80% 이상이 EU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나침반을 꺾어버릴 때, 외교는 곧 정체성 위기가 됩니다. 조지아는 그 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권당 ‘조지아의 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는 러시아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로, 2012년부터 당을 창당하고 조지아 정치를 좌우해왔습니다. 그가 공식 직함 없이도 실권을 행사한다는 분석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그의 러시아 사업 이력과 인맥이 조지아의 외교 노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집권당은 이런 주장을 “음모론”이라며 일축합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이 의혹은 조지아 정치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국 지위 획득은 조지아 사회가 오래 품어온 유럽 열망의 상징적 성취였지만, 2024년의 법과 제도 변화와 권력의 통치 방식이 EU가 요구한 ‘유럽적 기준’과 충돌하면서, 승격의 감격은 곧바로 “절차 동결”이라는 냉각수로 식어버렸습니다. 조지아는 유럽의 문턱에 도달했다가 스스로 뒷걸음질 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 “2028년까지 EU 협상 동결” 선언의 충격

2024년 11월 28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조지아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외교적 선언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는 “조지아는 2028년 말까지 EU 가입 협상 개시를 의제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EU로부터의 모든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이 왜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2028년은 “다음 분기”가 아닙니다. 정치 사이클로 따지면 대통령 임기 한 번, 의회 임기 한 번을 통째로 건너뛰는 시간입니다. 조지아처럼 후보국 지위가 국내 정치의 정당성 자원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4 년 동결은 외교 정책이라기보다 체제 선택에 가깝습니다.

타이밍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4년 10월 총선이 논란 속에 치러진 뒤, 유럽의 회가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EU의 비판에 대한 역공처럼 보이기 딱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EU가 ‘협상’과 ‘지원’을 지렛대로 조지아를 “협박”한다는 것 입니다. 코바히제 총리는 “시혜처럼 취급받는 통합은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조지아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에 뛰어들라고 압박한다는 주장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른바 ‘전쟁 당(War Party)’ 음모론입니다.

EU 입장에서 이런 프레임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후보국 지위와 가입 협상은 애초에 조건의 묶음입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방치한 채 협상만 열 수는 없습니다. EU는 11월 28 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지아의 선택이 유럽의 길에서 이탈하는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선언이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지아 헌법 제78조는 “헌법 기관은 EU와 NATO로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4년간 협상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헌법적 쿠데타’라고 불렀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뒤따랐습니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지원되던 1억 2,130만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보류했습니다. 유럽 평화 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한 3,000만 유로 규모의 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조지아에 대한 새로운 EU 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정학적 긴장과 국내 정치 위기가 조지아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통화인 라리(GEL) 가치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EU 가입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기대했던 기업들과 청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EU 가입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 유럽의 노동 시장에 접근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2028년까지 논의 중단”이라는 뉴스는 이런 희망의 사다리가 걷어차인 것과 같았습니다.

2025년 1월, EU 이사회는 추가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조지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혜택을 중단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조지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로 해석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까지 19개 EU 회원국이 이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조지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 제재가 검토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의 파트너였던 조지아가 지정학적 경로를 급격히 변경하고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서도 커졌습니다.

선언 직후 조지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터졌습니다. 수도 트빌리시 의회 앞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12월 중순에는 10만 명 규모로 격화되었습니다. 시위는 단지 “친EU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장기 목표를 배신했다”는 배신감의 정치였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정부의 결정을 “반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 사이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누가 누구를 협박 하느냐”라는 감정 싸움으로 논점을 돌리려 했습니다. 실무 개혁의 언어, 즉 사법 독립, 반부패, 언론 자유, 시민 사회 환경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이 도덕적 낙인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친서방과 반서방, 애국과 매국, 주권과 종속. 이런 이분법은 정책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인간 사회는 원래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동결 선언은 “말”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로 실체화되었습니다. 조지아 의회가 외국 보조금(grant)을 정부 승인 아래 두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시민사회 공간을 더 조이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EU가 문제 삼아온 방향, 즉 민주주의 후퇴와 정확히 겹칩니다. 2028 동결은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권력 운영 방식 자체가 EU 기준과 멀어지는 궤적의 상징이 됩니다.

조지아 정부는 한편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서방 제재 회피처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도박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028년까지 동결”의 충격은 단지 EU 가입이 늦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지아 정치가 유럽 통합을 ‘국가적 합의’에서 ‘정파적 선택’으로 강등시켰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유럽은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전장이 됩니다. 조지아 사회가 보인 분노는 “EU를 사랑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의 미래를 내 의사와 무관하게 보류당했다”는 감각에서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헌법의 EU 지향 조항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러시아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지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끊고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회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은 결국 집권 세력의 ‘엘리트 쿠데타’로, 유럽 열망의 좌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깃발 혁명과 Z세대의 저항

‘깃발 혁명’이라는 말은 정식 정치학 용어가 아닙니다. 2024년 조지아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장면을 압축하는 별칭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시위 현장에 EU 깃발이 압도적으로 등장했고, 젊은 세대가 그 상징을 “외교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처럼 들어 올렸다는 점에서, 깃발은 장식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Z세대가 무엇에 반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반응한 것은 EU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이 꺾이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봄 시위를 촉발한 직접적인 도화선은 외국 영향력 관련 법안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중에서도 젊은 층은 그 법이 “투명성”이 아니라 “침묵 강요”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

민사회 단체, 독립 언론, 인권 단체는 조지아에서 서구 재단과 국제기구 지원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외국의 대리인'처럼 프레임하는 순간, 비판 세력 전체를 '비국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러시아식 통치 레퍼토리와 닮았다는 지적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소비에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과 서구 문화를 향유하며 자랐습니다. 이들에게 유럽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본 전제였습니다. 정당의 깃발이 아닌 조지아 국기와 EU 깃발을 나란히 드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50일간 트빌리시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최루가스와 고무탄 진압에도 시위는 지속되었습니다. 10월 총선 이후 다시 점화되었고, 11월 28일 동결 선언 이후에는 17일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20만 명이 모인 날도 있었습니다.

Z세대의 시위 방식은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냅니다.

첫째, 정체성 정치의 선점입니다. Z세대는 "친서방"이라는 말을 정부가 공격 프레임으로 쓰기 전에, 아예 "그래, 우리는 유럽을 원한다"로 선제 점유해버렸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EU 깃발은 "외세 숭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규범, 즉 법치, 자유, 이동권, 교육 기회"의 상징이라는 식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끈질긴 저항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주요 동원 수단이었습니다. 경찰의 최루탄과 물대포 앞에서도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비폭력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좌석 점거, 노래 부르기, 밤샘 농성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공포 관리와 지속성입니다. 시위는 탄압과 충돌 가능성을 동반했습니다. 언론인과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협박 사례가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 젊은 층은 "우리가 물러나면 나라가 되돌아간다"는 역사 감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분노보다 장기적 동원으로 이어지기 쉬운 심리 구조입니다.

넷째,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의 표출입니다. Z세대의 거리 정치는 특정 야당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 '제도 정치 전반'에 대한 경고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메시지는 야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원은 쉽고 조직화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권에도 불편합니다. 방향을 묻는 질문은 늘 책임을 요구하니까요.

정부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과 활동가가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6월과 7월에는 8명의 야당 지도자들이 7~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향후 2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제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구금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타, 고문, 가혹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들까지 공격하고 장비를 파손했습니다.

그러나 진압이 강해질수록 부모 세대까지 시위에 합류하며 저항의 불꽃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학교수, 외교관, 공무원들의 연쇄 파업과 사임도 이어졌습니다. 40개 대학에서 학생 파업이 조직되었습니다. Da oni, Atinati 같은 청년 단체들이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현상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일본 만화 '원피스'의 해적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유와 반권위주의를 상징하는 팬덤 문화가 정치적 저항과 결합한 것입니다. Z세대 특유의 글로벌 감성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깃발 혁명'이 더 큰 불길로 번지는 계기는 2024년 10월 총선 이후의 정당성 위기와 11월 28일의 "2028 동결" 선언이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불신이 이미 쌓여 있던 상황에서, 동결 선언은 "정권이 국민 다수의 장기 목표를 폐기했다"는 감정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의 시위는 단지 법안 반대가 아니라 "국가 경로의 강제 변경"에 대한 저항이 되었습니다.

여권은 시위를 "혁명 시도" 또는 "외부 세력의 조종"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공권력 강화와 규제 입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시위대는 "우리가 외부가 아니라 국민이다"라는 메시지를 깃발로 시각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깃발이 많아질수록 논쟁은 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제도개혁의 실패가 "유럽이나 아니냐"로 축약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할 때 얻는 것은 동원이고, 잃는 것은 해결입니다.

fi 글로벌 연대도 형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지아 시위대가 우크라이나 깃발도 함께 흔든 것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Z세대 저항의 의미는 두 층위로 읽힙니다. 하나는 유럽 통합을 향한 세대적 열망의 가시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후퇴의 조짐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EU 깃발은 외교적 상징이지만,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 "여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공포의 표식입니다.

조지아의 Z세대는 '정치적 선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후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이들의 저항은 2003년 장미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 운동으로 기록되며, 조지아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 앞에서도 EU 깃발을 놓지 않는 젊은 여성의 모습은 이 '깃발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지아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젊은 세대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고독한 싸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의 위치는 2024~2025년 조지아 정치에서 독특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권력의 핵심 결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국가의 얼굴이면서도 국가의 방향키는 다른 손에 잡혀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싸움은 대중적 영웅 서사라기보다, 제도적 한계 속에서 '거부권·발언권·상징 자본'만으로 버티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주라비슈빌리는 1952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아 망명 귀족 가문의 후손입니다. 프랑스 외교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조지아로 돌아왔습니다. 2004년 부터 2005년까지 미하일 사카슈빌리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아의 꿈'의 지지를 받아 5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전후로 그녀는 여당과 결별했습니다. 정부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친러시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독"은 단순히 외로운 성격 같은 게 아닙니다. 구조적입니다.

첫째, 헌법적 역할의 제약입니다. 조지아는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한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의회 다수파가 마음먹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재의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봄 외국 영향력 법안 국면이 상징적입니다. 주라비슈빌리는 그 법을 위험적이고 EU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뒤집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라고 외칠 수는 있어도 “정지” 버튼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정당정치 고립입니다. 대통령이 유럽 노선을 강하게 옹호할수록, 여권은 그녀를 ‘야권 편’으로 몰아붙이기 쉽습니다. 2024년 말 동결 선언 이후, 대통령은 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의 시위대와 결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분열’의 한 축으로 프레이밍될 위험을 떠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침묵하면 “대통령이 국가의 방향 전환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따라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셋째, 국제관계에서의 비대칭입니다. EU와 서방 파트너들은 조지아의 공식 정부와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서방에게 “조지아 안에도 유럽을 지키려는 제도적 목소리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 정치권 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EU도 조지아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노선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핵심 파트너는 행정부와 의회 다수파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 수는 있어도,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국제무대에서 “상징적으로는 강하지만, 집행력은 약한” 위치에 머뭙니다.

그럼에도 주라비슈빌리의 싸움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유럽 노선의 ‘합법성’ 보존입니다. 정부가 EU 절차를 사실상 동결하고 시민사회 공간을 조이는 방향으로 갈 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조지아 국가 전체가 그 방향으로 합의한 건 아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정치의 싸움은 당장 이기지 못해도, 기록이 다음 싸움의 무기가 됩니다.

둘째, 시민사회에 대한 방파제 역할입니다. 외국 영향력 법안 같은 사안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과적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환기하고 국내적으로도 ‘정상화’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력화된 거부권조차, 최소한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절차로 통과한 무해한 법”이라는 서사를 깨뜨립니다.

셋째, 거리와 제도의 연결 고리입니다. 조지아의 시위는 “반정부”이기도 하고 “친유럽”이 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거리의 언어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을 때, 거리의 분노가 전면적 체제 부정으로 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연결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권은 이를 ‘대통령의 정치 개입’으로 공격할 수 있고, 야권은 대통령을 ‘동원 자원’으로만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 단절보다 연결이 낫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절벽 앞에서야 연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주라비슈빌리는 분열된 야권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조지아 헌장(Georgian Charter)’이라는 정치적 협약을 주도했습니다. 이 헌장은 친유럽 야당들이 2024년 총선 승리 시 수행해야 할 개혁 과제들과 EU 가입 절차 복귀를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헌장을 통해 야당들이 단일한 목표 아래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선거를 통해 평화 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여 조지아를 다시 유럽

의 길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제한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2024년 시위와 관련하여 수감된 야당 정치인 두 명을 사면함으로써 사법적 탄압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나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집권당은 그녀를 '외국 영향력을 받는 대리인'이라 비난하며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 10월에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녀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등 치졸한 보복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불법적인 의회가 선출하는 후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지 않겠다"며 대통령궁에 머물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결정이 '헌법적 쿠데타'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CNN 등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지아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EU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지아 시민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024년 12월 유럽의회에 연사로 초청되어 "조지아의 꿈은 러시아의 에이전트"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격화될 때마다 그녀는 궁 앞 광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유럽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트빌리시의 대통령 궁에서 내려다보는 시위대의 깃발 물결은 그녀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2028년까지 닫혀버린 유럽의 문 앞에서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조지아는 EU와의 관계가 복원되기보다는 더 거칠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의회가 외국 자금 및 시민사회 활동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EU는 이런 방향이 조지아의 EU 열망을 스스로 훼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라비슈빌리의 싸움은 승리의 서사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꿨을 때 도, 반대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증거는 때로 국경보다 오래 갑니다.

실권이 제한적인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트빌리시의 대통령 궁을 민주주의의 보루로 만들었습니다. 여당에 의해 탄핵 위협과 정치적 고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리의 시위대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의 투쟁은 권력을 잃어가는 대통령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방향키를 다시 서쪽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지아 민주주의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조지아 민주주의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2025년 현재, 탄핵 재추진 위협 속에서도 그녀는 조지아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역사적인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Z세대 시위대에게 그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에 맞선 1인의 고독한 투쟁이었지만, 조지아 시민들에게는 '유럽 조지아'의 희망을 상징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3장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조지아의 지도를 펼쳐보면 이 작은 나라가 짙어진 지정학적 운명의 무게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쪽으로는 코카서스 산맥 너머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이란이 역사적 영향권을 주장합니다. 서쪽 흑해를 건너면 유럽이 있고, 동쪽 카스피해 너머로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이 기다립니다. 조지아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한복판에 놓인 말(駒)입니다.

370만 인구에 남한의 3분의 2 크기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국제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지아의 외교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국가의 존속을 건 줄타기입니다.

가. 러시아의 그림자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1)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

2008년 8월, 러시아군이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5일간의 짧지만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탱크는 수도 트빌리시에서 불과 40킬로미터 떨어진 고리(Gori)까지 진격했습니다. 고리는 스탈린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러시아는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조지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의 20%를 사실상 잃었습니다. 러시아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 소수 국가만이 이 두 지역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나머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으로 간주합니다.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어오는 국경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 군인들과 남오세티야 경비대가 밤사이에 철조망을 조금씩 조지아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 기입니다. 과수원이 어느 날 점령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상의 묘지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괴담이 아닙니다. EU 감시단(EUMM)이 문서로 기록한 현실입니다.

2015년에는 바쿠-수프사(Baku-Supsa) 송유관의 일부 구간이 점령지로 편입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마저 이 ‘기어오는 국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 에너지 통로로서의 전략적 가치

러시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땅에서 조지아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지리에 있습니다. 조지아는 러시아를 우회하여 카스피해의 에너지를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바쿠-트빌리시-제이한(BTC) 송유관이 대표적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시작해 조지아의 트빌리시를 거쳐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의 제이한까지 1,768킬로미터를 달립니다.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 영토를 한 치도 밟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냉전 종식 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공동으로 건설한 전략 자산입니다.

가스관도 있습니다. 남코카서스 파이프라인(SCP, South Caucasus Pipeline)은 아제르바이잔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조지아를 거쳐 튀르키예로 보냅니다. 이 가스는 다시 TANAP(Trans-Anatolian Pipeline)와 TAP(Trans-Adriatic Pipeline)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소위 '남부 가스 회랑(Southern Gas Corridor)'의 핵심 구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가스관 시스템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튀르키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자체는 원유나 천연가스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그러나 '통과국(transit country)'으로서의 가치는 막대합니다. 통과료 수입은 물론, 일정량의 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권리도 얻습니다.

(3) 에너지 무기화의 그림자

러시아는 오랫동안 에너지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2006년 1월, 러시아 가즈프 롬(Gazprom)이 조지아에 공급하던 가스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고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대

표적입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조지아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대통령의 친서방 노선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조지아로 하여금 에너지원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가스 도입을 늘렸습니다. BTE(바쿠-트빌리시-에르주룸) 가스관 건설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조지아의 아제르바이잔 가스 의존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탈러시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정책연구소(FPRI)의 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러시아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디젤 등 정유제품의 러시아 의존도도 2021년 이후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규모는 1억 4,57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Jamestown Foundation)의 2025년 3월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는 2025년에 러시아로부터 2024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조지아의 가스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집 권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정부의 러시아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4) 중간 회랑과 녹색 에너지의 미래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지아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러시아를 통과하는 북부 회랑(Northern Corridor)의 위험성이 드러나자,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를 거쳐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는 이 회랑의 핵심 국가들입니다. 아시아철도연맹(Asian Rail Alliance)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간 회랑의 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직 전체 중국-유럽 컨테이너 물동량의 7.8%에 불과하지만,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2022년 12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루마니아, 헝가리 4개국은 흑해 해저 전력 케이블 건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유럽으로 송전하는 '녹색 에너지 회랑(Green Energy Corridor)' 프로젝트입니다. EU가 러시아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조지아는 단순한 원유·가스 통과국을 넘어 유럽의 재생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허브로 도약하게 됩니다.

(5) 모순 속의 균형

조지아의 에너지 정책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서방의 안보 이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제품을 수입합니다. 러시아에 영토를 점령당한 채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관광객 190만 명(2024년 기준)을 맞이합니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월슨센터(Wilson Center)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조지아-러시아 양국 무역액은 약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들어오는 송금액은 2024년에 65%나 급감하여 5억 4,0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정황도 있습니다. 월슨센터 보고서는 조지아가 러시아의 국제 제재 우회 창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석유 자원이 전무한 조지아에서 2023-24년 사이에 스페인으로 9만 9,000톤의 '조지아산 석유'가 수출되었다는 통계가 그 근거입니다. 2024년에는 조지아로 수출된 요트의 양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는데, 평균 소득이 높지 않은 나라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러시아의 그림자는 군사적 점령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무역, 금융, 정보전의 형태로 조지아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서방의 필요와 경제적 생존이라는 조지아의 현실 사이에서, 이 작은 나라는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나. 미국 USAID 지원 중단 의미

(1) 30년 파트너십의 균열

1991년 소련 해체 직후부터 미국은 조지아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1992년부터 조지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약 60억 달러가 이 작은 나라에 투입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구축, 경찰 개혁, 사법 시스템 현대화, 농업 기술 이전, 중소기업 육성, 교육, 보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USAID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는 '조지 W. 부시 거리(George W. Bush Street)'가 있습니다.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조지아 방문을 기념하여 명명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지아와 미국의 관계는 각별했습니다.

2024년, 이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2) 외국 대리인법과 서방의 반발

2024년 5월, 조지아 의회는 '외국 영향력 투명성에 관한 법률(Law 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의 20% 이상을 지원받는 비정부기구(NGO)나 언론 매체를 '외국 영향력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을 거부하면 벌금 25,000라리(약 9,300달러)가 부과됩니다.

비판자들은 이 법을 '러시아 법(Russian Law)'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가 2012년부터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해온 '외국 대리인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트빌리시 중심가 루스타벨리 대로에서는 수만 명이 모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EU 깃발과 조지아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경찰은 최루 가스와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24년 7월, 미 국무부는 조지아 정부에 대한 9,5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SAID 대변인은 "정부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을 중단하되, 조지아 국민을 직접 돕는 프로그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농민, 시민사회, 독립 언론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축소와 충격파

2025년 1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해외 원조에 대한 90일 동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2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USAID의 6,000개 이상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500개만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3%가 삭감된 셈입니다. USAID 인력은 8,00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문 닫아(CLOSE IT DOWN)"라고 적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를 "범죄 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지아에 대한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보이시스(Global Voices)의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의 NGO와 국제 원조 활동이 "중단 상태(grinding to a halt)"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연례 하계 학교 프로그램, 루가르 공중보건연구소(Lugar Lab)의 연구 프로젝트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루가르 연구소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생물무기 개발 시설'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려온 미국 지원 연구소입니다.

(4) 집권당의 환영과 반서방 수사

흥미롭게도 집권 '조지아의 꿈' 정부는 미국의 USAID 축소를 환영했습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는 이를 "미국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2025년 2월 분석에 따르면, 코바히제 총리 자신이 2000-2001년 USAID의 공교육 프로젝트 지역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지아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는 "이 웹사이트는 USAID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USAID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조지아 정치의 급격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지아의 꿈' 정부는 서방을 향해 점점 더 적대적인 수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사들은 미국과 EU가 조지아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제2의 전선(Second Front)'을 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당 창립자는 2024년 4월,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두 서방의 '글로벌 전쟁 세력(Global War Party)'이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크렘린의 대외 선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FPRI 보고서는 이를 두고 “크렘린에 정렬된 서사가 조지아 집권층 내부에 내면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5) 시민사회의 생존 위기

USAID 지원 중단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시민사회에 집중됩니다.

조지아 시민사회 단체의 상당수는 해외 자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국내 자선 기부 문화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탓입니다. USAID, EU, 각국 대사관, 민주주의국가재단(NED) 등이 주요 재원이었습니다. 선거 감시 단체인 ‘공정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협회(ISFED)’, 탐사 저널리즘 매체들, 인권 감시 조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외국 대리인법 통과 후, 400개 이상의 조지아 NGO와 언론사가 등록을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법은 우리나라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개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유유럽방송(RFE/RL)의 2024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벌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방 기부자들은 “벌금을 대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우리는 법치를 존중한다. 벌금을 내는 것은 그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AID와 EU 모두 보조금 협정에 벌금 대납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조지아 의회는 더욱 강화된 새로운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등록 거부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제인 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이 법이 활동가와 단체에게 “외국 대리인이라는 낙인을 받아들이거나, 감옥에 가거나, 망명을 떠나거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라는 “거짓 선택지”를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지정학적 함의: 신뢰의 상실

USAID 지원 중단의 의미는 단순한 자금 문제를 넘어섭니다.

첫째, 조지아가 더 이상 서방의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트너’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외교적 경고입니다. EU는 이미 3,000만 유로 규모의 국방 지원을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EU 양측이 조지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비자 제재와 자산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지아 내 친서방 세력의 동력이 약화됩니다.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국민의 EU에 대한 신뢰도는 2024년 봄 66%에서 2025년 봄 49%로 하락했습니다. 1년 사이에 17%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서방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습니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에게 빈 공간을 채울 기회가 생깁니다.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의 2025년 2월 분석은 “이전 행정부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최전선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이자 이익이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이탈하여 자유의 친구들이 어둠 속으로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비판입니다.

트빌리시의 힙한 카페에서 자유분방한 공기를 마시는 여행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 뒤에는 언제 달릴지 모르는 서구로 향한 문에 대한 청년들의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다. NATO 가입의 꿈과 지정학적 한계

(1) 헌법에 새겨진 열망

조지아 헌법 제78조는 국가기관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의 “완전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에 특정 국제기구 가입을 의무로 규정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만큼 NATO와 EU 가입은 조지아 국민에게 국가의 생존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론 조사는 일관됩니다. 조지아 국민의 80% 이상이 EU 가입을 지지합니다. NATO에 대한 지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서구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트빌리시를 걷다 보면 조지아 국기 옆에 나란히 걸린 EU 깃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공 서마다, 카페마다, 심지어 택시에도 EU 깃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조지아는 아직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NATO 회원국도 아닙니다. 그러나 깃발은 이미 펄럭입니다.

(2) 부쿠레슈티의 약속과 그 한계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는 역사적인 선언을 남겼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NATO의 회원국이 될 것(will become members of NATO)”이라는 내용입니다. NATO 역사상 처음으로, 가입 행동 계획(MAP)을 시작하기도 전에 장래 회원 자격을 약속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NATO 사무총장 야프 더 호프 스헤퍼(Jaap de Hoop Scheffer)는 “이 나라들이 NATO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이를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그들의 북미·유럽 지지자들에게 전략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실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부쿠레슈티 선언은 MAP 부여를 유보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4개월 후인 2008년 8월,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NATO 가입 시도는 곧 전쟁”이라는 러시아의 명확한 ‘레드라인(red line)’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 영토 분쟁이라는 구조적 장벽

조지아의 NATO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미해결 영토 분쟁입니다.

NATO 헌장 제5조는 집단방위 조항입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지아가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 조지아 가입 시 NATO는 러시아군에게 철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하면 제5조가 발동되어 NATO와 러시아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기존 회원국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NATO 가입은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32개 회원국 중 단 하나라도 반대하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영토 분쟁을 안고 있는 국가를 받아들여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감수할 회원국은 없습니다.

(4) 집권당의 이중적 태도

최근 '조지아의 꿈' 정부의 행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NATO 통합 의무를 말로는 존중하면서, 실제로는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코바히제 총리는 "현재 NATO에는 확장의 과제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이 조지아를 '제2의 전선'으로 삼으려 한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평화의 수호자'로, 서방과 야당을 '전쟁 세력'으로 프레 이밍합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2025년 6월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의 꿈'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로 'NATO와 EU를 위한 정보센터'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2005년 친서방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NATO와 EU의 가치를 홍보하고 가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NATO 주재 조지아 연락사무소는 이에 대해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의 조지아 회원국 결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 정상회의에서의 배제

조지아 정부와 NATO의 관계 악화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2023년 7월 빌뉴스(Vilnius) NATO 정상회의에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당시 총리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한 직후였습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도 코바히제 총리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NATO 창설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였습니다.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조지아는 단 한 문장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2008년 부쿠레슈티 결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도 없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모든 정상회의 선언문 중 전례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2025년 5월, NATO 의회 총회(NATO Parliamentary Assembly) 데이턴 회의에서 조지아 의회 대표단의 투표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조지아 의회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조지아의 꿈'은 코바히제 총리가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초청 받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6) 핀란드·스웨덴과의 대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랜 중립국이었던 두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스웨덴은 2024년 3월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른 가입 절차였습니다.

조지아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부러움'과 '박탈감'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조지아는 핀란드나 스웨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NATO 가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비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군사 시스템을 NATO 표준에 맞춰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 불만은 정부에 의해 NATO 회의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오폴리틱스'의 2024년 분

석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MAP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NATO가 결정한 반면, 조지아에게는 여전히 MAP가 "통합 과정의 필수적 부분"이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연례 국가 프로그램(ANP)을 15차례나 이행했음에도 말입니다.

NATO 가입의 꿈은 점점 현실 정치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의 실리 외교가 채우고 있습니다.

라. 튀르키예·중국·이란, 새로운 변수들

(1) 다변화의 필요성

서구와의 관계가 뼈격거리는 사이, 조지아는 전통적인 '서방 바라기'에서 벗어나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다변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중국, 이란이 그 핵심 대상입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의 2024년 8월 분석은 조지아가 "서방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장기적인 유라시아 전환(Eurasian pivot)에 착수했다"고 진단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안정화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변화입니다.

(2) 튀르키예: 경제적 생명줄

튀르키예는 조지아의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조지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며, 서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NATO 회원국입니다.

아자라(Ajara) 자치공화국의 수도 바투미(Batumi)는 사실상 튀르키예 경제권입니다. 스카 이라인을 채우는 고층 호텔과 카지노 상당수가 튀르키예 자본으로 지어졌습니다. 튀르키예 국경에서 불과 30분 거리인 바투미는 주말이면 도박이 금지된 튀르키예에서 넘어온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에너지와 물류 측면에서도 튀르키예는 핵심입니다. BTC 송유관과 남코카서스 가스관의 종착지가 튀르키예입니다.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연결하여 중국에서 유럽까지 화물을 운송합니다. 조지아는 이 '중간 회랑'의 핵심 구간입니다.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 3국 협력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 안보 축으로도 기능합니다. 2025년, 미하일 카벨라슈빌리(Mikheil Kavela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지아에게 튀르키예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전면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NATO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BRICS 가입을 신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3)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조지아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의 핵심 거점입니다. 카스피해와 흑해를 잇는 '중간 회랑'의 병목 구간에 조지아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조지아와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조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만 및 신장·티베트 문제에서 베이징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지아의 영토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조지아 정부는 아나클리아(Anaklia) 심해항 개발 사업자로 중국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중국통신건설(CCC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이 주도하고 싱가포르의 칭포트(Qingdao Port International), 중국도로교량공사(CRBC)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입니다. 1단계 투자 규모만 6억 달러입니다.

아나클리아 심해항은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흑해 연안에 위치한 이 항구는 중간 회랑의 핵심 물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51%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CCC는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목적의 인공섬 건설에 관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도로교량공사(CRBC)는 세계은행으로부터 필리핀 사업에서의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미 의회는 2025년 5월 '메고바리법(MEGOBARI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지아의 책임성, 회복력, 독립성 구축을 위한 동원 및 강화 법'의 약자이며, '메고바리'는 조지아어로 '친구'를 뜻합니다. 이 법은 유로-아틀란틱 통합을 저해하는 조지아 정부 인사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아나클리아 항구의 중국 개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4) 중국 자본의 확산

중국의 조지아 진출은 아나클리아 항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도로교량공사는 2018년부터 조지아에서 활동하며 동서 고속도로의 우비사-쇼라파니(Ubisa-Shorapani) 구간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최대 규모의 크베셰티-코비(Kvesheti-Kobi) 터널 공사도 중국 기업이 수행합니다. 이 터널은 러시아 국경으로 이어지는 조지아 군사 도로의 핵심 구간입니다.

FPRI의 2024년 12월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조지아의 인프라와 전략적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며 "이 나라의 경제적 발자국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국의 "유라 시아 전역에서 연결성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더 넓은 목표에 부합"합니다.

중국은 이제 조지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입니다. 수입 3위, 수출 4위를 차지합니다. 조지아의 서방 관계가 소원해지는 틈을 타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서방 자금은 대체로 거버넌스, 투명성, 규범 준수를 요구합니다. 중국 자금은 프로젝트 성과와 담보 구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의 제도적 체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릅니다.

(5) 이란: 제재 속의 기회

이란은 조지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조지아를 지배했던 역사적 인연이 있습니다. 최근 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카네기 재단 분석에 따르면, 코바히제 총리는 2024년 5월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의 헬리콥터 사고 사망 이후 두 차례나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따뜻한 관계의 길을 닦을 가능성”이 있는 행보입니다.

이란에게 조지아는 유럽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막힌 서쪽 길을 흑해와 코카서스를 통해 우회할 수 있습니다. ‘남북 수송로(North-South Corridor)’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조지아 흑해 항구까지 연결하는 물류망 구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가 참여하는 ‘3+3 플랫폼’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에서 조지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관계 강화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미국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가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넓히면 서방의 제재 우회 창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FPRI의 2024년 12월 분석은 러시아, 이란, 중국이 “에너지, 금융, 기술에서 미국 주도 제재 체제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하는 수정주의 축(revisionist axis)”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지아가 이 축에 편입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6) 다극화 시대의 생존법

결국 조지아는 “러시아나 서방이나”라는 이분법을 넘어선 다차원 방정식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실존적 위협, 멀어지는 NATO와 미국의 우산, 에너지 통로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 틈을 파고드는 튀르키예의 경제적 실용주의, 중국의 거대 자본과 인프라 야망, 이란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의 2025년 12월 분석은 현재의 지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 크렘린에 저항하며 서방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EU 및 미국과 무역·에너지 관계를 심화하려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된다. 이 시점에서 조지아만이 남코카서스에서 유일한 반서방 행위자이며, 수정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에 동조적이다.”

이 분석이 과장인지, 정확한 진단인지는 앞으로의 전개가 말해줄 것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인지 ‘임기응변’인지도 시간이 답할 것입니다. 임기응변은 대개 강대국이 가장 좋아하는 상대입니다.

여행자가 카헤티의 와인 잔을 기울이며 느끼는 그 미묘한 긴장감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빚어낸 역사의 향기일지도 모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4장 체제 전환의 명암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제4부 조지아의 경제와 사회

가. 소련 붕괴 후 경제 붕괴와 부패

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깃발이 크렘린 위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조지아는 70년 만에 독립을 되찾았지만, 자유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조지아가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총체적 붕괴였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조지아는 '소련의 정원'이라 불렸습니다. 흑해 연안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감귤, 차(茶), 담배, 포도가 풍성하게 자랐고, 조지아산 와인과 코냑은 모스크바의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지아를 '소비에트의 이탈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시 조지아 인들의 생활 수준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생산과 유통의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경제'에서 이루어졌고, 이 암흑의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사라지자, 조지아 경제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중앙 계획 경제 체제가 해체되면서 공급망이 끊겼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던 원자재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러시아 시장에 팔던 농산물과 공산품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국영 기업들은 주문도, 자금줄도 동시에 잃었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숫자는 재앙의 규모를 말해줍니다. 1990년과 1994년 사이, 조지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70~80퍼센트나 급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록에 따르면, 1990년 약 60억 달러에 달하던 GDP가 1994년에는 15억 달러 미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화폐 가치는 종잇조각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독립 직후 도입한 '쿠폰'이라는 임시 통화는 끝없이 찍혀 나왔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993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7,600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가방 가득 지폐를 담아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월급을 받으면 점심때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고통은 정치적 혼란과 맞물렸습니다.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에서 분리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내전은 수십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냈고, 국가 재정을 파탄 냈습니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트빌리시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 사이 쿠데타와 정변이 이어졌고, 첫 대통령 즈비아드 감사 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는 축출당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고통의 장면은 전력 위기였습니다. 전기는 현대 사회의 혈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조지아에서는 그 혈관이 막혔습니다. 전력망이 파괴되거나 작동을 멈췄고, 시민들은 하

루에 겨우 몇 시간만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는 당시 소비 자가 '하루 몇 시간만 전기를 공급받는'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이 급락했다고 기록합니다. 2001년 겨울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트빌리시의 아파트들이 하루 4시간 정도만 전기를 공급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이 상합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에 얼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상점이 문을 닫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됩니다. 치안도 무너집니다. 어두운 거리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도심의 가로 수를 베어 땔감으로 썼습니다. 트빌리시의 아름다운 거리는 황폐해졌습니다.

이 붕괴의 틈새를 파고든 것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보르 브 자코네(Vor v Zakone)', 한국어로 번역하면 '법(法)의 도둑' 또는 '법 도둑'이라 불리는 전문 범죄 집단이 조지아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이 용어는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도둑이지만, 자신들만의 '법'과 규약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 굴라그(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난 이 범죄 문화는 소련 붕괴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지아는 이 범죄 네트워크의 요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약 700~900명으로 추산되던 '법 도둑' 우두머리들 중 거의 절반에서 3분의 2가 코카서스(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 관료, 기업인과 결탁하여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공식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자, 이들이 사실상의 '그림자 정부'가 되었습니다. 분쟁을 중재하고, 보호세를 걷고, 일자리를 주선하고, 심지어 '정의'를 집행했습니다.

'므헤드리오니(Mkhedrioni)'라는 준군사조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사(騎士)'라는 뜻의 이 무장 단체는 1990년대 조지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총을 들고 다녔고, 사업체에서 보호세를 뜯어냈고, 정치적 암살과 협박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국가의 폭력 독점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력을 가진 자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부패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부패 없이는 일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니 정부는 공무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생존을 위해 뇌물에 의존했습니다. 교통 경찰은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를 세워 대놓고 돈을 뜯어냈습니다. 대학 입학에는 뇌물이 필수였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의사 주머니에 돈을 넣어야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세관, 경찰, 세무서, 법원 등 국가 기관과 마주치는 모든 접점이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조지아는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2003년 조사에서 조지아는 133개국 중 12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부패는 '국가의 거래 비용을 폭증시키는 변수'였습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 대신 관리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자원을 쏟아야했습니다. 투자자는 규칙을 믿지 못하니 투자를 꺼렸습니다. 시민들은 법을 따르기보다 우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회 전체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보다 '리스크 회피'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가 이끄는 정권은 이 혼란 속에서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부패를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셰바르드나제는 소련 시절 외무장관을 지낸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내전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의 정권 자체가 부패 구조와 공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서방 투자자들은 실망하여 떠났습니다. 조지아는 '희 망이 없는 나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살아낸 조지아인들에게 1990년대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암시장과 지하 경제에 의존하여 생존했습니다. 이웃끼리 물물 교환을 하고, 해외로 나간 친척들의 송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가족 중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조지아의 인구는 1989년 약 540만 명에서 2001년 44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 붕괴, 내전, 그리고 희망의 부재가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바닥 경험이 이후 개혁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이 급진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03년, 조지아인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장미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 사카슈빌리의 급진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2003년 11월 2일, 조지아에서 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공식 발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세바르드나제 정권의 노골적인 부정 선거였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트빌리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꽃가게에서 장미를 사 손에 들고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11월 22일, 시위대는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젊은 야당 지도자 미헤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가 장미꽃을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세바르드나제는 사임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장미 혁명(Rose Revolution)'이라 부릅니다.

사카슈빌리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서른 다섯 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된 그는 조지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충격 요법(shock therapy)'에 가까웠습니다. 점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카슈빌리는 집권하자마자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어떤 범죄 권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 도둑'이라는 지위 자체를 불법화했습니다. 범죄 조직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조직범죄 보스 중 하나였던 자카르 칼라쇼프(Zakhar Kalashov)의 호화 저택과 재산이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그의 3천만 달러짜리 빌라는 경찰서나 공공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범죄로 부를 축적해도 그것이 결국 빼앗긴다는 메시지를 전 사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개혁은 경찰 조직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카슈빌리는 부패의 온상이었던 교통경찰 전체를 하루아침에 해고했습니다. 약 3만 명의 경찰관이 일시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경찰 조직을 구성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경찰 없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치안 공백이 우려되었지만, 범죄가 오히려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기존 경찰이 그만큼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새로 선발된 경찰관들의 급여는 이전보다 10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 대신 뇌물 수수는 일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을 상징하기 위해 새 경찰서 건물은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누구나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유리 경찰서'는 사카슈빌리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뇌물 요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국가 기

관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2011년 '하우스 오브 저스티스(House of Justice)'라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입했습니다. 여권 발급,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출생 및 혼인 신고 등 거의 모든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 과거에는 뇌물을 주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던 업무가 이제는 단 몇 분, 길어야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건물 자체도 투명한 유리로 지어져 어떤 비리도 숨길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대기표를 뽑고 깔끔한 공간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중간에 손을 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규제 혁파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갖가지 인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사카슈빌리 정부는 이런 요건의 대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2005년 조지아 정부는 인허가 요건의 약 84퍼센트를 제거했습니다. 라이선스와 허가 품목 수가 1,000개에서 100개 미만으로 줄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기업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며칠에서 하루, 심지어 몇 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세제 개혁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하던 세금 구조가 단순해졌습니다. 2004~2005년 개혁에서 세율 종류가 21개에서 7개로 줄었고,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에서 20퍼센트 단일세율(at tax)로 바뀌었습니다. 세금 신고도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율을 낮추고 제도를 단순하게 만들자,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조세 수입은 2003년 12퍼센트 수준에서 2010년 25퍼센트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내고 싶지 않은 부담'에서 '낼 수 있는 비용'으로 바뀌자, 지하 경제가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국제 평가에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에서 조지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2005년 112위였던 조지아는 2012년 세계 8위, 2020년에는 세계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구소련 국가 중에서는 단연 1위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업 시작 용이성에서 세계 2위, 재산 등록에서 5위, 소액 투자자 보호에서 7위, 계약 이행 강제에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 국가'라는 낙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타이틀로 바뀐 것입니다.

도시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사카슈빌리 정부는 낡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흑해 연안의 바투미는 화려한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며 '코카 서스의 라스베이거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트빌리시에는 미래주의적 디자인의 유리 다리와 콘서트홀이 세워졌습니다. 투명한 유리 건축물은 사카슈빌리가 추구하는 '투명성'과 '현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사카슈빌리의 개혁은 급진적이었던 만큼 비판도 받았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과 그 측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 대한 탄압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법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 문서조차 반부패 성과와 별개로 사법 독립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사카슈빌리는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해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fl 2012년 의회 선거에서 사카슈빌리의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은 억만장자 사업가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가 이끄는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연합에 패배

했습니다. 2013년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사카슈빌리는 정치적 기소를 피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의 개혁 유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구축한 행정 시스템과 반부패 기조가 현대 조지아 경제의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우스 오브 저스티스'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 기조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2024년 'Business Ready' 보고서에서도 조지아는 규제 효율성 3위, 운영 효율성 2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낮은 세율과 디지털 노마드 특구

조지아가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가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는 자국을 '코카서스의 싱가포르'로 포지셔닝하며, 낮은 세율과 개방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 기업가,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라 불리는 원격 근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조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고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현재 조지아에는 소득세(20퍼센트), 부가가치세(18퍼센트), 법인세(15퍼센트), 관세(0퍼센트, 5퍼센트, 12 퍼센트 세 구간), 소비세, 재산세 등 단 6종류의 세금만 존재합니다. 복잡한 세금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단순함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20퍼센트의 단일세율(at tax)입니다. 누진세 구간이 없어서 소득이 얼마든 같은 비율을 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더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지위(Small Business Status)'를 얻으면 세율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연 매출 50만 라리(약 1억 8천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매출의 단 1퍼센트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복잡한 공제 규정 대신, 간단한 매출 기반 저율 과세입니다. 연 매출 3만 라리(약 1,1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아예 세금이 면제됩니다.

법인에도 파격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조지아는 '에스토니아식 법인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익이 회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세금이 없고, 배당으로 빠져나갈 때만 과세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성장기 기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IT 산업에는 더욱 파격적인 특례가 있습니다. '가상 존(Virtual Zone)' 또는 '가상 존 인격(Virtual Zone Person, VZP)'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IT 기업은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수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0퍼센트입니다. 조지아 안에서 코드를 짜서 해외로 팔면 법인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조지아가 "인력과 코드를 수입해 외화 수익으로 바꾸려는" 정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공장을 유치하는 대신 노트북을 유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업(International Company)' 지위도 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 메뉴를 마련해놓고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구'라는 표현은 물리적인 공단이나 울타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의 특구는 법적 지위와 자격에 기반한 '가상 특구'입니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짓는 대신, 특정 업종(해외 고객 대상 IT 서비스)과 특정 납세자(자격을 갖춘 개인 사업자나 법인)에게 다른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행정 비용이 낮고, 실패해도 철회가 비교적 쉽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리스크가 작은 실험입니다.

체류 정책도 관대합니다. 조지아는 한국을 포함한 90개국 이상 국민에게 1년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해서 364일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인데, 원격 근무까지 허용됩니다. 비자 스트레스가 없으니 "일단 살아 보자"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조지아는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Remotely from Georgi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격 근무자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국경을 닫았을 때 조지아는 오히려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건강 검진 등 방역 조치는 있었지만,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조지아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렴한 물가도 큰 매력입니다. 트빌리시 중심가의 괜찮은 아파트 월세는 300~600달러 수준입니다. 서울이나 뉴욕, 런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외식 비용도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와인 한 병과 함께 푸짐하게 저녁을 먹어도 20~30달러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속도는 빠르고, 코워킹 스페이스와 카페 등 일하기 좋은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트빌리시는 세계적인 디지털 노마드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온라인 사업가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조지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조지아에서 살면서 미국이나 유럽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지아의 낮은 세율과 저렴한 물가 덕분에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 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유럽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조지아는 기회의 땅입니다.

가상 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도 우호적입니다. 조지아는 저렴한 수력 발전 전기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유치했습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금융 환경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마드와 외국인 유입은 임대료와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외국인 수요가 도시 임대료를 밀어올리면, 현지 중산층과 청년층이 가장 먼저 밀려납니다. 평균 월급이 1,000~1,500라리(약 50~70만 원) 수준인 일반 조지아인들에게 월세 700 달러(약 90만 원) 이상의 아파트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성장했다"는 통계와 "내 월세가 감당 불가능해졌다"는 체감 사이의 간극은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마드 친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 공급과 도시 인프라 확충, 내국인 소득 증가, 세수의 재분배와 서비스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좋은 나라'가 '자국민에게 비싼 나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라. 러시아 자본 유입의 두 얼굴

조지아 경제에서 러시아는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영토의 20퍼센트를 점령당한 나라가 그 침략국의 자본과 인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이것이 조지아의 아이러니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현상이 조지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조지아로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째, 징집을 피하려는 젊은이들. 둘째, 서방의 제재로 사업 기반이 흔들린 기업인과 전

문직 종사자들. 셋째, 푸틴 정권에 반대하지만 감옥에 가기는 싫은 반체제 성향의 시민들.

추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조지아로 이주했습니다. 어떤 자료는 12만 명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트빌리시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200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고학력, 고숙련 인력이었습니다. IT 개발 자, 디자이너, 마케터, 기업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막대한 현금을.

단기적 효과는 눈부셨습니다. 2022년 조지아의 GDP 성장률은 11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전쟁의 '반사 이익'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7~9퍼센트대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소비가 서비스업을 살렸습니다. 주거, 음식, 교통, 통신, 교육, 코워 킹, 전문 서비스(법률, 회계, 번역)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바투미와 트빌리시의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환전소와 상점들은 밤늦게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트빌리시 거리는 러시아어로 가득 찼습니다.

외화 유입도 대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져온 송금과 자본 이동은 조지아 통화 라리(GEL)의 가치를 지탱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지아가 러시아발 이주와 자본 유입의 '스필오버(spillover, 파급 효과)'로 2022~2023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지아 국립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도 2022년 이주 증가가 부동산 수요를 크게 자극했음을 인정합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와 무역 수요도 조지아로 몰렸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조지아를 경유지로 활용했습니다. 운송 및 물류 섹터가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조지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했습니다.

기업 설립과 인적 자본 유입도 이루어졌습니다. 2022~2023년 러시아 관련 신규 법인 등록이 크게 늘었고, 은행 예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소비를 넘어, 고용과 세금과 기술이 조지아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노마드 정책'과 결합하면, 조지아는 사람(기술)과 돈(외화)을 동시에 빨아들이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충격'에는 '나쁜 부작용'이 따라붙었습니다. 첫째는 주거비 폭등입니다. 외국인 수요가 도시 임대료를 끌어올렸습니다. 수도 트빌리시의 아파트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지 조지아인들, 그중에서도 중산층과 청년층이 가장 먼저 밀려났습니다. 평균 월급이 50~70만 원 수준인 일반 조지아인에게 월세 90만 원 이상의 아파트는 감당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입니다.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IMF는 러시아 전쟁 이후 이주민 유입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했다가 2023년 중반 이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흐름을 언급하면서도, 주택 시장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 국립은행도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조지아는 2008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잃었습니다. 영토의 20퍼센트가 점령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수도를 활보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은 조지아인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트빌리시 거리 곳곳에는 "러시아는 점령국이다(Russia is an occupier)",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Glory to Ukraine)"이라는 그래피티가 가득합니다. 조지아 국기와 우크라이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식당이나 바에서는 러시아인 손님에게 "

fi 푸틴을 비난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거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민족 감정 사이의 충돌입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자본과 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조지아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 유입은 때로 ‘소프트 파워’와 로비로 작동합니다. 조지아가 EU와 NATO 가입을 오랜 숙원으로 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는 전략적 위험입니다.

국제 사회는 조지아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처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조지아를 경유하는 ‘그림자 무역(shadow trade)’과 제재 회피 의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방, 그중에서도 미국과 EU는 이런 움직임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지아가 제재 회피의 창구가 된다면,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아의 EU 가입 열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넷째는 거시 경제의 변동성입니다. IMF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러시아발 유입은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집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거나, 제재가 강 화되거나, 이주민들이 더 서쪽(유럽)으로 이동하면, 유입이 유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고, 은행 유동성이 변동하고, 환율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단기 호황이 장기 안정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경제 구조의 왜곡입니다. 유입된 돈이 제조업이나 기술 혁신으로 스며들지 않고, 부동산과 소비, 단기 서비스업에만 머물면 무엇이 남을까요? “도시가 비싸진 것” 외에는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가 IT 특례(가상 존)와 디지털 노마드 정책을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 유입을 생산성 증가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단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조지아 와인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2006년 러시아가 조지아산 와인 수입을 금지했을 때 조지아 경제가 휘청거렸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러시아 관광객과 화물 트럭들이 가져다 주는 수입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지아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이웃의 자본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리와 안보의 딜레마, 성장의 과실과 불평등의 씨앗, 외화의 축복과 의존의 덫. 이것이 조지아가 직면한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는 붕괴된 사회에서 시작해 급진적 개혁을 거쳐 가장 개방적인 시장 경제 모델 중 하나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조지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 그것이 조지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5장 관광과 와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코로나19 이후 관광 산업 V자 회복

(1) 팬데믹의 충격과 경제적 타격

2019년까지 조지아의 관광 산업은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해 약 900만 명의 국제 방문객이 이 작은 나라를 찾았고, 관광 수입은 3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광은 GDP 의 27%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심장부로 기능했습니다. 트빌리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마다 각국의 언어가 울려 퍼졌고, 카헤티의 포도밭에는 와인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3월 18일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83% 급감하여 5억 4,2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텔들은 문을 닫았고, 레스토랑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관광업계 고용은 약 40% 감소했습니다. 트빌리시의 루스타벨리 대로에서 관광객을 상대 하던 기념품 가게 주인들은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막막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조지아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관광의 붕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공사, 호텔, 식당, 와이너리, 가이드, 택시 기사까지 수많은 생계가 관광객의 지갑에 연결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2020년 조지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경제적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2) 회복의 시작과 구조적 변화

회복의 조짐은 2021년부터 나타났습니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각국이 점진적으로 국경을 열면서, 조지아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Georgia Reopen Safely'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은 호텔과 레스토랑을 우선 홍보했습니다. 위생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국제 여행자들에게 적극 알렸습니다.

2022년에 이르러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방문객 수는 2019년의 60% 수준에 그쳤으나, 관광 수입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을 초과했습니다. 35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숫자는 관광의 질적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2023년에는 관광 수입이 41억 달러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9년보다 26% 높은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도약'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져 44억 달러에 도달했고, 2025년 1분기 관광 수입만 8 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며 1분기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3) 회복을 견인한 요인들

이 놀라운 반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서 수만 명이 조지아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장기 체류자로 서,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가 컸습니다. 그들의 지출이 관광 수입 통계에 반영되면서 수치를 끌어 올렸습니다. 트빌리시의 임대료가 두 배로 뛰고, 영어와 러시아어 간판이 함께 걸린 카페가 늘어난 것은 이 변화의 단면입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방문객 수는 2019년보다 적었지만, 1인당 지출 액은 증가했습니다. 걸프만 국가들, 이스라엘,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더 오래 머물며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숙박일수는 5.6박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고, 재방문 비중이 78.4%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지아가 '한 번 오면 또 오는' 목적지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항공 연결성의 확대입니다. 영국항공, 이지젯 등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취항이 유럽 시장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런던에서 트빌리시까지 직항으로 네 시간이면 도착합니다. 파리나 베를린보다 가까운 셈입니다.

넷째, 디지털 노마드 정책입니다. 조지아는 90여 개국 국민에게 1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도입된 'Remotely from Georgia' 프로그램은 원격 근무자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안전한 치안, 괜찮은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트빌리시는 전 세계 프리랜서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장기 체류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4) 관광 지형의 재편

회복 과정에서 방문객의 국적 구성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심이었 다면, 이제 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2023년 중국인 방문객은 전년 대비 555%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25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스라엘에서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25년 방문객 구성을 보면 러시아가 여전히 2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뒤를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가 잇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인접국이라는 점은 조지아 관광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가까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에서의 방문객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다변화의 성과입니다.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관계 변화에 따라 관광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직항 노선을 늘린 것은 이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5) 관광 상품의 고도화

V자 회복의 이면에는 관광 상품의 질적 변화도 있습니다. 조지아 관광청은 단순히 '몇 명 더 오게 할까'가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 얼마를 쓰게 할까'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관광의 고질적 약점은 계절성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이 몰리고, 겨울에는 한산해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지아는 사계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인 관광, 웰니스(온천과 스파), MICE(회의·포상·컨벤션·전시), 장기 체류, 산악 스키 리조트 등을 결합한 복합 상품이 그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만 50개 이상의 새로운 생태 관광 루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스바 네티와 투세티 같은 오지 마을의 트레킹 코스는 대자연과 고유 문화를 찾는 현대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품은 단순한 홍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숙박, 교통, 식음, 체험 사업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산업 정책의 영역입니다.

(6) 남은 과제와 리스크

회복이 빠를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첫째,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입니다. 러시아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다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제재가 강화되거나, 환율이 급변하면 관광 산업이 다시 급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 임대료가 치솟고, 도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소음과 교통 혼잡이 늘고, 환경 부담이 커집니다. 관광은 돈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도시의 일상을 '관광객의 속도'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트빌리시 올드타운의 현지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르티빌리 협곡이나 오카체 협곡 같은 곳은 이 균형을 잘 맞춘 사례입니다. 에메랄드빛 물 위에서 보트를 타거나 절벽 위를 걷는 경험은 관광 수입을 창출하면서도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조지아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조지아 관광의 V자 회복은 '수요 복귀'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었습니다. 인접 시장의 빠른 흡수, 지출과 체류 중심의 질적 개선, 데이터와 상품 고도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 편중과 사회적 비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나. 크베브리 와인의 글로벌 도약

(1) 8,000년 와인의 땅

조지아를 설명할 때 와인을 빼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기원전 6,0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해 온 '와인의 요람(Cradle of Wine)'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와인의 세계화는 '맛있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지아가 가진 가장 강 력한 무기는 '이야기'와 '형식'입니다. 와인이 상품이기 이전에 문화이고, 그 문화가 국제 시장에서 차별화의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크베브리 방식이 있습니다.

(2) 크베브리의 정체성

크베브리(Qvevri)는 거대한 달걀 모양의 점토 항아리입니다. 내부에 밀랍을 바른 뒤 땅속에 묻어 사용합니다. 유럽식 양조법이 포도즙만 발효시키는 것과 달리, 조지아 전통 방식은 포도 껍질, 씨앗, 심지어 줄기까지 통째로 크베브리에 넣고 발효시킵니다.

땅속의 일정한 온도는 자연적인 냉각 장치 역할을 합니다. 와인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발 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껍질과 씨앗에서 우려나온 타닌과 색소 덕분에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들더라도 짙은

호박색을 띠게 됩니다. 이를 ‘앰버 와인(Amber Wine)’ 또는 오렌지 와인 이라 부릅니다.

2013년, 이 독창적인 양조법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전통이 지역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정체성에 깊이 결합되어 있고, 의례, 노래, 구전 전통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국제 사회가 “조지아 와인은 독특한 문화적 생산물”이라는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셈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내러티브’는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프랑스가 AOC로, 일본이 사케 문화로, 멕시코가 데킬라 원산지로서 프리미엄을 만드는 것처럼, 조지아는 크베브리로 ‘대체 불가능한 원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수출 지표로 본 도약

조지아 국가와인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와인 및 증류주 수출액은 5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와인 수출만 보면 약 9,500만 리터, 매출 2억 7,610만 달러입니다. 물량은 6%, 매출은 7% 늘었습니다.

이 숫자에서 주목할 점은 ‘많이 팔았는데 싸게 팔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량과 매출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단순 박리다매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단가 유지와 시장 다변화가 동반된 성장입니다.

EU 시장 내부에서는 특정 국가가 ‘허브’ 역할을 하는 구조가 포착됩니다. 2024년 EU 내 조지아 와인 수출에서 폴란드 비중이 두드러집니다.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꾸준한 증가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양면적입니다. 안정적 물량을 흡수하는 ‘기동 시장’이 생긴 것은 좋지만,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격 협상력과 브랜드 포지셔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조지아 와인 수출의 대부분은 러시아 시장에 의존했습니다. 2006년 러시아의 금수 조치 이후 조지아는 수출 시장 다변화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품질 개선과 현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53개국 이상에 연간 약 1억 리터 이상의 와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4) 내추럴 와인 붐과의 조우

크베브리 와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데는 ‘내추럴 와인’ 트렌드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내추럴 와인은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 효모로 발효시킨 와인을 말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구의 와인 애호가들과 소믈리에들 사이에서 이 흐름이 확산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을 최소화하고 땅과 포도 본연의 맛을 살리는 철학이 현대 소비자들의 감성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크베브리 와인은 이 트렌드의 원조 격입니다. 8,000년 전부터 조지아인들은 화학 약품 없이, 땅속 항아리에서, 껍질째 발효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내추럴 와인 운동이 ‘새로운 것’을 찾다가 ‘가장 오래된 것’에서 답을 발견한 셈입니다.

뉴욕, 런던, 파리의 미술관 레스토랑들이 조지아 앰버 와인을 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평론가들은 ‘독특한 풍미’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프리울리 지역의 생산자들까지 조지아 크베브리를 도입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5) 토착 품종의 부활

소비에트 시절, 조지아 와인 산업은 대량 생산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품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했고, 다양한 토착 품종은 사라져갔습니다. 주로 러시아 시장에 싸게 많이 파는 구조였습니다.

소련 붕괴 후, 조지아 와인 산업은 '양에서 질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와인 생산자들은 잊혀졌던 토착 품종을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지아에는 525종이 넘는 고유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사페라비(Saperavi)는 조지아 대표 레드 품종입니다. 진한 자주색에 타닌이 풍부하고, 숙성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르카치텔리(Rkatsiteli)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으로, 크베

브리에서 발효하면 짙은 호박색 앰버 와인이 됩니다. 키시(Kisi), 므츠바네(Mtshvane), 친누 리(Chinuri) 같은 품종들도 국제 시장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토착 품종들은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조지아만의 것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샤르도네로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이 이미 장악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페라비나 르카치텔리는 다릅니다. 조지아가 유일한 원산지이고,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6) 와인 투어리즘의 성장

와인 수출은 결국 생산지의 '경험'과 연결될 때 더 강해집니다. 와인을 마시고 끝나면 그냥 음료이지만, 산지 방문 경험이 붙으면 브랜드가 됩니다.

조지아 동부 카헤티(Kakheti) 지역은 '와인 루트'의 중심지입니다. 조지아 와인 생산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텔라비(Telavi), 시그나기(Sighnaghi), 크바렐리(Kvareli) 등지에 수많은 와이너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슐미(Shumi), 하레바(Khareba), 샤토 무흐라니(Chateau Mukhrani) 같은 와이너리들은 시음과 숙박, 체험을 결합한 복합 관광 상품을 제공합니다. 하레바 와이너리는 7.7km 길이의 터널 저장고로 유명합니다. 11세기 알라베르디 수도원의 와인 저장고를 방문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라니(Marani, 와인 저장고)에서 갓 뜬 와인을 맛보는 경험은 조지아에 서만 가능합니다.

가을철 포도 수확 축제인 '르트벨리(Rtveli)'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입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포도를 따고 밟으며 와인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지아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수입원입니다.

관광객이 늘면 와인 체험이 늘고, 와인 체험이 늘면 병으로 돌아가 수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와인과 관광은 조지아 경제의 두 기둥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 국가 단위의 프로모션

민간의 힘만으로 시장을 뚫기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조지아 와인 산업은 소규모 와이너리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 각각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는 버겁습니다.

여기서 국가 단위의 '판촉 인프라'가 중요해집니다. 2024년 조지아 국가와인청은 와인 홍보 프로그램 예산으로 1,600만 라리를 투입했습니다. 국제 전시회, 시음회, 바이어 매칭이 사실상 '수출 파이

프라인' 역할을 합니다.

'Wines Georgia' 캠페인은 미국과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 조지아 와인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서는 hy(구 한국야쿠르트)가 텔리아니 밸리(Teliani Valley) 같은 프리미엄 조지아 와인을 독점 수입합니다.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으로 와인 및 증류 주(차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 시장 내 조지아 와인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8) 도약의 그림자

크베브리는 강력한 차별점이지만, 그만큼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향아리의 재질과 미세 공극, 발효와 침용 방식, 위생 관리, 산화 관리가 생산자마다 다릅니다.

이 다양성은 매력인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수출이 커질수록 바이어는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대량 구매자에게 "이번 빈티지는 지난번과 좀 다릅니다"라는 말은 매력이 아니라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원래 '일관성'보다 '공동체적 다양성'에 가깝습니다.

전통을 산업화하면 전통이 약해지고, 전통을 그대로 두면 산업 규모가 제한됩니다. 조지아 와인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품질 기준의 '최소선'을 합의하면서도 지역과 생산자별 개성을 '상위 차별점'으로 남기는 이중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대량 생산 경쟁입니다. 프랑스, 칠레, 호주 같은 거대 와인 생산국과 가격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조지아의 길은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양이 아니라 이야기와 품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 농업과 디지털 트레이싱으로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요약하면, 크베브리 와인의 글로벌 도약은 유네스코가 보증한 문화 자산성, 물량과 매출 동반 성장의 수출 실적, 관광 회복과 국가 단위 프로모션의 결합으로 굴러갑니다. 다음 과제는 '전통의 세계화'가 아니라 '전통의 대량 시장 적응'이라는, 훨씬 피곤한 숙제입니다.

다. 바투미 카지노 경제의 빛과 그림자

(1) 흑해의 라스베이거스

흑해 연안의 도시 바투미(Batumi)는 조지아의 또 다른 경제 엔진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이 도시는 '흑해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립니다. 관광과 도박 산업이 결합된 독특한 경제 모델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바투미는 아자라(Adjara) 자치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조지아 서남부 끝, 튀르키예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휴양지로 이름났지만, 현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개발의 산물입니다.

카지노는 도시경제에서 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빠르게 돌고, 외부 지출을 끌어오며, 고용을 만들고, 세수를 늘립니다. 동시에 중독, 채무, 범죄, 자금세탁 리스 크를 키우고, 지역 이미지를 '도박 도시'로 고정시키며, 정상 산업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바투미의 카지노도 이 전형적인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 빛: 관광 결합형 소비 엔진

바투미가 카지노 도시로 급성장한 배경에는 파격적인 조세 정책이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카지노 수익에 대해 10~15%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30% 이상인 세율과 비교하면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이 혜택은 해외 자본을 대거 끌어들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투자가 몰려왔습니다. 바투미 해안가를 따라 쉐라톤, 힐튼, 래디슨 블루, 원덤, 메리어트 등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들 호텔 대부분은 대형 카지노를 끼고 운영됩니다.

바투미 카지노의 주 고객층은 인근 국가에서 옵니다.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은 종교적 혹은 법적 이유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거나 엄격히 제한됩니다. 바투미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자 정책이 유연합니다. 주말마다 국경을 넘어와 유흥과 도박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완벽한 해방구가 됩니다.

카지노는 해변, 리조트, 도시 관광에 결합하여 '체류형 소비'를 늘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숙박, 식음, 교통, 공연, 쇼핑이 묶여 '패키지 지출'을 만들기 쉽습니다. 카지노 자체 매출만이 아니라 도시 소비 총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관광의 계절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변도시는 비수기가 길어지면 상권이 죽습니다. 카지노는 날씨와 계절에 덜 흔들리고 야간경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Eclipse, Otium 같은 대형 카지노가 호텔, 레스토랑과 연계되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2022년 호텔 점유율과 수익률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카지노의 역할이 컸습니다.

(3) 규제의 진화: 통제 속 성장

조지아는 도박 산업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커지면서 중독과 청년층 노출 문제가 불거지자,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도박 가능 연령을 25세로 상향했습니다.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더 낮은 연령이 허용됩니다. 이는 '국내 시민 보호'와 '외국인 관광 유치'를 분리하려는 전략입니다.

2023년에는 도박 업계 과세가 올랐습니다. 이익세를 10%에서 15%로, 당첨금 과세를 2%에서 5%로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없애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세수화'하려는 접근입니다.

2024년 6월에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도박 운영자에 유리한 세제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지아는 도박을 '국내 사회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외에서 돈을 끌어오는 수출형 서비스'로도 설계하려는 유인을 보입니다.

바투미 카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적 의미가 큼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을 흡수하고, 지역 호텔과 리조트 투자와 결합해, 도시 개발의 '즉효성' 있는 자본 회수 모델이 됩니다.

(4) 그림자: 사회적 비용의 현실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 '통계에 늦게 잡힌다'는 점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산업이 커지면 중독과 가계파탄이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보통 개인 단위로 흩어져서 늦게 터집니다. 2025년 말 기준 국가 도박 배제 등록부(exclusion register)에 157만 명이 등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지아 전체 인구가 370만 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큼니다.

물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히 집계된 것인지, 정책적 캠페인 성격이 포함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충분히 커져서 국가가 대규모 차단 장치를 굴린다'는 시그널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자금세탁입니다. 도박 산업은 자금세탁 같은 '추적 어려운' 행위와 연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도시경제에 주는 단기 이익이 크더라도, 국제 금융 규제(AML) 관점에서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와 금융 신뢰에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카지노는 돈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국가 신용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5) 도시의 이중 구조

화려한 카지노 호텔 뒤편에는 여전히 가난한 구소련 시절의 아파트와 기반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바투미는 도시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현지인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젠트리 피케이션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일반 주민의 생활 인프라 사이에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박 산업의 성장은 보수적인 조지아 정교회 문화와도 충돌합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조지아인들 사이에서 바투미의 변신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도박 중독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카지노 경제는 주변국의 정세나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면 튀르키예 관광객의 지갑이 얇아집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러시아인 방문이 줄어듭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약점입니다.

(6) 바투미의 전략적 선택지

바투미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카지노를 '도시의 전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카지노는 도시 브랜드를 단순화시키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정상적인 도시 전략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첫째, 카지노를 관광 소비의 '부속 엔진'으로 두되, 미식, 문화, 해양 레저, 컨벤션 같은 비도박 콘텐츠를 확장합니다. 둘째, 규제와 책임 도박(연령, 광고, 접근 제한)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세수는 중독 치료, 채무 상담, 청년 보호로 재투입해 사회적 수용력을 높입니다.

아자라 관광청은 스키, 에코투어리즘, 와인 투어 등으로 관광 상품을 다각화하여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투미의 성패는 카지노가 아니라, 카지노 이후의 도시 설계에서 갈립니다.

요약하면, 바투미 카지노 경제의 '빛'은 외부 지출 흡수와 도시 소비 확대입니다. '그림자'는 중독, 채무, 범죄, 금융 리스크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연령 상향, 과세 강화 같은 방식으로 산업을 통제하고 세수화하고 있습니다. 균형의 핵심은 카지노를 통해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 수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잠재력

(1) 물의 나라

조지아는 '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수많은 강과 계곡은 천혜의 에너지원인 수력 발전 잠재력을 선물했습니다.

영토 내에 26,000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중 약 300개 강이 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력 발전 잠재 용량은 유럽 내 노르웨이에 버금가는 연간 약 50테라와트시(TWh)에 달 합니다. 조지아는 유럽에서 단위 면적당 수력 발전 잠재력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국가입니다.

현재 조지아 전력 생산의 75~85%가 수력 발전에서 나옵니다. 이는 조지아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낮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구조의 모순

그러나 에너지 부문 전체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지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75% 이상입니다. 가스와 석유 중심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약 20% 수준이고, 그 대부분이 수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국가' 이미지와 달리, 에너지 전체로 보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이 상당히 큼니다.

핵심 키워드는 '계절성'입니다. 물은 많고 낙차도 좋지만, 겨울에는 발전량이 떨어집니다. 강물이 얼거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화력과 수입 전력에 기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전력은 주로 수력으로 생산되지만, 겨울에 수력 생산이 낮아지면 가스 화력과 수입에 의존합니다. 여름에는 잉여 전력을 튀르키예나 주변국으로 수출하고, 겨울에는 다시 전력을 수입하는 패턴입니다.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취약점입니다.

(3) 주요 시설과 미개발 잠재력

조지아에는 여러 대형 수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구리 댐(Enguri Dam)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치형 댐 중 하나입니다. 271.5m 높이의 이거대한 댐은 조지아 에너지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댐이 압하지야 분쟁 지역과 전력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댐은 조지아 영토에 있지만, 발전소는 사실상 분리된 압하지야 쪽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에너지는 나눠 쓰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진발리 저수지(Zhinvali Reservoir)는 수도 트빌리시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1985년에 완공된 이 댐은 13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풍경 덕분에 관광 명소로도 사랑받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지아의 수력 자원 중 현재 개발된 것이 전체 잠재력의 22.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 잠재력의 약 4분의 1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여력이 막대합니다.

(4) 재생에너지 목표와 제도 변화

조지아 정부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7.4%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전력은 85%, 수송은 10.45%를 목표로 합니다.

전력 85%는 야심찬 숫자처럼 보이지만, 조지아가 이미 수력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 믹스 자체는 재생 중심을 유지하되, 변동성과 수급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읽는 편이 타당합니다.

전력시장 제도 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7월 전력거래소 시장이 출범했습니다. 2023~2024년에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추가하기 위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 회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5) 수력 개발의 딜레마

수력은 조지아의 가장 큰 재생자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갈등 자원입니다.

세계은행의 전략환경·사회평가(SES) 문서는 2040년까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 확대 시나리오를 검토합니다.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 프로젝트를 조합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최종 프로젝트 선택은 환경·사회 평가, 투자 유치 가능성,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력이 답이다'라는 단순 결론이 아닙니다. 수력이 크더라도 환경, 지역사회, 투자 리스크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반발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계곡 생태계 변화, 주민 이주, 수질과 퇴적 문제, 관광 경관 훼손, 그리고 '전기가 지역에 남느냐' 같은 분배 문제까지 얹힙니다.

조지아에서 수력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약 문제에 가깝습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개발이 막힙니다. 대형 댐 건설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EIA) 강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ESG) 준수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 풍력과 태양광: 계절 보완의 열쇠

조지아의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풍력과 태양광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성장 여지가 큼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조지아의 풍력 잠재력을 약 4테라와트시(TWh), 약 1,500MW로 추정합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미개발 풍력 4기가와트(GW), 태양광 4.5GW 잠재력이 언급됩니다. 이 수치는 '기술적 잠재' 성격이 강해서, 실제 개발 가능량은 전력망, 토지, 투자, 사회 수용성에 따라 줄어듭니다.

핵심은 '계절 보완'입니다. 조지아는 겨울 수력이 약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풍력은 지역에 따라 겨울과 야간 발전 패턴이 수력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계통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태양광은 여름 피크와 도심 분산형 전원에 강점이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수력의 대체'가 아니라 '수력의 약점을 메우는 파트너'입니다. 겨울에 물이 부족할 때 바람과 해가 도와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고리(Gori) 지역의 카르틀리 풍력 발전소(Qartli Wind Farm)가 이미 운영 중입니다. 20.7MW 규모입니다. 중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 녹색 에너지 회랑: 유럽을 향한 야망

조지아 재생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 회랑(Green Energy Corridor)'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흑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루마니 아와 헝가리 등 유럽으로 직접 송전하는 거대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조지아는 단순한 에너지 경유국을 넘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공급처로 부상합니다.

배경에는 유럽의 전략적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조지아는 이 틈새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굳히려 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출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지정학적 가치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8) 진짜 숙제: 발전소가 아니라 시스템

조지아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분명 큼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발전소를 더 짓는 게 아닙니다.

첫째, 전력망 투자입니다. 계통 수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을 실어 나를 선이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둘째, 시장 제도입니다.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해야 투자가 들어옵니다. 2024년 전력거래소 출범은 이 방향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저장과 유연성 자원입니다. 양수 발전, 배터리, 수요 관리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경과 사회 갈등 관리입니다. 사전 협의, 이익 공유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이 개발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되어야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합니다.

현재 자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입니다. 수력 중심 구조와 겨울 취약성, 제도 개혁(시장·경매), 그리고 환경·사회 평가의 중요성이 함께 언급됩니다.

조지아 재생에너지의 미래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물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 물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의와 기술입니다.

조지아는 풍부한 수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코카서스의 배터리'이자 유럽의 녹색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려 합니다. 이는 관광 및 와인과 더불어 조지아 경제를 지탱하는 강 력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발전소 건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6장 도전과 균열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조지아는 와인과 설산, 그리고 5,000년 문명의 영광을 간직한 땅입니다. 관광객들은 트빌 리시의 유황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카헤티의 크베브리 와인에 취하며, 코카서스의 장엄한 풍경 앞에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뒤편에는 조지아 사회가 직면한 깊은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종교와 인권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며, 과거의 유령이 여전히 현재를 배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지아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통계 너머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와 고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 청년 실업과 인구 유출 위기

(1) 성장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역설

조지아의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도시 곳곳에 새 건물이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기준 조지아의 전체 실업률은 13.9%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전년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교육도 받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으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24.1%에 달합니다. 이들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 평균이 11%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조지아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1년, 2년 계속 되면 사람은 희망을 잃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떠납니다.

(2) 기술과 교육의 어긋남

왜 경제가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뿌리 깊은 문제는 '스킬 미스매치(Skills Mismatch)', 즉 기술 불일치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능력과 구직자가 가진 능력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트빌리시의 IT 기업은 프로그래머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바투미의 호텔은 외국어에 능숙한 서비스 인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여전히 수십 년 전 교

과서로 이론 수업을 합니다. 산업계와 교육기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기업은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고, 졸업생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둘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갑니다.

조지아 정부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직업교육(VET)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훈련 시설은 낡았고, 교육 커리큘럼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책은 종이 위에 있고, 청년들은 거리에 있습니다.

(3) 떠나는 사람들, 비어가는 마을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먼저 시골에서 도시로 갑니다. 조지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수도 트빌리시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은 쇠퇴하고 있고, 산악 지역의 마을들은 텅 비어갑니다. 스바네티나 투셰티 같은 산간 지역을 여행하면 아름다운 풍경 속에 버려진 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자라던 젊은이들은 도시로, 혹은 국경 밖으로 떠났습니다.

도시에서도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 멀리 떠납니다. 조지아 통계청(Geostat)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출국자 수는 245,064명으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순유출, 즉

떠난 사람에서 돌아온 사람을 뺀 숫자는 71,584명입니다. 이 중 생산 가능 연령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62.2%를 차지합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0세에서 19세 사이의 순유출이 63,567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청년 개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전체가 조지아를 떠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세대가 통째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4) 유럽을 향한 비상구

왜 떠날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조지아의 평균 월급은 800유로에서 900유로 사이입니다. 한화로 약 120만 원 내외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에서 일하면 세 배, 네 배를 벌 수 있습니다. 같은 노동을 해도 보상이 다릅니다.

트빌리시 국립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스물여섯 살 청년 다비트는 2024년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월급으로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아야하는데, 모을 돈도 없어요. 독일에서 3년만 일하면 트빌리시에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비트 같은 청년들에게 유럽연합(EU)은 단순한 정치적 이상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비상구입니다. 조지아가 EU에 가입하면 비자 없이 유럽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학위가 인정됩니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EU 가입 문제가 정치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5) 송금 경제의 양면

해외로 떠난 조지아인들이 고향에 보내는 돈, 즉 해외 송금(Remittances)은 조지아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지아인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가족에게 돈을 보냅니다. 이 돈으로 노부모가 생활하고, 동생이 학비를 내고, 가족이 집을 고칩니다.

그러나 송금 경제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면 자녀는 조부모 손에서 자랍니다. 가족 구조가 해체됩니다. 송금에 의존하는 가족들은 스스로 경제적 자립 의지를 잃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돈이 오니까”라는 생각이 창업이나 취업 의지를 꺾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학력, 고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국내 산업의 혁신 역량이 떨어집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면 정부 재정이 약해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연금과 복지 시스템에 부담이 커집니다. 젊은 사람이 떠나고 노인이 남는 사회는 활력을 잃습니다.

(6) 정치적 불안이 떠밀어내는 청년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2024년 이후 조지아의 정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외국 대리인법’을 통과시키고, EU 가입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유럽적 미래를 꿈꾸던 젊은 세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럽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죠. 비자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유럽으로 갈 거예요.”

스물두 살 대학생 마리암의 말입니다. 그녀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독일 대학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돌아올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조지아는 미래를 잃습니다. 인구학자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조지아의 인구가 2050년에는 3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작은 나라가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7) 한국과의 비교: 익숙한 문제, 다른 맥락

한국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저출산.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만 맥락이 다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몰립니다. 조지아의 청년들은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의 지방은 서울로 인구를 빼앗깁니다. 조지아의 지방은 트빌리시로, 그리고 트빌리시는 유럽으로 인구를 빼앗깁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지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조지아는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점령당한 채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품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조지아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한국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LGBTQ+ 권리와 종교 보수주의의 충돌

(1) 두 개의 깃발이 마주치는 거리

트빌리시 중심가 루스타벨리 대로는 조지아 역사의 현장입니다. 1989년 소련 탱크가 시민들을 깔아뭉갠 곳이고, 2003년 장미혁명이 시작된 곳이며, 2024년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에서 때때로 두 개의 깃발이 마주칩니다.

한쪽에서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입니다.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요구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사랑은 사랑이다”, “차별을 멈춰라”고 외칩니다. 맞은편에서는 십자가와 성상(聖像)을 든 사람들이 “전통을 지켜라”, “가족을 보호하라”고 맞서 외칩니다. 경찰이 두 집단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세웁니다.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이 장면은 현대 조지아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균열을 보여줍니다. LGBTQ+ 권리 문제는 단순한 인권 의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지아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2) 법은 바뀌었다: 2024년 ‘가족 가치’ 입법

2024년 9월, 조지아 의회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84표, 반대 0표.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 커플의 아동 입양이 금지됩니다. 성별 정정, 즉 법적 성별을 바꾸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육 현장과 미디어에서 LGBTQ+ 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프라이드(Pride) 행사, 즉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사실상 불법화됩니다.

집권당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유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pseudo-liberal ideology)”로부터 조지아의 전통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리나 이바니슈빌리 총재는 “서방이 LGBTQ+ 선전을 EU 가입 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조지아의 정체성과 정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법률 자문기관인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이 법이 유럽 및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이 입법이 가입 협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습니다.

(3) 정교회의 그림자

조지아에서 LGBTQ+ 문제를 이해하려면 조지아 정교회(Georgian Orthodox Church)의 위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지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4세기 초, 성녀 니노(Saint Nino)가 조지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이래 1,700년 동안 정교회는 조지아인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몽골의 침략, 페르시아의 지배, 소련의 종교 탄압 속에서도 정교회는 조지아 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지아 국민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조지아 정교회는 대통령, 의회, 군대보다 훨씬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총대주교 일리아 2세(Patriarch Ilia II)는 “조지아의 아버지”로 불리며 절대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문제는 정교회가 사회적·정치적 문제에도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성소수자 권리 확대를 “서구의 문화적 침공”으로 간주합니다. 교회의 입장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교회의 지지, 혹은 최소한 교회의 반대

를 피해야 합니다.

(4) 폭력의 기억: 트빌리시 프라이드

2021년 7월 5일, 트빌리시에서는 프라이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 체들이 평화로운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성직자 복을 입었고, 일부는 극우 민족주의 단체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자녀를 보호 하라", "LGBT를 막아라"고 외치며 프라이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폭력이 터졌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취재하던 기자 50여 명 이 공격받았습니다. 한 카메라맨은 심하게 구타당해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드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행사가 계획될 때마다 폭력 위협이 뒤따랐고,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조지아 정부가 성소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미진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해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5) 두 세계 사이에 선 청년들

조지아 사회는 세대에 따라 이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노년층과 농촌 지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84%의 국민이 동성 관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소수자 권리는 낯선 개념이고, "서양에서 들어온 타락"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도시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이들은 다양성과 인권을 중시합니다. 트빌리시의 대학가 주변에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카페와 클럽이 있습니다. 테크노 클럽 바시아니(Bassiani)는 그 상징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성별,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음악과 춤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트빌리시의 일부에 국한됩니다. 지방으로 나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 마을에서 동성애자임이 알려지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결혼 압박을 받아 이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정치적 도구가 된 인권

안타까운 현실은 성소수자 문제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집권당 '조지아의 꿈'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반(反) LGBTQ+ 레토릭을 적극 활용합니다. "우리는 조지아의 전통을 지킨다",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선거에서 표를 얻습니다. EU 가입 조건과 성소수자 권리를 연결시켜, 친서방 시민사회를 '외국의 대리인'이자 '전통의 파괴자'로 낙인찍습니다.

야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성소수자 권리 옹호에 소극적입니다.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원칙보다 앞섭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실제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성소수자 시민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정치 게임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7) 유럽의 문턱에서

LGBTQ+ 권리 문제는 조지아의 유럽 통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U는 가입 조건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요구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도 그 일부입니다. 2024년 반(反) LGBTQ+ 입법은 EU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이 법안이 가입 협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내정 문제"라고 맞섭니다. 그러나 EU는 내정이라는 이유로 인권 문제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비슷한 입법을 추진했을 때 EU는 강력히 비판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조지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럽의 일원이 되려면 유럽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면 유럽의 문은 닫힙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8) 한국과의 비교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매년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반대 집회도 함께 벌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 세력은 강력히 반대하고, 인권 단체는 제정을 촉구합니다.

조지아와의 공통점은 종교와 전통이 이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폭력 사태가 상대적으로 적고, 법적 제재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차별을 경험하지만, 조지아처럼 의회가 명시적인 억압 법안을 통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이 문제는 세대 갈등, 종교와 세속의 갈등, 그리고 사회 변화의 속도에 대한 갈등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 스탈린, 고리 출신 독재자에 대한 복잡한 시선

(1) 고리, 독재자의 고향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고리(Gori)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약 5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때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고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세기 역사의 거인, 혹은 괴물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입니다.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슈빌리(Ioseb Besarionis dze Jughashvili). 세계 사에서는 '스탈린(Stalin)'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고리 중심부에는 스탈린 박물관이 있습니다. 1957년에 세워진 이 박물관에는 스탈린의 생가, 유품, 사진,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전용 열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 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기념품 가게에서는 스탈린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와인 라벨이 팔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수천만 명을 죽인 독재자의 얼굴이 상품으로 팔리고, 생가가 마치 성지처럼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2) 영웅인가, 학살자인가

조지아인들에게 스탈린은 복잡한 감정의 대상입니다.

한쪽에서 스탈린은 자부심입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은 나라 조지아 출신이 세계를 호령했다는 사실은 일부 조지아인들에게 민족적 긍지를 불러일으킵니다.

2023년 코카서스 연구자원센터(CRRC)와 징크 네트워크(Zinc Network)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모든 조지아 애국자는 스탈린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습니다.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스탈린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고리 지역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인식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조지아의 아들이야. 그가 나쁜 일도 했지만, 위대한 일도 했어. 전쟁에서 이겼잖아. 소련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잖아.”

여든둘의 바추키(Vachuki) 할아버지는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스탈린 시대는 소련이 강했고, 일자리가 있었고, 질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3) 피의 기억

다른 쪽에서 스탈린은 악몽입니다.

스탈린의 통치 기간, 수백만 명이 죽거나 굴라그(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대숙 청(Great Purge) 기간인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는 공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지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지식인, 예술가, 민족주의자들이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가 붙어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스탈린은 같은 조지아인들을 탄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 가혹하게 대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920년대 조지아 민주공화국이 소련에 강제 편입될 때, 스탈린은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아의 독립을 짓밟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조지아인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에게 스탈린은 이 역사의 상징입니다. 서른한 살의 역사학자 니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탈린을 자랑스러워한다고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시베리아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스탈린 박물관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4) 동상을 둘러싼 전쟁

기억의 전쟁은 동상을 둘러싸고 물리적으로 표출됩니다.

소련 시절, 조지아 곳곳에 스탈린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련 붕괴 후 대부분 철거되었지만, 고리의 중앙 광장에는 거대한 스탈린 동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사카슈빌리 정부는 이 동상을 철거했습니다. 탈소비에트화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철거는 한밤중에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고리 시민들은 아침에 텅 빈 좌대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환영했고,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역사를 함부로 건드린다"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2012년 정권 교체 후, 일부 시골 마을에서 스탈린 동상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러 성향의 정서가 고개를 든 것입니다. 2024년 1월에는 폴란드 대사가 고리 스탈린 박물관 폐쇄를 촉구했다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외국이 우리 역사에 간섭한다"는 반발과 "독재자를 미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판이 충돌했습니다.

(5) 디지털 세대의 스탈린

기억의 전쟁은 박물관에만 있지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DFRLab)의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의 틱톡(TikTok)에서 스탈린을 신화화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을 종교적이고 교양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영상들이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왜 21세기 청년들이 20세기 독재자에게 끌릴까요? 분석가들은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현재의 불안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에 대한 향수를 느낍니다. "스탈린 시절에는 질서가 있었다"는 환상이 작동합니다.

둘째, 역사 교육의 부재입니다. 조지아 학교에서 스탈린 시대의 범죄가 충분히 교육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대숙청이나 굴라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셋째, 러시아의 영향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스탈린에 대한 긍정적 서사를 장려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강조하고, 스탈린을 "승리의 총사령관"으로 부각합니다. 이런 서사가 조지아에도 침투합니다.

(6) 박물관의 딜레마

고리 스탈린 박물관은 조지아의 역사적 딜레마를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박물관은 소련 시절 방식 그대로 스탈린의 업적을 나열합니다. 그의 공적은 강조되고, 범죄는 축소되거나 생략됩니다.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는 미미합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합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직후, 당시 문화부 장관은 이 박물관을 "러시아 침략 박물관"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경고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입구에 스탈린의 범죄를 알리는 배너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관광 수입에 대한 우려, 정권 교체 등이 겹쳤습니다. 2017년에는 배너마저 철거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7)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스탈린 문제는 단순히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지아가 어떤 나라가 되고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스탈린을 영웅으로 기억하면, 러시아와의 공유된 과거, 소련의 유산, 강한 국가에 대한 향수와 연결됩니다. 스탈린을 범죄자로 기억하면, 러시아와의 단절, 독립의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현재 조지아 사회는 두 방향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집권당은 명시적으로 스탈린을 옹호하지 않지만, 박물관 폐쇄나 전면적인 역사 교육 개혁에도 나서지 않습니다. 스탈린은 유리관 속에 박제되어 있고, 그의 유령은 조지아 사회를 배회합니다.

(8) 한국과의 비교

한국도 역사의 유령과 씨름합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 독재 시대의 기억, 분단 체제의 유산.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 사회도 갈등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박정희, 이승만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해도, 공식적인 박물관에서 그들의 범죄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화 운동과 인권 침해가 다루어집니다. 물론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공적 담론에서 독재의 범죄성은 인정됩니다.

조지아의 경우 스탈린에 대한 공식적 평가조차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지아 사회가 과거 청산에서 한국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 교육 개혁 논란과 대학의 저항

(1) 높은 문해율, 낮은 취업률

조지아인들은 교육열이 높습니다. 문해율은 99% 이상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헌신합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전공과 무관합니다. 경제학 전공자가 카페에서 일하고,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이 택시를 모니다. “대학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냉소가 번집니다.

문제의 뿌리는 교육의 질과 방향입니다. 조지아의 교육 시스템은 소련 시절의 유산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암기 위주의 수업, 비판적 사고 훈련의 부족,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커리큘럼. 세상은 변했는데 교육은 그대로입니다.

(2) 정치화된 교육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 정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조지아의 교육 시스템은 사회의 이익보다 집권당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대학 총장, 유치원 원장 등의 임명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교육 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받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사들이 집권당 표를 동원하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조지아 의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 절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 “공립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 지원”이라는 달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반발한 것은 그 대가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립대학의 연간 정원과 학과별 쿼터를 설정합니다. 재정 지원의 대가로 자율성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원을 쥐면, 어느 학과를 키우고 어느 학과를 축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교수를 밀어내고, 순종적인 인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대학생들의 분노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트빌리시 국립대학교(TSU)와 조지아 공과대학교(GTU)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04년 역사를 팔지 마라!”

1918년에 설립된 트빌리시 국립대학교의 역사를 언급하는 구호입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개혁이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비판적 지식인을 숙청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시위는 루스타벨리 대로 의회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 일명 “깃 발 혁명”의 장기 집회와 합류했습니다. 대학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스물한 살 법학과 학생 기오르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길들이려 해요. 비판하면 불이익을 주고, 순종하면 장학금을 줘요. 그런 식으로 대학을 죽이는 거예요. 대학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4) 볼로냐 프로세스와 유럽의 기준

조지아의 고등교육은 유럽 고등교육 공간(EHEA), 즉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 국가들의 대학 학위를 상호 인정하고, 학생과 교수의 이동을 촉진하는 협약입니다. 조지아 대학생들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유럽 학생들이 조지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새 교육 개혁이 국가 통제 강화로 읽히면, 이것은 유럽 경로와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대학의 자율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국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독일 동유럽학회(Deutsche Gesellschaft für Osteuropakunde)는 2026년 1월 공개서한을 통해, 조지아의 고등교육 개혁이 대학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유럽 고등교육 체제와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의 파트너들이 조지아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5) Z세대, 저항의 세대

2024년 외국 대리인법 반대 시위를 이끈 것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입니다. 이른바 Z세대입니다. 대학생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함께 자랐습니다. 유럽 영화를 보고, 영어로 된 뉴스를 읽고,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으로 유럽 대학에 교환학생을 갑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소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향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유럽 통합은 추상적 이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회입니다. 유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EU 협상을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펴면, 이들의 미래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대학은 이 세대의 집결지입니다. 캠퍼스에서 토론하고, 조직하고, 행동합니다.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하면, 이것은 Z세대의 저항 기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6) 언어학자의 증언

2024년 외국 대리인법 관련 헌법재판소 청문회에서, 언어학자 마리나 베리제(Marina Beridze)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소련 시대의 억압적 관행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인민의 적’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끝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의 대리인’이라는 딱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판하면 낙인찍히고,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마리나 베리제의 증언은 지식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국제 학술 교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합니다. 해외 학회 참석, 공동 연구, 논문 출판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국제화의 노력

어두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아 대학들은 국제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조지아의 의과대학들은 저렴한 학비와 영어 수업을 내세워 인도, 파키스탄, 중동에서 유학 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트빌리시 의과대학(TSMU)에는 수천 명의 외국인 학생이 공부합니다. 한국 학생들도 있습니다. 의대 유학 붐의 일환입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유럽 대학들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조지아 학생들은 독일, 프랑스, 폴란드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옵니다. 유럽 학생들이 트빌리시에 와서 조지아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젊은 교수들은 변화를 꿈꿉니다. 소련식 강의 방식을 버리고, 토론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을 시도합니다.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고, 영어 문헌을 교재로 씁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8)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대학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취업률 저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 정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제도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정원을 직접 통제하려 하면 거센 반발이 일어납니다. 대학 총장 선출에 정부가 개입하면 위법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조지아의 경우, 대학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취약하고, 정치 권력의 개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직결됩니다. 대학이 권력의 비판자 역할을 할 수 없으면, 사회 전체의 자정 능력이 약해집니다.

조지아의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교육 정책을 둘러싼 다툼이 아닙니다. 조지아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건 싸움입니다.

맺음말

조지아 사회의 균열은 깊습니다. 청년들은 떠나고, 가치관은 충돌하며, 과거의 유령이 배회하고, 배움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어떤 나라가 되고자 하는가?

유럽의 일원이 될 것인가, 러시아의 영향권에 머물 것인가.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과거를 미화할 것인가, 직시할 것인가. 권력에 순응할 것인가, 자유를 지킬 것인가.

조지아인들은 매일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거리에서, 대학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7장 한국과의 접점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기회

(1) 협정 타결의 역사적 맥락

2024년 11월 27일, 서울 어느 회의실에서 두 나라의 통상 관료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지아가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스물여섯 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코카서스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통상 조약입니다.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1년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양국이 협상 시작에 합의한 뒤, 양측 실무진은 관세, 원산지 규정, 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통상 협정이 수년에서 십여 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답은 지도 위에 있습니다. 조지아는 흑해 동쪽 끝,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좁은 회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영토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나르는 대안 경로가 절실해졌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카스피해를 건너 조지아의 흑해 항구로 이어지는 '중간 회랑(Middle Corridor)'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새로운 물류 지형에서 선점 효과를 노렸고, 조지아 역시 아시아의 경제 강국과 제도적 연결고리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협정의 공식 명칭에 '경제동반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다면, EPA는 투자, 서비스, 기술 협력, 인적 교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명칭에 담겨 있습니다.

(2) 관세 철폐의 구조와 파급 효과

협정의 핵심은 관세 장벽 제거입니다. 타결 당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3.3퍼센트에 대해, 조지아는 91.6퍼센트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크게 다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가 대표적입니다. 조지아는 한국산 신차, 중고차, 친환경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조지아의 자동차 관세 체계는 독특합니다. 배기량과 제조 연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오래된 차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대(對)조지아 자동차 수출 중 중고차 비중이 65퍼센트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관세 철폐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트빌리시 거리를 걷다 보면 현대와 기아 로고가 붙은 자동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이나 독일 브랜드 대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동차 한 대가 팔리면 그 뒤로 정비, 부품, 보험, 할부 금융이라는 서비스 생태계가 따라옵니다. 관세 철폐는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산업 사슬 전체의 진입로를 여는 일입니다.

K-푸드와 K-뷰티 제품도 수혜 품목에 포함됩니다. 라면, 조미김, 각종 소스류,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사라집니다. 트빌리시 시내 슈퍼마켓에는 이미 'Korean Beauty'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젊은 조지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의 인지도가 높습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수입 상들이 시도할 이유가 생기고, 시도하면 살아남는 제품이 늘어납니다.

반대 방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조지아산 와인, 전통 증류주인 차차(Chacha), 천연 탄산수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합니다. 8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지아 와인이 한국 소비자의 식탁에 더 자주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크베브리 항아리에서 빚어낸 호박빛 엠버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양국 관계의 의미가 체감될 것입니다.

(3)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물류 거점화

상품 교역보다 더 큰 가능성은 서비스 분야에 있습니다. 조지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운송,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을 폭넓게 개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를 유라시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조지아의 흑해 항구인 포티(Poti)와 바투미(Batumi)는 중간 회랑의 서쪽 종착점입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화물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카스피해를 건너고,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해 조지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배에 실려 흑해를 건너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항구에 닿습니다.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경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조지아에 창고나 조립 시설을 두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가공이나 포장을 거친 뒤 인근 국가로 재수출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기계, 부품, 전기전자 제품, 건설 장비 등을 프로젝트 단위로 공급하는 B2B 거래에서 조지아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반, 시청각물, 출판,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K-팝 음반이나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조지아를 통해 코카서스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젊은 세대는 이미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콘텐츠에 익숙합니다. 제도적 장벽이 낮아지면 공식 유통 채널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4)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협력

전통적인 관세 협정을 넘어서는 조항들도 담겼습니다.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 양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를 영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게임, 음원, e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가 국경을 넘을 때 관세 부담 없이 거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를 현지에 두라고 요구합니다. 이 조항 덕분에 한국의 IT 기업이나 게임 회사는 서버를 조지아에 두지 않고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들이 조지아에서 한국 클라이언트와 일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이 조지아 시장에 진출할 때 규제 장벽이 낮아집니다.

공급망 협력 조항에서는 위기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충격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양국이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채널을 열어두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투자 강화도 협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조지아가 보유한 수력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만나는 접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아직 남은 과제들

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결은 시작일 뿐이고, 서명, 국회 비준, 발효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률 검토와 번역 작업이 완료된 뒤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협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세표에 0이 찍힌다고 해서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산지 기준, 검역 및 인증 요건, 라벨링 규정 같은 비관세 장벽이 실제 무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창출되어야 하는지, 식품이나 화장품이 조지아 시장에 진입하려면 어떤 성분 표기와 안전 인증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세부 사항이 실무의 전장입니다.

발효 전 기간은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의 창입니다. 유통망과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고, 물류 경로를 시험하고, 규제 환경을 학습하는 데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발효 이후에 뛰어들면 이미 선점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6) 한국 기업에 열리는 세 가지 지도

이 협정이 현실에서 의미 있어지는 지점은 세 가지 지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카서스-중앙아 조달 지도’입니다. 조지아를 거점으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더 나아가 카스피해 너머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B2B 네트워크입니다. 건설,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한국 기업은 조지아 내 법인이나 창고를 통해 납기와 재고를 현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흑해 연안 소비재 지도’입니다. 조지아는 관광객과 외국인 체류자가 소비를 키우는 구조입니다. K-푸드와 K-뷰티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정규 유통 채널에 정착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조지아 음식 문화가 절임류를 즐겨 먹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찬 문화와 유사성이 있어, 한식에 대한 거부감도 낮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및 디지털 협력 지도’입니다. 전자통관, 원산지 증명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공동 전시, 인력 및 교육 협력 같은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영역입니다. 조지아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만들어놓은 행정 효율성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370만 명의 작은 나라와 맺은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조지아 자체의 소비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지아를 둘러싼 지리적 위치, 46개 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 유럽연합 및 독립국가연합(CIS)과의 제도적 연결성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조지아 EPA는 조지아 시장 진출이 아니라, 유라시아 회랑과의 접속입니다.

나. 조지아 의대 유학 붐의 실체

(1) 왜 하필 조지아인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지아 의과대학 유학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알려진 경로였다면, 조지아는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조지아일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비용입니다. 조지아 의대의 연간 학비는 대략 4,000달러에서 8,000 달러 사이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 의대가 연간 6만 달러 이상, 헝가리 의대가 1만 5,000달러에서 2만 달러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한국 사립 대 의대의 등록금과 비교해도 저렴합니다.

생활비 역시 합리적입니다. 트빌리시에서 한 달 생활비는 주거비를 포함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서유럽이나 북미에서 의대를 다니려면 생활비만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년간의 의학 교육 과정을 놓고 보면, 총비용 차이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 장벽의 상대적 완화입니다. 조지아의 주요 의과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러시아어나 조지아어를 몰라도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임상 실습 과정에서 현지 환자와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조지아어나 러시아어가 필요하지만, 학업 자체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입학 문턱입니다. 한국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수능 최상위권 성적이 필요합니다. 재수, 삼수를 거듭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경쟁률입니다. 반면 조지아 의대는 고등 학교 졸업 자격과 기본적인 과학 과목 이수, 영어 능력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별도의 입학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합니다.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우회하려는 수요가 조지아로 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사 효과입니다. 과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의대로 유학을 떠나던 학생들이 전쟁 발발 이후 안전한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지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치안이 안정적이어서, 이탈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습니다.

(2) 한국 면허 취득 경로의 현실

조지아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보건복지부의 외국 대학 인정입니다.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어떤 대학이

인정 대상인지는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는 공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모든 의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별로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정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 면허 취득 경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가려는 대학이 현재 복지부 인정 목록에 있는가, 혹은 인정 심사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이름보다 인정 상태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예비시험입니다. 외국 의대 졸업자는 본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시험은 기초 의학 지식을 평가하는 관문으로, 합격률이 낮은 편입니다.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한국인 의대생들과 동일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관문은 국가시험 자체입니다. 한국어로 출제되는 시험이므로, 6년간 영어로 의학을 배운 학생에게는 언어적 전환이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한국 의료 현장의 맥락과 용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경쟁을 해야 합니다. 수련병원 매칭 과정에서 국내 의대 출신과 동등하게 평가받으려면 실력과 인맥 양쪽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미국 및 유럽 경로의 변수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사로 일하려는 계획이라면, 또 다른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외국 의대 졸업자가 수련을 받으려면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CFMG는 2024년부터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이 인증한 기관이 인증한 의과대학 출신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의과대학이 WFME 인증 체계에 부합하는지, 개별 대학이 세계의과대학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 적절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 인정받는 대학이 내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조지아에서 의대를 나오면 전 세계 어디든 길이 열린다”는 단순한 서사는 위험합니다. 국제 경로는 디렉터리 등재, 인증 기관의 WFME 인정 여부, 국가별 면허 응시 자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경로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4) 유학 시장의 정보 비대칭

조지아 의대 유학 시장에는 중개 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이나 컨설팅 회사들이 입학 상담부터 현지 정착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광고 문구에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영어로 배우고, 학비가 싸고, 졸업하면 의사가 된다.” 간결하고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지부 인정 절차, 예비시험 합격률, 임상 실습의 질, 졸업 후 진로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작은 글씨로 처리되거나 아예 생략됩니다. 인간은 쉬운 말에 끌리고, 어려운 말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별 편차도 큼니다. 조지아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수진의 역량, 부속병원의 시설, 임상 실습 기회, 시험 및 유급 기준, 학사 행정의 투명성이 대학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대학은 국제 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대학은 학비 수입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의 단위는 ‘나라’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졸업 이후의 난이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은 시작일 뿐입니다. 6년간 학업을 완수하고 졸업하는 것, 귀국 후 인정 절차를 밟는 것,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하는 것, 수련 병원에 매칭되는 것, 그리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까지, 후반부 난이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5) 현실적 평가와 조언

조지아 의대 유학이 누구에게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지아 의대라서”가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면허 국가의 규정과 특정 대학의 인증 상태가 맞물릴 때입니다.

한국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대학이 보건복지부 인정 목록에 있거나 인정 심사 경로가 열려 있는지. 둘째, 예비시험 응시 자격과 준비 방법. 셋째, 졸업 후 임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언어, 실습, 추천서). 넷째, 국제 경로를 고려한다면 ECFMG 및 WFME 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

‘뭉’의 실체는, 이 복잡한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입학의 쉬움”만 보고 진입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 있습니다. 달콤한 입구 뒤에는 험난한 출구가 기다립니다. 그 출구를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트빌리시 국립의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 한국인 유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건 쉬워요. 문제는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여기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다시 공부해야 해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 한 달 살기와 정착 가이드

(1) 365일 무비자 체류의 의미

한국 여권 소지자는 조지아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무비자 허용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국가 국민에게 365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한 줄의 규정이 한 달 살기의 모든 가능성을 엽니다. 별도의 비자 신청도, 복잡한 서류 준비도, 수수료 납부도 필요 없습니다. 여권 하나만 들고 비행기에 오르면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도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1년간 조지아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 국가인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체류 기간이 갱신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패턴이 장기화되면 입국 심사관의 질문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체류 목적을 설명할 준비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살기라면 비자 걱정 없이 숙소만 잡으면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체류라면 관광객 신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머무르면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2) 도시 선택의 기술

한 달 살기의 성패는 도시 선택에서 80퍼센트가 결정됩니다.

트빌리시(Tbilisi)는 조지아의 수도이자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행정,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가 가장 크고, 영어가 통하는 식당과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처음 조지아에 발을 디딘다면 트빌리시가 실패 확률을 낮추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올드타운의 구불구불한 골목과 현대적인 신도심이 공존하고, 지하철과 버스로 도시 전체를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투미(Batumi)는 흑해 연안의 휴양 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 풍광이 아름답고, 겨울 에도 트빌리시보다 온화한 기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층 아파트와 호텔이 빠르게 들어서면서 현대적인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해 있어 밤문화도 활발합니다. 다만 계절성이 강합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객이 몰려 숙박비와 물가가 치솟고, 비수기에는 상당수 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휴양형 한 달 살기에는 적합하지만, 연중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원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쿠타이시(Kutaisi)는 조지아 제2의 도시입니다. 3,000년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이지만, 현재는 트빌리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조용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 리듬이 느립니다.

관광 인프라는 제한적이지만, 집중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산책하는 단순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입니다. 위젯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가 쿠타이시 국제공항을 유럽 여러 도시와 연결하고 있어, 유럽 이동의 거점으로 삼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를 선택하든, 첫 일주일만은 단기 숙소(에어비앤비나 호텔)에 머물면서 동네를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과 실제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걸어보고, 슈퍼마켓과 시장을 확인하고, 소음과 일조량을 체크한 뒤에 장기 숙소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 생활비의 현실적 구조

“조지아는 물가가 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가장 큰 변수는 주거비입니다. 트빌리시 중심부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원룸 아파트를 빌리면 월 35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외곽으로 나가거나 오래된 건물을 선택하면 200달러대도 가능합니다. 바투미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스 난방인지, 전기 난방인지, 중앙 난방인지에 따라 월 공과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하차푸리(치즈빵)나 힌칼리(만두)로한 끼를 해결하면 5달러에서 10달러면 충분합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면 일주일치 장보기 비용이 20달러에서 40달러 수준입니다. 와인은 마트에서 병당 3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 양질의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식품이나 한국 식재료는 비쌉니다. 한국 라면이나 김치를 현지에서 사려면 본국 가격의 두세 배를 각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저렴합니다. 트빌리시의 지하철과 버스는 교통카드(메트로머니)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번 탑승에 1라리(약 500원) 수준입니다. 90분 내 환승이 무료이므로,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하루 교통비를 1,000원 이내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앱(볼트, 안텍스)을 이용하면 시내 이동

이 대부분 5,000원 이내입니다.

통신비도 합리적입니다. 현지 유심을 구입하면 월 15달러에서 25달러 정도로 데이터 무제한에 가까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와 카페의 와이파이 품질도 대체로 양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검소하게 생활할 경우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여유롭게 지내도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4)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환경

조지아가 디지털 노마드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무비자 체류, 낮은 생활비에 더해, 원격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트빌리시에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임팩트허브(Impact Hub), 터미널(Terminal) 같은 공간에서 책상 하나를 빌리면 월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입니다. 고속 와이파이, 회의실, 프린터, 커피 머신이 제공되고, 비슷한 처지의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창업 자들과 네트워킹할 기회도 생깁니다.

카페 문화도 발달해 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몇 시간씩 일해도 눈치를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2달러에서 4달러 수준이니, 사무실 임대료 대신 카페에서 일 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세제 혜택도 매력적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IT 및 국제 서비스 분야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 매출 50만 라리(약 2억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매출의 1퍼센트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도 간소해서, '공공서비스홀(Public Service Hall)'에서 하루 만에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거주자 판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지아 세법은 연속 12개월 중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금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조지아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뛰어들기보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5) 일상의 편의와 주의사항

조지아 생활의 일상적 편의는 기대 이상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은 흔하지 않지만, 대형 마트(까르푸, 오르비, 스마트)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약국도 곳곳에 있고, 기본적인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택시 앱이 잘 작동합니다. 볼트(Bolt)나 안덱스(Yandex) 앱을 깔아두면 언어 장벽 없이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요금이 미리 표시되므로 바가지 걱정도 없습니다. 심야에도 운행하는 차량이 있어 늦은 귀가도 수월합니다.

치안은 양호한 편입니다. 트빌리시 구시가지리를 밤늦게 걸어도 위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합니다. 인적 드문 골목은 피하고,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는 기본적인 주의는 필요합니다.

언어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은 영어를 비교적 잘하지만, 나이 든 세대나 관공서 직원 중에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어가 통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지아어 인사 말 몇 가지를 익혀두면 현지인들이 훨씬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가마

르조바(Gamarjoba, 안녕하세요)”, “마들로바(Madloba,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아도 분위기가 달라 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건강 및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 종이로 된 보험 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예정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들거나, 현지 보험사 상품을 알아보거나, 국제 디지털 노마드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 한 달 살기 체크리스트

입국 전에 준비할 것: 여권 유효기간 확인(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안전),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 2장(메인과 백업), 여행자보험 가입, 숙소 첫 일주일 예약, 여권 사본과 사진 파일 클라우드 저장.

도착 후 1~3일: 현지 유심 개통, 교통카드 구입, 동네 산책하며 마트·약국·병원·세탁소 위치 파악, 환전은 분산해서(한 번에 큰돈 바꾸지 않기).

1주차: 장기 숙소 물색 시작, 직접 방문해서 난방 방식·채광·소음·인터넷 속도 확인, 계약 전관리비와 보증금 조건 명확히 하기.

2주차: 생활 리듬 테스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체험, 자주 가게 될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 탐색, 식자재 조달 루틴 만들기.

3~4주차: 한 달간의 경험 종합 평가, 비용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언어, 행정, 외로움, 음식)을 점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한 답 찾기.

한 달 살기의 진짜 목적은 “조지아가 좋다/나쁘다”는 감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시스템이 그곳에서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감상은 일주일짜리 여행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현실을 들여다보는 렌즈입니다.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

(1) 왜 조지아를 들여다봐야 하는가

조지아는 인구 37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상남도 인구와 비슷합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GDP 규모로 보면 한국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이 배울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전시킨 기술은, 규모가 큰 나라 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튀르키예와 이란, 동쪽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맞닿아 있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영토의 20퍼센트가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특수한 이웃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압력은 코카서스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규모는 다르지만, 생존의 문법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연결성을 무기로 삼다

조지아의 생존 전략 핵심은 '연결성(connectivity)'입니다. 스스로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흑해 항구와 카스피해 사이의 육상 회랑을 활용하여, 양쪽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전략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 러시아를 경유하기 어려워지면서, 카자흐스탄-카스피해-조지아-흑해를 잇는 중간 회랑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조지아는 이 회랑의 서쪽 종착점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조지아의 위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한국도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교차점,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접점이라는 위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히 수출 제조업 기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물 류·금융·데이터의 허브로 진화할 것인가. 조지아가 작은 몸집으로 큰 회랑의 관문이 되려 하듯, 한국도 규모 이상의 연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과감한 개방이 생존을 보장하다

조지아는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370만 명이 아무리 소비해도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조지아는 46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무역지대(DCFTA)를 구축했고, 튀르키예,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들과도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EPA까지 더하면, 조지아에서 생산하거나 조지아를 경유하는 상품은 전 세계 23억 명의 소비 시장에 무관세 또는 저관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도 파격적입니다. 98개국 국민에게 1년 무비자 체류와 근로를 허용합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할 만큼 창업과 투자 절차가 간소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1퍼센트 세율, 하루 만에 끝나는 법인 설립, 15분 만에 처리되는 부동산 등기. 이 모든 것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일하고, 살고, 투자하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이 답입니다. 조지아는 그걸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크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인재와 자본을 끌어오는 개방 정책에서 조지아의 실험은 참고할 만합니다.

(4) 규칙을 단순화하여 유치하다

한국은 정교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촘촘한 법령, 세밀한 시행령, 복잡한 행정 절차. 이런 정교함이 질서를 유지하고 부정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산업이 태동하고, 신인재가 유입되고, 신자본이 움직이는 국면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복잡한 규칙은 속도의 적입니다.

조지아는 규칙을 단순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세금 신고가 단순하면 회색 경제(탈세, 비공식 거래)가 줄어듭니다. 절차가 간소하면 외국인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비용이 낮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국이 프리랜서 경제, 1인 기업, 국경 간 서비스 거래가 늘어나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세제와 사회보험과 신고 체계의 단순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어 통제하는 능력만큼,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 유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5) 지정학을 경제로 전환하다

조지아는 지정학적 취약성을 경제적 기회로 전환하는 데 능숙합니다.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서도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 튀르키예, 걸프 국가들의 투자도 받아들입니다.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문을 열어둡니다.

중간 회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러시아를 우회하는 물류 경로가 필요해지면서, 조지아의 지리적 위치가 자산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흑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유럽으로 전력을 수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수력 발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출국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도 지정학적 긴장 속에 있습니다. 미-중 경쟁, 북핵 위기,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정학적 위치를 한탄할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만 가능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 방위 산업의 수출 기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콘텐츠 허브. 조지아가 회랑의 관문이 되듯, 한국은 기술과 문화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6) 환대를 소프트파워로 만들다

조지아 사람들은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수프라(Supra)라는 연회 문화에서 손님은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타마다(건배사회자)가 이끄는 건배가 끝없이 이어지고, 음식과 와인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낯선 이방인도 그 자리에 앉으면 친구가 됩니다.

이 환대 문화는 과거에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강력한 관광 자원이자 소프트파워가 되었습니다. 조지아를 방문한 여행자들은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매료되어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됩니다.

한국도 'K-컬처'라는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느끼는 환대는 어떨까요.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때로는 배타적인 시선. 콘텐츠의 매력과 현장의 경험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소프트파워의 지속성이 약해집니다. 조지아의 환대 문화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7) 작은 나라의 교훈, 큰 나라의 적용

조지아를 "작은 나라"라고 말하는 순간, 많은 사람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는 생존을 위해 정책을 실험하고, 규칙을 단순화하고, 외부 자본과 인재를 끌어오며, 지정학을 경제로 바꾸는 기술을 먼저 발전시킵니다. 큰 나라는 그 실험의 결과를 관찰하고,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조지아 EPA는 단순히 작은 시장을 하나 더 여는 협정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 위치한 두 나라가,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적 연결고리를 만든 사건입니다. 조지아가 보여주는 생존의 지혜는, 인구가 줄고 성장이 둔화되고 지정학적 압력이 높아지는 한국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규칙을 단순화하면 무엇이 움직이는가.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는가. 위치의 취약성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가. 환대는 어떻게 힘이 되는가. 조지아라는 작은 거울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부록 1 조지아 역사 연표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부록

가. 선사시대와 고대: 인류 문명의 여명과 황금양털의 땅

조지아 땅에 인간의 발자국이 처음 찍힌 것은 놀랍게도 180만 년 전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85킬로미터 떨어진 드마니시(Dmanisi) 마을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로 걸어 나온 초기 인류의 흔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 화석의 주인공을 '호모 에렉투스 게오르기쿠스(Homo erectus georgicus)'라 명명했습니다. 조지아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류 이동의 십자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 조지아 남부의 크베모 카르틀리(Kvemo Kartli)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와인 양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토기 파편에서 포도 씨앗과 타르타르산(주 석산)을 검출했고, 이로써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Cradle of Wine)'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8천 년 전 이 땅의 농부들이 포도를 으깨어 점토 항아리에 담아두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에 무엇을 선물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13세기 무렵, 흑해 연안의 서부 조지아에는 콜키스(Colchis) 왕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가 황금양털을 찾아 떠난 목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법입니다. 당시 콜키스인들은 양털을 강물에 담가 금가루를 걸러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황금양털 전설의 기원으로 추정됩니다. 콜키스 왕궁에는 와인이 솟아나는 분수가 있었다고 전해지니, 이 땅과 포도주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부 조지아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 이베리아(Iberia) 왕국이 번성했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와 이름이 같지만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기원전 302년, 파르나바즈 1세(Pharnavaz I)가 왕위에 오르면서 파르나바지드 왕조가 시작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이때 조지아 문자가 창제되었다고 합니다. 서부의 콜키스와 동부의 이베리아, 이 두 왕국의 유산은 훗날 통일 조지아 왕국의 뿌리가 됩니다.

기원전 65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코카서스 원정에 나섰습니다. 이베리아는 로마에 복속 되었고, 콜키스는 로마 속주 라지쿰(Lazicum)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조지아는 로마와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이 이때 시작된 셈입니다.

나. 기독교 수용과 중세 황금기: 신앙으로 빛어진 정체성

서기 337년(또는 그 전후), 조지아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카파도키아 출신의 여성 니노(Nino)가 이베리아 왕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입니다. 미리안 3세 왕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녀 니노는 포도나무 가지 두 개를 십자가 모양으로 엮어 들고 다녔다고 전해지는데, 와인의 나라에 기독교를 전한 이의 상징치고는 참으로 적절합니다.

5세기, 바흐탕 고르가살리(Vakhtang Gorgasali) 왕이 썸 사냥을 하다가 뜨거운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심했고, 조지아어로 '따뜻하다'를 뜻하는 '트빌리'에서 이름을 따 트빌리시(Tbilisi)라 명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드 트빌리시의 유황 온천 지구에서는 그 옛날 왕의 썸이 빠졌다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릅니다.

11세기에서 13세기 초까지는 조지아의 황금기입니다. 다비드 4세(재위 1089~1125)는 '건설자 왕(Aghmashenebeli)'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셀주크 튀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1121년 디드고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국토를 재통일했습니다. 겔라티(Gelati) 아카 데미를 세워 학문을 장려했으며, 이칼토(Ikalto) 아카데미에서는 와인 양조학까지 가르쳤습니다.

다비드 4세의 증손녀 타마르 여왕(재위 1184~1213)의 통치기는 조지아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녀의 치세에 조지아 왕국의 영토는 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뻗었고, 문학과 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위대한 시인 쇼타 루스타벨리가 『호피를 두른 용사』를 쓴 것도 이 시기입니다. 바르지아(Vardzia) 동굴 도시가 건설된 것도 타마르 여왕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 조지아인들이 타마르를 '왕(King)'이 아닌 '여왕(Queen)'으로 부르는 것은, 그녀의 통치가 남성 군주 못지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지 않으려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다. 암흑기와 분열: 침략자들의 행렬

1220년대, 몽골의 철기병이 코카서스를 넘어왔습니다. 1226년 트빌리시가 함락될 때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황금기는 막을 내렸고, 조지아는 몽골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4세기 말에는 티무르(Tamerlane)의 군대가 일곱 차례나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파괴는 몽골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지아 왕국은 여러 개의 작은 왕국과 공국으로 쪼개졌습니다. 1490년 통일 왕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뒤, 서부와 동부는 각각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조지아는 두 이슬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스만의 영향을 받아 일부 귀족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동부는 페르시아의 압력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지아인은 정교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악 지대로 피신하거나, 교회를 요새처럼 지으며 버텼습니다. 오늘날 스바네티의 망루들이 그 시절의 유산입니다.

라. 러시아 제국의 그림자와 소비에트 시대

1783년, 동부 조지아의 에레클레 2세 왕은 러시아 제국과 게오르기예프스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스만과 페르시아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1801년, 러시아는 조약을 어기고 조지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바그라티오니 왕조는 폐위되었고, 조지아 정교회의 독립성마저 박탈되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지배 아래에서 조지아는 근대화의 명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트빌리시는 제국 변방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유럽풍 건물이 들어서고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 사용이 강요되었고, 조지아 문화는 억압받았습니다. 이에 맞서 일리아 차브차바제 같은 지식인들이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18년, 러시아 혁명의 혼란 속에서 조지아는 잠시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조지아 민주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는 진보적인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3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921년 붉은 군대가 침공했고, 조지아는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소련 시대(1921~1991)는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문맹 퇴치, 산업화, 교육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탈린 시대의 숙청, 종교 탄압, 조지아어 사용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탈린 본인이 조지아 고리(Gori) 출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조지아인들이 이 독재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는 이유입니다.

마. 독립과 현대: 장미혁명에서 오늘까지

1991년 4월 9일, 소련 붕괴와 함께 조지아는 다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직후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지역에서 분리주의 내전이 터졌고,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1990년대 트빌리시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11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장미를 들고 의회를 점거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정권이 교체된 이 사건을 장미혁명(Rose Revolution)이라 부릅니다. 새 정부는 과감한 반부패 개혁을 단행했고, 경찰 조직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오늘날 조지아가 여행자에게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는 배경에는 이때의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 8월, 러시아와의 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오세티야 문제를 둘러싼 이 충돌로 조지아는 영토의 약 20%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는 지금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점령선은 조금씩 이동하는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지아는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외국대리인법' 통과를 둘러싼 논란과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열망과 러시아의 그림자 사이에서 조지아의 선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5천 년 역사 속에서 늘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해온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부록 2 와이너리 지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카헤티: 와인의 심장부를 거닐다

조지아 와인 여행의 출발점은 단연 카헤티(Kakheti)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동쪽으로 약 100 킬로미터, 코카서스 산맥과 알라자니 계곡(Alazani Valley) 사이에 펼쳐진 이 지역에서 조지아 전체 와인 생산량의 70% 이상이 나옵니다. 포도밭 면적만 해도 4만 5천 헥타르에 달합니다. 가을이면 알라자니 계곡 전체가 포도향으로 물듭니다.

카헤티 여행의 거점 도시는 텔라비(Telavi)와 시그나기(Sighnaghi) 두 곳입니다. 텔라비는 카헤티의 행정 중심지로, 대형 와이너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시그나기는 '사랑의 도시'라 불리는 작은 성벽 마을로, 골목마다 부티크 와이너리와 게스트하우스가 숨어 있습니다. 두도시 사이를 오가며 하루에 3~4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일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츠난달리 에스테이트(Tsinandali Estate)는 카헤티 와인 투어의 필수 코스입니다. 19세기 귀족이자 시인이었던 알렉산드르 차브차바제의 영지였던 이곳에서 조지아 최초의 유럽식 병입 와인이 탄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다 보면 19세기 와인 저장고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서늘한 지하 셀러에는 1814년산 와인을 포함해 수천 병의 빈티지 컬렉션이 잠들어 있습니다. 시음 후에는 저택 내 박물관에서 조지아 귀족 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레바 와이너리(Winery Khareba)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크바렐리(Kvareli) 마을 근처, 소련 시대에 군사 목적으로 굴착한 터널을 와인 저장고로 개조한 곳입니다. '그비 라비(Gvirabi)'라 불리는 이 터널은 총 길이가 7.7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연중 온도가 섭씨 12~14도로 유지되어 와인 숙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걸으며 와인을 시음하는 경험은 카헤티에서만 가능합니다.

알라베르디 수도원 와이너리(Alaverdi Monastery Winery)는 영적인 와인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11세기에 지어진 대성당 옆, 수도사들이 천 년 가까이 이어온 양조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이곳의 와인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않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신에게 바치기 위해 빚어집니다. 50미터 높이의 대성당 아래에서 마시는 사페라비(Saperavi) 한 잔은, 단순한 시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 경영의 작은 와이너리들도 카헤티의 매력입니다. 트윈스 와인 셀러(Twins Wine Cellar)는 나파레울리(Napareuli) 마을에서 3대째 와인을 빚는 가족이 운영합니다. 크베브리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고, 주인 가족이 직접 시음을 안내합니다. 와인과 함께 손수 만든 츠르츠헬라(churchkhela, 포도즙에 호두를 입힌 과자)를 내어주는데, 이것이 조지아식 환대입니다.

나. 카르틀리: 트빌리시 근교의 숨은 보석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카르틀리(Kartli) 지역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트빌리시에서 차로 30분~1시간 거리에 품격 있는 와이너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면서 다양한 스타

일의 와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샤토 무흐라니(Chateau Mukhrani)는 므츠헤타 인근에 자리한 왕실 와이너리입니다. 19세기 바그라티온 왕가의 이바네 공작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영감을 받아 건설했습니다. 복원된 궁전 건물과 프랑스식 정원, 그리고 지하 셀러가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샤토를 방문한 느낌을 줍니다. 승마 투어와 고급 다이닝을 결합한 프리미엄 패키지도 운영합니다. 조지아 토착 품종을 현대적인 유럽 스타일로 해석한 와인이 특징입니다.

이아고의 와이너리(Iago's Winery)는 샤토 무흐라니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닙니다. 므츠헤타 외곽의 작은 마을 차르다히(Chardakhi)에서 이아고 비타리슈빌리(Iago Bitarishvili)라는 한농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와이너리입니다. 화학 비료나 첨가물 없이 전통 크베브리 방식만을 고수합니다. 그의 친누리(Chinuri) 품종 와인은 전 세계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생산량이 극히 적어 현지에서 직접 방문해야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아고 씨 본인이 직접 포도밭을 안내하며 자신의 양조 철학을 들려줍니다.

카르틀리 지역의 대표 품종은 친누리(Chinuri)와 고룰리 므츠바네(Goruli Mtsvane)입니다. 카헤티의 묵직한 사페라비와 달리, 가볍고 산뜻한 맛이 특징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도 적합해서, 최근 조지아산 스파클링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 이메레티와 라차-레치후미: 서부의 숨겨진 보물

쿠타이시(Kutaisi)를 거점으로 하는 서부 조지아의 와인은 카헤티와 사뭇 다른 개성을 지닙니다. 이메레티(Imereti) 지역의 와인은 더 가볍고, 산미가 살아 있으며, 꽃향기가 풍부합니다. 카헤티의 크베브리 와인이 껍질과 함께 6개월 이상 발효한다면, 이메레티에서는 접촉 시간을 훨씬 짧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같은 크베브리 양조법이라도 결과물의 색과 맛이 전혀 다릅니다.

바이아의 와이너리(Baia's Wine)는 이메레티 내추럴 와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바이아 아벨 리아니(Baia Abelian)라는 젊은 여성 와인메이커가 이끄는 이곳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며 조지아 와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츠올리코우리(Tsolikouri)와 츠츠키(Tsitska) 같은 이메레티 토착 품종으로 빚은 와인은, '크베브리 와인은 무조건 진하고 강하다'는 선입견을 깨뜨립니다.

라차-레치후미(Racha-Lechkhumi) 지역은 생산량은 적지만 특별한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흐반치카라(Khvanchkara)는 스탈린이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천연 세미 스위트 레드 와인입니다.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포도 자체의 당도만으로 만들어집니다. 산악 지형의 특수한 미세 기후가 포도의 당도를 높이고, 서늘한 기온이 발효를 늦춰 자연스러운 단맛이 남는 것입니다. 겨울에 산골 마을의 벽난로 앞에서 마시는 흐반치카라 한 잔은, 조지아 와인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와인 여행 실전 가이드: 선택과 집중의 기술

와이너리 투어를 계획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다섯 군데를 돌고 나면 모든 와인이 "다 맛있었다"는 기억으로 합쳐집니다. 인간의 미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에 2~3곳, 많아도 4곳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일정에 따른 추천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밖에 없다면 카헤티의 시그나기 또는 텔라비를 택하세요. 트빌리시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고, 선택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틀이 있다면 첫날은

카헤티의 대형 와이너리(하레바, 초난달리), 둘째 날은 가족 경영 소규모 와이너리와 수도원 와이너리를 조합하세요. 사흘 이상이라면 쿠타이시까지 이동해 이메레티의 내추럴 와인을 경험하거나, 라차까지 올라가 호반치카라를 맛보는 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예약은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투어 가능 여부, 시음 포함 여부, 식사 옵션 등을 확인하세요. 대형 와이너리는 당일 방문도 가능하지만, 소규모 와이너리는 주인이 부재중일 수 있습니다. 가을 수확철(9월 말~10월 초)에 방문한다면 르트벨리(Rtveli, 포도 수확 축제)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포도를 따고, 발로 밟아 즙을 내고, 갓 구운 빵과 바비큐를 곁들여 와인을 마시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부록 3 긴급 연락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가. 긴급 상황 대응: 112를 기억하세요

조지아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112를 누르세요. 경찰, 소방, 구급차를 모두 부를 수 있는 통합 긴급번호입니다. 24시간 무료로 연결되며, 영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연결 되면 세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What), 어디에 있는지(Where), 당신의 이름(Name)입니다.

위치 전달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지아어 주소를 모를 때는 지도 앱의 현재 위치 핀을 캡처해 두세요.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활용해 "내 위치를 조지아어 주소로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긴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조지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는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주소: 트빌리시 차브차바제 대로 64b, 15층

대표 전화: +995-32-297-0318 / +995-32-297-0320

긴급 연락처(24시간): +995-599-096-791

이메일: georgia@mofa.go.kr

여권 분실, 사건·사고, 긴급 귀국 등의 상황에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긴급 연락처로 전화하면 당직 직원이 응대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도 기억해 두세요. 해외에서 무료 연결 번호는 +800-2100-0404입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각종 영사 민원과 긴급 상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국과 비자: 한국인의 특권

한국 여권 소지자는 조지아에 비자 없이 입국하여 최대 1년(36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무비자로 90일, 길어야 180일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지아가 외국인 방문객을 얼마나 환영하 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간단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건강 및 상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시 영문 보험 증서를 제시해야 할 수 있으니, 여행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증빙 서류를 출력해 가세요.

트빌리시 국제공항(TBS)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수하물을 찾게 됩니다. 공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이동이 간단합니다. 입국장을 나서면 바로 환전소, 유심 판매 매장, 택시 호출 앱 안내창구가 보입니다.

다. 화폐와 결제: 라리의 세계로

조지아의 공식 화폐는 라리(GEL)입니다. 1라리는 대략 500원 내외이지만,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니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라리는 100테트리(tetri)로 나뉘며, 동전은 1, 2, 5, 10, 20, 50 테트리와 1, 2라리가 있고, 지폐는 5, 10, 20, 50, 100, 200라리가 있습니다.

환전은 한국에서 미국 달러나 유로를 가져가 현지에서 라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트빌리시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 환율이 좋습니다. 공항 환전소는 환율이 나쁘니, 도착 당일 최소한의 금액만 바꾸고 시내에서 추가로 환전하세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는 트빌리시, 바투미 같은 대도시의 식당, 마트, 호텔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시골 게스트하우스, 재래시장, 작은 식당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버스(마슈루트카) 요금도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소액권 지폐(5~20 라리)를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 100라리 지폐를 내밀면 거스름돈이 없다며 난처해지는 상점이 많습니다.

라. 교통수단: 이동의 기술

트빌리시 시내에서는 지하철, 버스, 미니버스(마슈루트카)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은 두 노선이 있고, 요금은 1라리(약 500원)입니다. 메트로카드를 구매해 충전하면 버스와 지하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지하철역 창구나 자판기에서 구입합니다.

택시는 반드시 호출 앱을 사용하세요. 볼트(Bolt)와 안덱스 고(Yandex Go)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앱으로 호출하면 요금이 미리 확정되어 바가지를 쓸 염려가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 이동은 5~15라리(2,500~7,500원)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잡는 택시는 요금 흥정이 필요하고,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 간 이동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트빌리시-바투미 구간은 현대적인 고속 열차가 운행되며, 약 5시간이 소요됩니다. 좌석이 넓고 쾌적하며, 식당칸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철도 공식 웹사이트(railway.ge)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마슈루트카(Marshrutka)는 현지인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미니버스입니다. 저렴하고 노선이 다양하지만,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고 사람이 꽉 차야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지가 조지아어로만 적혀 있어 외국인에게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간판을 촬영해 목적지를 확인하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없는 차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여행은 자유로움을 주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운전 문화는 다소 거칠고, 도로 위에 가축이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산악 도로는 비포장 구간이 많아 4륜 구동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으로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마. 통신과 인터넷: 연결의 생명선

조지아에서 데이터 통신은 지도 앱, 번역 앱, 택시 호출 앱을 위해 필수입니다. 공항 입국장에 마그티(Magti), 실크넷(Silknet), 셀(Geocell) 등 통신사 매장이 있습니다. 여권을 제시하면 관광객용 선불 유심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5~10라리(2,500~5,000원) 정도면 충분한 데이터가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마그티의 수신율이 가장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카즈베기나 스바네티 같은 오지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참고하세요. eSIM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조지아용 eSIM을 구매해 활성화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호텔, 게스트하우스,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속도도 나쁘지 않아 일상적인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바. 건강과 안전: 알아두면 편한 것들

식수는 트빌리시 같은 대도시에서 수도물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배관 상태가 오래된 건물도 있고, 여행자의 위장은 예민할 수 있으니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조지아는 미네랄 워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보르조미(Borjomi) 탄산수는 짭짤한 맛이 특징이고, 나베글라비(Nabeghlavi)는 부드러운 맛입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약국은 'Aversi', 'PSP' 같은 체인이 곳곳에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약의 성분명(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을 적어가면 의사소통이 쉬워집니다.

들개가 거리 곳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귀에 노란색 태그가 달려 있는데, 이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대체로 온순하지만, 때로 몰려다닐 때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 문화적 에티켓: 존중의 언어

조지아 정교회 성당이나 수도원을 방문할 때는 복장에 주의하세요. 남성은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여성은 머리를 가릴 스카프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또는 바지가 필요합니다. 민소매나 짧은 반바지는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구에 공용 스카프와 랩스커트가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 가면 더 좋습니다.

수프라(Supra)에 초대받았다면 축하합니다. 조지아식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수프 라에는 타마다(Tamada)라 불리는 연회 진행자가 있습니다. 타마다가 건배사를 제안하면, 모두 함께 잔을 들어 호응합니다. 건배 후에는 잔을 비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와인을 마실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조지아인들은 손님에게 끊임없이 권하는 것을 환대의 표현으로 여기지만,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해 줍니다.

식당에서 팁은 의무가 아니지만, 서비스가 좋았다면 10% 정도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아. 안전 수칙: 가지 말아야 할 곳

조지아 여행에서 절대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으며, 조지아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조지아 영토를 통해 무허가로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조지아 법률 위반이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점령선 부근에서는 '크리핑 보더(creeping border)'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설치한 경계선이 조금씩 조지아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트빌리시에서 고리(Gori) 방면 으로 여행할 때, 남오세티야 점령선 근처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역 주민이나 가이드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 조지아는 여행자에게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늦게 인적 드문 곳을 혼자 걷지 않기, 귀중품을 분산해서 보관하기, 술 마신 뒤 흥정하지 않기 같은 기본적인 여행 상식만 지키면 불쾌한 경험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트빌리시의 관광 명소나 변화 가에서는 한밤중에도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거닙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연락처와 대사관 주소는 휴대폰에 저장하고, 종이에 적어 여권과 함께 보관하세요. 인터넷이 끊기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결국 종이 한 장이 가장 믿음직한 백업입니다. 준비된 여행자는 어디서든 살아남습니다. 가마르조바(), 안전한 조지아 여행을 빕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부록 4 AI, 여행의 든든한 동반자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트빌리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문득 벽에 새겨진 낯선 문자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둥글둥글한 곡선이 마치 포도넝쿨처럼 휘감긴 이 글자들이 바로 조지아어, 므헤드룰 리(Mkhedruli)입니다. 세계에서 열네 개뿐인 독자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알파벳은 아름답지만 여행자에게는 암호나 다름없습니다.

레스토랑 메뉴판을 펼칩니다. 힌칼리인지 하차푸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 시간표를 쳐다봅니다. 숫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약국에서 두통약을 샀는데 복용법을 모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여행자는 손짓발짓과 번역 앱의 어눌한 기계음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2020년대의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한 장을 찍어 업로드하면, ChatGPT나 Claude, Gemini 같은 AI 챗봇이 조지아어를 읽고, 번역하고, 맥락을 파악하여 여행자에게 필요한 조언까지 덧붙여줍니다. 단순한 번역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주는 여행 참모가 주머니 속에 들어온 셈입니다.

출국 전, AI를 여행 동료로 세팅하기

조지아 여행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메인으로 쓸 AI 앱을 하나 또는 둘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hatGPT, Claude, Gemini 모두 훌륭하지만, 여행 중에 이 앱 저 앱 바뀌가며 실험할 여유는 없습니다. 인간의 배터리와 집중력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지아 전용 프롬프트"를 미리 준비해두면 현지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을 매번 새로 입력하는 대신, 자주 쓸 만한 질문 형식을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복사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메뉴판 번역용으로는 이런 문장이 유용합니다. "이 메뉴판에서 조지아 전통 음식을 설명해 주고, 채식 위주로 추천해줘." 교통 시간표 해석용으로는 "이 시간표에서 오늘 오후 3시 이후 트빌리시 시내로 가는 옵션을 출발시간, 요금, 주의사항 순으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품 설명서에는 "이 약의 효능, 복용법, 부작용을 한국어로 요약해줘"라는 프롬프트가 효과적입니다.

인터넷 연결 확보는 AI 활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조지아 공항에 도착하면 마그티(Magti)나 지오셀(Geocell) 같은 현지 통신사의 유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빌리시 쇼타 루스타벨리 국제공항에는 통신사 부스가 있어 5~10라리(약 2,000~4,000원) 정도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eSIM이 더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 QR코드로 설치해두고, 조지아에 도착 해서 활성화 하면 공항에서 줄 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XS 이후 모델, 삼성 갤럭시 S23 이후 모델이라면 eSIM을 지원합니다. 다이얼 화면에서 #06#을 입력했을 때 EID 정보가 나타나면 사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바네티의 우슈굴리나 카즈베기의 주타 밸리처럼 깊은 산 간 지역에서는 데이터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 앱의 오프라인 언어팩(영 어-한국어, 영어-조

지아어)을 미리 다운로드해두고, AI와 나눈 중요한 대화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AI는 인터넷이 있으면 천재이지만, 없으면 그저 앱에 불과합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해독에서 전략으로

조지아 음식은 맛있습니다. 치즈가 흘러넘치는 아자르식 하차푸리(Khachapuri Acharuli), 주먹만 한 만두 힌칼리(Khinkali), 호두 소스를 두른 가지 요리 바드리자니(Badrijani). 문제는 메뉴판이 여행자에게 친절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메뉴판 사진을 찍어 AI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메뉴판을 번역하고, 조지아 대표 음식 중에서 한국인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조합을 추천해줘. 1인 기준으로 양도 추정해 줘." AI는 단순히 글자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요리가 치즈 폭탄인지, 어떤 요리가 향신료가 강한지, 어떤 요리가 조지아 와인과 잘 어울리는지까지 덧붙여줍니다.

알레르기나 식이 제한이 있는 여행자에게 AI는 더욱 유용합니다. 조지아 요리에는 유제품, 견과류, 밀가루가 흔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 메뉴 중에서 치즈나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골라줘"라고 요청하면 AI가 안전한 선택지를 추천해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AI에게 "위 문장을 조지아어로 자연스럽게 바꿔줘"라고 하면 현지 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손짓발짓 없이도 자신의 조건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와인 선택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는 8,000년 와인 역사를 가진 와인의 발상지입니다. 마트나 와이너리에서 복잡한 라벨의 와인 사진을 찍어 "이 와인의 품종과 당도, 어울리는 안주를 알려줘"라고 하면 전문가 못지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페라비(Saperavi)는 조지아의 대표적인 적포도 품종으로 타닌이 강하고 육류와 잘 어울립니다. 르카치텔리(Rkatsiteli)는 청포도 품종으로 크베브리 양조 시 호박색 앰버 와인이 됩니다. 이런 배경 지식까지 AI가 설명해줍니다.

교통에서: 복잡한 시간표와 표지판을 정리하다

조지아 여행에서 이동은 핵심입니다. 트빌리시에서 카즈베기로, 쿠타이시에서 바투미로, 텔라비에서 시그나기로. 이 루트들을 연결하는 마슈루트카(Marshrutka)라 불리는 미니버 스와 기차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디두베(Didube)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면 조지아어와 러시아어로 적힌 시간표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숫자는 읽을 수 있지만 목적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시간표 사진을 찍어 AI에 업로드하고 "내일 오전 9시 이후 카즈베기로 가는 마슈루트카의 출발시간, 요금, 소요시간, 좌석예약 필요 여부를 표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합니다.

기차표를 샀다면 "이 표에서 좌석번호, 차량 번호, 출발 플랫폼, 출발시간을 정확히 추출해 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알려줘"라고 하면 됩니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트빌리시 시내 이동에서는 Bolt나 Yandex 같은 차량 호출 앱이 편리합니다. 메트로머니(Metromoney) 카드를 구입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0.50라리(약 2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하는 37번 버스는 24시간 운행하며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AI에게 "트빌리시 공항에서 자유광장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 3가지를 비용, 소요시간, 편의성 순으로 비교해줘"라고

하면 선택지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택시 흥정이 필요할 때도 AI가 도움이 됩니다. “자유광장까지 갈 거예요. 미터기를 켜주세요. 미터기가 없으면 앱 기준 요금으로만 가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조지아어나 러시아어로 변환해달라고 하면 현지 기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부탁하면 AI가 적절한 뉘앙스까지 반영해줍니다.

관광지에서: AI를 현지 가이드로 삼다

트빌리시의 나리칼라 요새(Narikala Fortress) 앞에 섰습니다. 4세기에 처음 지어져 페르시아, 아랍, 몽골, 오스만의 공격을 견뎌낸 이 성채는 트빌리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안내판은 조지아어로만 적혀 있고, 가이드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저 오래된 벽돌 더미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건물 사진을 찍어 AI에 업로드하고 “이 장소가 무엇인지 설명해줘. 조지아 역사와 정교회 문화 맥락에서 핵심 포인트 5개만 알려줘. 사진 찍을 때 예의나 금기 사항도 알려줘”라고 요청합니다. AI는 요새의 건축 시기, 재건 역사, 성 니콜라스 교회와의 관계, 케이블카 이용 팁까지 정리해줍니다.

조지아의 교회들은 복장 규정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하고, 짧은 바지나 민소매는 자제해야 합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Gergeti Trinity Church)나 스바네 티의 라마리아 교회(Lamaria Church)에서는 사진 촬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AI에게 미리 물어보면 “몰라서 무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국립박물관에서 유물 옆 설명판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다면, 사진을 찍어 번역을 요청합니다. 단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이 유물을 볼 때 주목해야 할 요소와 시대적 배경을 5 줄로 요약해줘”라고 하면 감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쇼핑과 일상에서: 성분표와 조작 버튼의 해석

데저터 바자르(Deserter Bazaar)는 트빌리시의 전통 시장입니다. 향신료, 건과일, 조지아 전통 간식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추르츠헬라(Churchkhela)를 발견합니다. 포도즙에 호두를 껴서 말린 이 과자는 겉보기에는 소시지 같지만 달콤한 에너지바입니다.

낯선 식재료나 과자 사진을 찍어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유통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됩니다. 현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의 성분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세탁기나 보일러 조작부가 조지아어로만 되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작 패널 사진을 올리고 “각 버튼 기능을 추정해서 한국어로 설명해줘. 빨래를 가장 안전하게 돌리는 표준 설정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해결됩니다. 에어컨이나 난방 조절도 “이 리모컨에서 난방과 냉방 전환 방법, 온도 설정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약국과 의료 상황에서: 안전이 최우선

여행 중 가벼운 두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약국(, Aptiaki)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약국에서 구매한 약의 설명서 사진을 찍어 “이 약의 효능, 복용법, 주의사항, 흔한 부작용을 요약해줘. 다른 약과 병용 시 위험이 있는지도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AI는 참고용이지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AI가 아무리 자신 있게 답변해도 그것은 AI의 특기일 뿐,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현지 약사에게 확인하고, AI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처방전 사진을 찍어 "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진단 명, 처방약, 복용법, 재방문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해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의료진의 몫입니다.

긴급 상황과 행정 서류에서

드물지만 경찰서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사진을 올리고 "핵심 의무사항, 서명 필요 여부, 제출 기한, 벌금, 다음 방문 장소를 추출해줘. 내가 놓치면 큰일 나는 문장만 따로 표시해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3월 기준 조지아에 대해 레벨 1 여행주의보(Exercise Normal Precautions)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안전하지만, 러시아 점령 지역인 남오 세티야와 압하지야는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트빌리시의 루스타벨리 대로와 영웅광장 주변에서는 정치 시위가 빈번하게 열리므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STEP)에 등록해두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긴급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앱도 유용합니다.

사진 품질이 AI 정확도를 좌우한다

AI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유의 80%는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진이 멍청하게 찍혀 서"입니다. 조지아 문자는 둥글둥글한 곡선이 많아 초점이 흐리면 오인식률이 높아집니다.

글자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그림자가 생기면 각도를 바꿔 다시 찍습니다. 비스듬하게 찍으면 인식률이 떨어지므로 정면에서 수평을 맞춥니다. 긴 문서는 여러 장으로 나눠 찍고 "1/3, 2/3, 3/3" 순서를 표시해줍니다. 작은 글씨는 가까이서, 흔들림 없이, 가능하면 확대 촬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라

메뉴판이나 시간표는 문제없지만, 여권, 탑승권, 예약번호, 주소, 카드정보가 찍힌 사진은 조심해야 합니다. AI에게 올리기 전에 민감한 정보는 가리거나 잘라냅니다.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하지 말고 일부 마스킹해서 보여줘"라고 AI에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R코드는 예상 외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업로드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AI는 번역기가 아니라 현장 참모다

조지아는 낯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낯선 만큼 실수 확률도 올라 갑니다. 잘못된 버스를 타고,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고, 복용법 모르는 약을 삼킬 수 있습니다.

AI는 그 실수를 줄여줍니다. 사진 한 장으로 메뉴를 고르고, 교통을 정리하고, 간판을 읽고, 역사 맥락을 얻고, 서류를 이해합니다. 여행을 "버티는 일"에서 "즐기는 일"로 바꿔줍니다.

물론 AI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없이는 무력하고, 의료나 법률 판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가끔 자신 있게 틀린 정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AI는 조지아 여행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트빌리시의 유황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카헤티의 와이너리에서 크베브리 와인을 시음하고, 게르게티 교회 앞에서 카즈벡 산의 만년설을 바라볼 때, 스마트폰 속 AI는 조용히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우마르조스(!) 조지아식 건배사입니다. AI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에필로그: 항아리 속 호텔에서 보낸 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카헤티의 어느 와이너리에서 나는 크베브리 모양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거대한 포도주 항아리, 그 형상을 본뜬 숙소였습니다. 둥근 천장이 포도주 빛깔로 물들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끝없는 포도밭이 펼쳐졌습니다. 8,000년 전 이 땅의 누군가가 포도를 으깨어 항아리에 넣었을 때, 인류 최초의 와인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시간의 연장선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코카서스의 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없는 이곳에서 은하수는 실제로 강처럼 흘렀습니다.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낮에는 30도를 넘던 기온이 밤에는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일교차가 포도에 당도를 선물합니다. 자연이 와인을 빚는 방식입니다.

조지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 12개의 기후대가 공존합니다. 흑해 연안 바투미에서는 아열대의 습기가 피부에 감기고, 카즈베기의 고산지대에서는 만년설이 빛납니다. 카헤티의 건조한 평원에서는 포도가 익어가고, 스바네티의 깊은 골짜기에서는 안개가 마을을 감쌉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 안에 사계절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기름진 땅, 온화한 기후, 동서를 잇는 길목. 모두가 탐내는 조건입니다. 페르시아가 왔고, 몽골이 왔고, 오스만이 왔고, 러시아가 왔습니다. 조지아인들은 싸웠습니다. 지고, 일어서고, 다시 싸웠습니다. 수프라 연회에서 올리는 건배사 중에는 반드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잔을 비우는 손끝에 수천 년의 저항이 스며 있습니다.

트빌리시를 떠나는 날 아침, 유황 온천 지구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아바노투바니의 돛형 목욕탕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 냄새. 기원전부터 이 물에 몸을 담갔다는 사람들. 러시아 시인 푸시킨도, 프랑스 소설가 뒤마도 이 온천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나는 뜨거운 물속에서 2주간의 여정을 되짚었습니다.

바투미의 야자수와 카지노 불빛. 군사도로의 아찔한 절벽과 구름 위의 교회. 시그나기 언덕에서 내려다본 알라자니 계곡의 포도밭. 고리의 스탈린 생가 앞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 트빌리시 구시가지 골목에서 들려오던 다성 합창의 잔향.

그리고 어디서나 만난 사람들.

“조지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와인을 따라주던 와이너리 주인. “러시아는 싫지만 러시아어는 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던 택시 기사. “유럽에 가고 싶다”며 시위 사진을 보여주던 대학생. 그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조지아인들은 손님을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스투마리 기비스티아 아리스’(). 손님은 신에게서 왔다.

이 말을 여행 내내 들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집을 열고, 식탁을 차리고, 잔을 채워주는 사람들. 그 환대의 무게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만년설을 인 봉우리들, 그 사이로 난군사도로, 그리고 저 너머 어딘가에서 와인을 빚고 있을 사람들. 나는 다시 오겠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여행지는 사진으로 남고, 어떤 여행지는 가슴에 남습니다.

조지아는 후자였습니다. 8,000년 와인의 향, 33개 알파벳의 곡선, 다성 음악의 화음, 수프라 연회의 건배사,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보낸 그 밤,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와인은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크베브리 안에서 포도는 천천히 발효하고, 세월이 지나 비로소 와인이 됩니다. 조지아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5,000년의 역사가 땅속에서 숙성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항아리 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코카서스의 별 아래서, 한 잔의 와인과 함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